

# 朝鮮王朝의 開港以後에 있어서의 行政近代化過程에 關한 研究(I)

金雲泰  
(敎授)

## 目 次

### 第一章 近代意識의 韓國的 自覺(序論)

#### 第二章 朝鮮의 開國

##### 第一章 日帝의 對韓侵略政策과 江華島事件

##### 第二節 丙子修好交涉과 修交後의 國內外關係

##### 第三節 西歐諸國과의 修交

#### 第三章 開港을 前後로 한 政治文化의 動搖

##### 第一節 修好條約이 치였던 歷史的인 爭點

###### (一) 書契問題의 擡頭와 그 性格

###### (二) 그에 대한 反應 一朝廷 및 在野一

##### 第二節 修好條約의 成立과 그에 대한 反應

###### (一) 朝廷의 反應과 그 決定作成過程의 分析

###### (二) 在野 mid-elite 들의 反應(反對上疏)

##### 第三節 修好條約 成立以後의 反應

###### (一) 條約實踐에 否定的인 反應 一衛正斥邪思想의 漸高一

#### 第四章 行政改革過程

##### 第一節 行政制度改革의 動機

###### (一) 日本使臣의 往來를 通한 改革의 勸告

###### (二) 清에 學造器機事 를 請咨하여 그 承諾을 받아 新衙門設置가 促求된 事實

##### (三) 修信使 金弘集의 報告와 黃遵憲의 「朝鮮策略」의 影響

##### 第二節 統理機務衙門設置經緯

##### 第三節 紳士遊覽團과 領選使의 派遣

##### 第四節 軍制의 改革

##### 第五節 統理機務衙門의 改編

##### 第六節 近代文化의 移入과 各種 文物의導入

###### (一) 日東記游

###### (二) 修信使日記

###### (三) 萬國公法

###### (四) 朝鮮策略

###### (五) 「中西關係論」一卷 其他 國內外著書의 影響

###### (六) 教育制度의 開化

###### (七) 國民生活의 開化

###### (八) 歐美文化의 導入

#### 第五章 壬午軍亂과 復古的 改革

##### 第一節 壬午軍亂의 原因

##### 第二節 壬午軍亂의 善後策

##### 第三節 清·日의 干涉과 戚族政權의 復舊

#### 第六章 近代化運動과 甲申政變

##### 第一節 外壓과 開化獨立黨의 組織化

##### 第二節 甲申政變과 革新政策

##### 第三節 事大黨守舊政府의 再建

## 第一章 近代意識의 韓國的 自覺(序論)

朝鮮王朝에 있어近代化運動換言하여開化運動이具體的實踐運動으로서 나타난 것은 19世紀後半의開港과當時의社會文化的背景등內外의壓力을契機로하여上層階級의一部改革派人士에 의하여劃策되었던 것이며 다만 이들改革派가日本의侵略勢力에依存하여改革을斷行한關係로一方에 있어改革派의主體的弱體性과他方에 있어民衆의改革에너지에背離되어그들大衆의自覺的支持를받지못하였기때문에成熟되지못하고失敗로돌아간 것이다. 그러나이近代化運動의文化的基盤으로서의近代意識은朝鮮封建社會가거듭되는外敵의侵略과オラン동안西學의影響을받으면서崩壊하는過程에서自覺의으로成長한 것이다. 여기서開港에이르기까지의近代意識의成長過程에關하여간단히살펴보기로하겠다.

우선近代意識의核心을이루는民族意識의自覺에關하여살펴보기로하자. 무릇韓民族史에서新羅의統一(A.D 668, 文武王8年)에依하여民族形成의바탕을마련한以來數千年에걸쳐民族形成過程이進行된것이며마침내壬辰倭亂과丙子胡亂이라는兩大外賊의侵略을契機로하여近代的民族意識의完全한自覺은아니라도民族意識의큰成長을보게된 것이다. 즉倭胡兩亂特히壬辰倭亂에直面하자全國民의모든階級이한마음으로外敵에抗拒하는民族意識에불탔던것은特記할만한몇가지史話나逸話만으로도實證이되며<sup>(1)</sup>또兩亂이남긴弊害가極甚히可酷했다는史實로미루어보아一般民衆들까지도民族觀念을意識化시키는契機가되었다고본다. 이리하여이倭·胡兩亂은他民族에대한自民族의歷史와運命에關한共同意識의自覺을促求했고그것은民族意識뿐아니라被支配階級의一般民衆意識의自覺을同時에刺戟하였다고본다<sup>(2)</sup>.

그리고壬辰倭亂과丙子胡亂의兩大亂은民族意識의深化와民衆意識또는社會意識의覺醒을불러일으켰을뿐더러西歐文物의傳來의時期를劃한點에서도큰意義가있었다. 即이時期는西洋人の東洋進出이活潑해진直後로서日本은이미그潮流를타고있던때라朝鮮이처음으로天主教와機緣이생기게되었고科學文明의武器인鳥銃<sup>(3)</sup>이日本을거쳐

- (1)倭亂은朝鮮人民의民族意識과民衆의自我反省을促求하는契機가되었다.當時民衆意識과民族意識은英雄崇拜로도나타나宣·仁祖間에盛行되었던「壬辰錄」「郭再祐傳」등의軍談類와洪吉童傳小說은그代表的例이있다. 특히壬辰錄은李忠武公의戰略, 西山大師, 洗漠堂의道術등을誇張하여潤飾한民譚이며洪吉童傳(光海君朝의實學派의先驅者인許筠作品)은庶子인主人公洪吉童의革命精神을作品화한것으로兩班들의橫暴과托賂,百姓들의不平,指導階級에대한非難을center으로하여階級打破를부르짖은社會小說이었다.
- (2)그러나壬辰倭亂은日本에대한再認識과敵愾心을불러이르킨點에서民族意識의鼓吹에어느程度도음이되었으나漢文化圈의尊王攘夷思想換言하면尊明思想을結果的으로助長한點에서韓民族主義意識의鈍化를招來한一面도注目된다.
- (3)鳥銃이우리나라에傳來된것은倭亂勃發의2年前인宣祖23年(1590)日本國使宗義智에依

들어 왔고 또 北京을 經由하여 유럽地圖, 西洋火砲, 天文書, 千里鏡, 西洋風俗記, 麻譯된 基督教書籍(李暉光, Matteo Ricci 의 著書 天文實義紹介 등) 醫學, 農藝, 數學 등의 各種 書籍이 輸入되었다. 이와 같은 各種 書籍과 西洋 新文明의 利器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西洋의 科學知識과 宗教思想을 일깨워 주었으며 이로서 中國漢文化圈의 世界史 안에서 迷夢에 잠겼던 小華의 觀念에서 民族의 自存과 自我를 覺醒하는 同時에 所謂 陰陽五行說에 土台를 둔 格物致知의 傳統的 理論에 一大動搖를 일으키게 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壬辰, 丙子의 亂을 契機로 그 封建社會의 矛盾이 一層 激化하여 王朝의 全般的 인解弛過程을 밝는 가운데 17·8世紀에 이르면서 더욱 甚해지는 社會構成의 變動과 또 明·清을 通하여 들어오는 西洋文物의 傳來와 清의 考證學의 영향으로 矛盾에 쌓인 傳統的 意識構造와 封建社會體制에 대한 懷疑와 反省과 批判의 氣運이 또한 成熟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在野的 兩班層에 의해 實學思想으로 擡頭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實學思想의 根本精神은 所謂 實事求是學風이라 하여 國家社會의 矛盾을 改革하려는 時代의 緊急한 要求에 副應한 것이 없으며 이 學風의 先驅者인 李暉光(1563—1638), 韓百謙(1552—1615) 등의 뒤를 이어 金堉(1580—1658)은 實學理論을 政治制度에 應用하고 大同法을 施行하여 廉民生活의 向上에 이바지 하였으며 磻溪 柳馨遠(1622—1673)은 田制의 根本的改革을 筆頭로 하여 教育, 考試, 官吏任命, 官制, 傅給, 兵制等 現實行政制度와 民生問題의 研究에 平生 精力을 기울였으며<sup>(4)</sup> 그 뒤를 이어 星湖 李瀆(1682—1764)은 土地兼併에 의한 貧富의 差를 防止할 目的으로 均田法을 主張하였고 그의 學風은 많은 사람에게 影響을 주어 門下에 많은 學者를 輩出하였으며<sup>(5)</sup> 그 중에서도 茶山 丁若鏞(1762—1836)은 韓國의 近代意識인 實學思想을 集大成한 先驅的 思想家로서 民主民本主義와 民意民權主義에 趣하는 近代思想을 提唱한 最初의 學者이었다.<sup>(6)</sup>.

---

한 것으로서 日本보다 47년이 늦은 셈이다. 이 武器의 輸入이 뒤떨어진 것이 倭兵에게 敗한重要な 理由이기도 하다. 從來 中國만이 唯一한 文明國으로 알고 中華에 대하여 小華로 自處自足해 오던 次에 우리의 眼中에도 없었던 日本이 이미 鳥銃으로써 代表되는 西洋文明의 一端을 불잡아 가지고 우리에게 臨하니 바로 이 壬辰亂을 前後하여 從來의 強弱의 地位가 차차 轉倒되기에 이른 것이다.

- (4) 柳馨遠著 磻溪隨錄은 「倭·胡兩大亂을 겪은 당시 封建社會의 素亂相과 腐敗相, 特히 貧血에 빠진 農村社會의 生活을 切實히 目擊하고 體驗한 著書로서, 如何히 하면 制度의 缺陷을 是正하고 民生問題를 解決해 볼까 하는 豊國愛民의 念願에서 合理的으로 構想하고 摸索한」 大著이다. 古典刊行會 1558. 東國文化社 發行 序文引用.
- (5) 李瀆은 經世致用의 學을 主로 하면서 博學多彩한 學風을 일으킨 者로서 天文, 地理, 律算 醫學의 書는勿論하고 中國을 通하여 輸入된 西洋學術에 關한 見聞에도 밝았다(星湖僊說, 上·下, 京城文光書林 上·下 昭和4年 參考). 그가 끼친 影響도 多方面으로 즉 歷史의 安鼎福, 韓致淵地理學의 李重煥, 國語와 音韻學의 申景瀧(訓民正音圖解), 柳儀(諺文志), 經濟學의 丁若鏞 등을 위시하여 그의 門中, 弟子間에는 많은 優秀한 學者가 輩出하여 南人系列을 지었다.
- (6) 與猶堂全書로 전해지는 방대한 著述을 남기고 있으며 그 중 經世遺表, 牧民心書 등은 經世治民에 관한 綜合的 批判 및 改革案의 典據로有名하다. 그는 清代學術의 影響도 받고 있었다.

한편 清의 서울인 燕京은 當時 天主敎의 東洋宣敎의 中心地로 西洋學藝의 傳授의 地가 되었으며 그 燦爛한 文化의 全盛期에 使臣으로나 隨行員으로 往來했던 學者들<sup>(7)</sup>은 그곳 學者와 交遊하고 그곳 文物을 가져오게 되고 그들의 考證學風을 배우게 된 것이다. 이들은 明나라에 대한 崇慕나 節義에 執着하고丙子의 國恥를 언제나 分하게 여겨 앙갚음을 할 마음을 갖거나 또는 清國을 오랑캐로 언제나 멸시하다가는 우리나라가 아주 時代에 뒤 떨어지고 말태니 清國을 배우자는 所謂 北學論을 提唱한 者들로서 그先驅者인 燕岩 朴祉源은 热河日記兩班傳, 許生傳 등의 작품을 通하여 腐敗한 兩班支配層을 통박하고 北伐論의 虛妄을 辛辣하게 풍자하는 등 實學的인 風潮를 鼓吹하였으며 楚亭 朴齊家는 이러한 北學論을 代表할만한作品「北學議」를 著作하여 後世에 큰 影響을 주었다.

이와 같은 實學派들의 뒤를 이어 哲宗年間으로부터 高宗初年에 걸쳐서는 다시 李圭景(五洲), 崔漢綺(明南樓), 金正浩 등이 나타났는데 李圭景은 「五洲衍文長箋稿」를 通하여 東西古今의 新知識을 紹介하였고 崔漢綺는 「明南樓全書」를 通하여 新境地를 開拓하였고 그의 親友 金正浩는 地理學者로서 「大東輿地圖」「大東地志」를 刊行하여 社會發展에 寄與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壬辰, 丙子의 兩亂以後에 實學派가 擡頭하고 天主敎가 傳來된 以後부터는 大小의 叛亂이 어느程度의 近代的 性格을 띠고 나타났다는 點이 注目된다. 即 從前의 수많은 大小의 國內 叛亂이 舉皆가 王朝革命이나 王位爭奪 또는 政權爭取를 위한 性格이 아니면 失勢에 대한 個人的 不平이 動機가 됨데 反하여 後者は 政治에 대한 大衆的 不平이나 被支配階級의 不平을 바탕으로 組織化되었다는 事實이다. 가령 洪景來亂(1782—1812)은 叛亂을 先導한 洪景來의 內心의 理念이 어쨌든지 地方差別, 文武差別, 嫡庶差別, 黨弊 및 外戚專橫과 兩班弊習에 대한 反抗을 標榜하고 이를 民衆에게 呼訴하고煽動한 것으로 비록 成功은 하지는 못했지만近代화의 重大한 契機를 이룬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리고 王朝末葉에 三南一帶와 咸興, 濟州地方에 波及된 三政의 騷擾이라고 알리어지고 있는 一連의 民亂도 三政의 腐敗와 惡德官使에 대한 反撥인 同時に 漸次 兩班階級에 대한 反抗으로 發展한 것으로 그 規模와 性格上近代的인 大衆叛亂이었다. 이와 같은近代的 叛亂의 展開는 한결 음 나아가 李朝末社會에 內存하는 矛盾總體에 대한 自覺的 反抗運動으로서의 東學運動으로 發展한 것이었다.

한편 朝鮮王朝 末期에 아직까지도 絶對多數의 保守 官僚執權層과 守舊的 儒生들이 封建體制의 復古再興을 꿈꾸고 排外斥邪思想에 젖어 있을 무렵에 世界大勢에 비추어 開國의 必要

(7) 徐命膺, 洪良浩(月溪), 洪大容(湛軒), 朴趾源(燕岩), 朴齊家(楚亭), 李德懋(雅亭), 柳得恭(惠風) 등은 當時 清朝의 文物에 접한 人士들이었다. 이들 北學派人士들은 階級的으로 不遇하던 庶孽에 屬하는이가 많았으며 西學派가 대개 政爭에 不遇하던 南人學者들로 이루워진 事實과 對照가 된다. 이와 같이 實學에 參與한 人士들의 社會成分에 비추워 볼때 그들의 思想이近代的改革意慾에 불탔음은 偶然한 일이 아니었다.

性을 認識하고 이를 支持하여 努力한 小數의 知識人이 있었다. 이들은 外國의 近代科學文明 및 技術을 輸入하고 習得하여 朝鮮內部의 資本主義發展을 促進시켜 모든 面으로 國力を 培養強化하여 外國資本主義國에 對抗할 단한 積極的인 國內外政策을 樹立推進하여야 한다는 時代的 課題를 自覺하고 提唱한 者들로서 그 勢力은 社會的으로 弱하기는 하였으나 當時 譯官, 醫官, 僧侶 및 一部青年官僚層을 中心으로 紛合되었으며 이들이야말로 過去 實學派의 뒤를 이어 擡頭한 世稱 開化派 또는 獨立黨의 一派로서 開化運動의 先驅者들인 것이다.

이들 先驅者로서는 吳慶錫, 劉大致, 李東仁 등을 들을 수 있겠다.

赤梅 吳慶錫(1831—1879)은 中人階級의 清語譯官으로 여러 차례 北京, 天津을 往來한 바 있으며 通譯이라는 職務上의 關係로 누구보다도 清國의 넓은 多方面의 層과 接觸하고 東南의 諸博雅之士와 交遊하여 見聞을 넓힐 수 있었고 北京, 天津에서 購讀한 書籍을 通하여 世界列強의 事情을 누구보다도 잘 認識할 수 있었고 또 直接的으로 清國의 學界와 政界를 視察하므로서 清의 考證學의 깊은 影響을 받았을 뿐더러 世界大勢 가운데서의 朝鮮의 鎮國政策이 얼마나 固陋한 것인가를 깨달았던 것이다<sup>(8)</sup>.

그의 長子 故 吳世昌의 다음과 같은 談話를 通하여서도 그의 思想과 그 影響을 엿볼 수 있는 바이다. 即「我父 吳慶錫은 韓國의 譯官으로서 當時 韓國으로부터 中國에 派遣하는 至使 及 其他의 使節의 通譯으로서屢次 中國을 來往하였다. 中國에 滯在中 世界各國의 角逐하는 狀況을 見聞하고 크게 느끼는 바 있었다. 後 列國의 歷史와 各國 興亡史를 研究하고 自國政治의 腐敗와 世界大勢에 失脚한 것을 깨닫고 어느 때나 將來 반드시 悲劇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크게 慨嘆하는 바 있었다. 이로서 그 歸國에 際하여 各種의 新書를 持參하였던 것이다. 父 吳慶錫은 일찌기 江華條約 때에도 申撫大臣下에 크게 일하였다. 또 中國으로 부터 名畫書幅을 많이 買入하여 歸國하였다. 父 吳慶錫이 中國으로부터 新思想을 품고 歸國하자 平素 가장 親友였던 友人中에 大致 劉鴻基라는 그의 同志가 있었다. 이 大致 는 學識 人格 아울러 高邁卓越하고 또 教養深遠한 人物이었으며 父吳慶錫은 中國으로부터 持來한 各種 新書를 同人에게 주고 研究를 勸하였다. 稱來 2人은 思想의 同志로서 結合하고 相會하면 自國의 形勢 實로 風前의 燈火와 같은 危殆에瀕한 것을 長嘆하고 어느 땐가는一大革新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相議하고 있었으며 어느 땐가 劉大致는 父 吳慶錫에게 물어 가라대 我邦의 改革을 如何히 하면 成就할 수 있는가? 吳 대답하여 가라대 먼저 同志를 北村(京城의 北部는 當時 上流階級이 所在하는 區域이었다)의 兩班子弟中에 求하여 革新의 氣運을 일으키는데 있다」고 한 談話を 한 바 있었다<sup>(9)</sup>.

(8) 朝鮮人名辭典 p. 363; 韓國書畫人名辭典 p. 441. 故 蕩滄 吳世昌은 그의 長男이며 官은 知樞에 이르렀다. 書畫와 金石文에 많은 趣味가 있어 中國에 往來하면서 古今의 것을 藏集하였고 特히 隸書에 뛰어 났고 金石考證學에 造詣가 깊었다.

(9) 林毅陸編「金玉均傳」上 pp. 48—49.

특히 吳慶錫이가 中國에 交遊했던 時期는 그의 年齡 23, 4 歲의 青年으로서 바로 1853 年으로부터 1854 年에 걸친 清國의 참으로 큰 轉換期로서 中國歷史上 舊民主主義 革命前期에 該當하며 農民의 自然 發生의蜂起와 아울러 地主層을 中心으로 資本主義思想을 가진 知識人의 改良主義運動期였던 만큼 그는 青年學徒로서 이러한 清朝의 時代思想을 吸收하여 朝鮮에 돌아왔던 것이다<sup>(10)</sup>.

앞에서 吳世昌의 談話속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吳慶錫은 急轉하는 世界와 清國 가운데서 新思想의 影響을 받고 朝鮮에 돌아와 同志 劉大致와 어느땐가 機會가 到來하면 一大革新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相議하고 또 그 方法으로서 同志를 北村의 兩班 弟子中에서 求하여 革新의 氣運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앞으로 이들이 일으키는 政治運動이 어떠한 性格을 띄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暗示하고 있는 것이다.

뒤에 江華島 條約締結當時 吳慶錫은 保守的 時原任大臣들에게 큰 影響을 미쳐 膠着狀態를 克服하고 條約을 締結하는 方向으로 進展케 하는데도 크게 寄與했던 것이다<sup>(11)</sup>.

한편 前述한 劉洪基(또는 劉大致)도 中人階級인 譯官의 집에서 태어나 醫藥을 業으로 하는 한편 朝鮮古今의 歷史와 世界各國史에 造詣가 깊었으며當時 「白衣政丞」의 別名으로 알려진 人物이었다. 이러한 別名은 그가 官職에 있지 않은宰相이라는 뜻으로 그自身 開化黨의 指導者로서 開化黨人士 背後에서 政局에 큰 作用을 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었다.

吳慶錫이 清國을 往來하면서 購入해온 「海國圖志」(魏源著), 「瀛環誌略」(徐繼畲著), 「中西見聞錄」 같은 地理, 歷史 書籍도 第一 먼저 劉大致에게 주어 研究할 것을 勸獎하였고 그는 이를 熟讀한 다음 北村의 金玉均以下 兩班層 少壯人士에게 普及勸獎하여 그들의 關心과 士氣를 새나라 政治社會改革에 置重從事하도록鼓舞하였을 뿐더러 또 後期의 甲申政變 때에는

(10) 中國研究所譯「現代中國史」榮孟源著 pp. 19—40.

(11) 江華島條約締結時(1876.丙子年 陰正月 17일부터 19일까지) 條約談判이 三次나 膠着狀態에 빠진 일이 있었다. 正月 20日(陰) 國王을 召見하여 對日方針을 上申하는 가운데 많은 時原任大臣들이 斥和論을 固執하였지만 朴珪壽만은 條約를 締結할 것을 示唆하였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金炳國의 提議에 따라 接見官의 詳報를 기달려 善處하기로 하였다. 接見官 申橒은 堂上譯官, 吳慶錫, 訓導 玄昔運 등을 시켜 日本通譯(浦瀬裕, 荒川德滋)과 接觸하여 日本國政을 探索하여 報告케 하였으며當時 吳慶錫의 報告는 接見官 申橒에게 큰 印象을 주어 많은 保守派들의 反對가운데서도 條約締結을 促進하는데 寄與한 바 있다(日省錄 高宗 丙子年 正月 20日). 그리고 前記한 朴珪壽를 開化派의 先驅者로서 들기도 한다. 그는 大院君 執政年間에 賀正使로 燕京을 往來한 일도 있고 江華條約談判時には 保守執權層의 態度와는 달리 開國論을 主張하였고 또 朴泳孝의 말에 依하면 「그 新思想(開化思想)은 내 일가 朴珪壽집 舍廊에서 나왔오. 金玉均, 洪英植, 徐光範 그리고 내 伯兄하고 齋洞 朴珪壽집 舍廊에서 모였지요」(「東光」誌 第19 李光洙「朴泳孝氏를 만난 이야기」)라 말하고도 있으나 그러나 그는 일찌기 1866年(丙寅年) 7月에 平安道觀察使로 General Sherman 號事件을 處理하여 大院君으로부터 撫夷鎖國의 第一功臣으로稱讚받고 大提學에 올랐으며 1874年(甲戌年)以後 閔妃 政權下에서 右議政까지 歷任한 事實 등을當時客觀的 社會性과 아울러 생각할 때 그의 開化思想은當時 執權保守層中에서比較的開化되었다는 것에 不過하였다. 그것은 吳慶錫, 劉大致, 李東仁 등의 開化思想이 開化革新이라는 目的 意識의 積極性을 띠우는데 대하여 朴珪壽는 이러한 面을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斷行速決을 勸獎한 바 있었음은 다음의 吳世昌의 談話를 通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劉大致는 北村方面으로 交際를 넓혀 老少를 묻지 않고 人物을 物色하여同志를 모우고 있었다. 때마침 偶然히 青年 金玉均과 相會하여 世上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青年的非凡한 것을 알고 吳(慶錫)로부터 얻은 世界各國의 書籍을 金玉均에게 읽히기 위해 提供하였다. 또 吳(慶錫)가 中國에 있어서 얻은 新思想은 이를 劉大致에게 傳하고 劉는 다시 이를 金玉均에게 傳하여 여기에 金玉均의 新思想을 낳게 하였던 것이다. 바로 吳(慶錫)는 韓改造의豫言者이고 劉는 그 指導者이며 金玉均은 그 擔當者가 되었던 것이다」

「劉大致가 金玉均과 서로 알게 된 것은 金玉均 20歳前後頃이었다. 金玉均은 劉大致로 부터 얻은 新思想을 普及하는데 있어 一面에는 世間의 交遊를 널리 구하고 또 壯年 科舉에 應하여 文科에 合格하고 官界에 進出하자 同志를 求하는 데 汲汲努力한 것이다. 後年에 金玉均의 日本遊覽을 勸한 것도 劉大致인 것이 分明하고 또 甲申政變 舉時에 際하여 金玉均에게 그 斷行速決을 勸한 것도 劉大致이었다. 金玉均은 그의 思想에 있어서도 또 그 實行에 當하여도 劉大致에 힘입은 바 커던 것을 알 수 있다」<sup>(12)</sup>

다음 奉元寺의 開化僧 李東仁(生年月日未詳이나 1881年頃)의 開化思想이 金玉均을 비롯한 其他 後期 開化派 人士들에게 미친 影響을 살펴 보고자 한다. 當時 李朝歷代 排佛政策으로 말미암아 僧侶들의 社會的 地位는 最下社會階層의 賤人과 같이 賤待를 받았고 이들에게는 서울 四大門出入 조차도 禁止되었던 터이다. 이와 같은 社會的 地位를 차지한 僧侶의 身分에 屬하면서도 李東仁은 兩班子弟들에게 啓蒙의 先驅的 役割을 한 것이었다.

李東仁은 처음 花房公使一行이 來駐할때 마다 日本 通驛僧(楓玄哲) 등과 사귀어 日本語와 日本佛教를 배우고 日本書籍도 읽고 하였다. 李東仁이 金玉均을 알고 交際하게 된 것은 亦是 劉大致의 紹介로 因한 것이었으며<sup>(13)</sup> 金玉均은 가끔 朴泳敎, 徐光範, 徐載弼 등을 李東仁이 있었던 奉元寺로 案內하여 거기서 새로운 外國書籍을 求讀하고 寫眞 또는 外國文物을 求景하는 등 啓蒙을 받았으며 李東仁이 金玉均의 부탁을 받아 여러가지 새로운 書籍(歷史, 地理, 物理, 化學 등) 其他 文物을 日本으로부터 사오자 이를 開化派 人士들은 奉元寺와 永導寺 등에 남몰래出入하면서 官憲의 눈을 避하여 그를 탐독함으로서 世界大勢를 理解하고 우리나라로 다른 나라 처럼 人民의 權利를 세워 보자는 近代的 意識의 自覺을 갖게 되는 것이다<sup>(14)</sup>.

뒤에 李東仁은 金玉均의 日本行 周旋을 目的으로 먼저 渡日하기 위해 陸路로 서울로 부터 釜山에 와 釜山 本願寺 別院(日本僧 奥村圓心이 1877年最初로 釜山에 와 建立한 日本佛教派)<sup>(15)</sup>

(12) 林毅陸編「金玉均傳」上 pp. 49—50.

(13) 前揭書 p. 132.

(14) 金道泰編「徐載弼博士自敘傳」pp. 63—65.

(15) 吉川文太郎著「朝鮮の宗教」p. 251.

에 머무르면서 日本行 便乘의 機會를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 1879年에 金玉均으로 부터 學資와 旅費의 支援을 받아 渡日하였다<sup>(16)</sup>. 李東仁은 釜山 本願寺로 부터의 紹介로 日本 京都의 本願寺에 寓居하였으며 뒤이어 福澤諭吉 등 各方面의 名士와 사귀는 동시에 日本의 形勢를 視察하고 目擊할 수 있었다. 마침 日本에서 修信使 金弘集一行을 만나 같이 歸國했으며 그의 日本報告는 金玉均을 鼓舞했고 金弘集은 李東仁을 閔泳翊에게 紹介한바 閔泳翊도 그를 面서 좋아하여 自己집 舍廊옆 蓮堂에 居處케 하고 高宗에게도 謁見시켜 日本의 國政과 世界 各國의 形勢를 上奏하여 特別한 寵愛를 받게 되었다 한다<sup>(17)</sup>.

그後 李東仁과 金玉均의 活躍으로當時의 朝廷을 움직여 日本國의 制度와 軍事施設을 視察·調查하기 위해 朝廷이 有能한 壯年紳士 10餘名을 委員으로 選拔派遣하게 되었다<sup>(18)</sup>.

한편 金玉均도 李東仁의 紹介로 日本에 가서 活躍하게 되는데 即 金玉均은 1881年 11月(陰) 日本行을 目的으로 서울을 出發하여 仁川을 거쳐 釜山에서 李東仁의 紹介로 그곳 本願寺別院 輸番 奥村圓心을 만나게 된다. 이때 奥村는 特히 金玉均을 日本京都 本山의 重役 涅美契緣에게 紹介하고 日本의 當代 巨物級 人士들과 接觸하게 하도록 韓旋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初期의 開化運動을 위하여 有利한 條件으로서 國王自身이 開化에 대하여 漸次 理解를 갖게되고 近代 意識을 覚醒하게 된 事實이었다. 即 國王은 一面 開化의 時潮에 抗拒하여 絶對中立 鎮國主義를 墨守하기 어려운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 海外의 事情을 聽取하였으므로 日本·中國 또는 歐美에 갔다 온 人士들은 많이 宮中에出入하여 隨時 國王에 拜謁 할 수 있었다. 이것을 「別入侍」라 하였는데 壬午政變 以後 別入侍의 數는 나날이 增加하였고 特히 日本에 갔다 온 者가 많아 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國王을 움직여 內外 相應하여近代化運動을 일으키려 한 것이다<sup>(19)</sup>.

以上에서 우리는 倭·胡兩亂 以後 開港前後에 있어 近代意識이 成長하는 過程을 살펴 보았다. 即 17世紀 以來로 西學이 輸入되고 天主教가 導來하고 또 英·正朝代부터 實學이 擡頭하여 近代意識의 成長에 큰 寄與를 하게 되며 다만 朝鮮王朝가 内部의 由近代資本主義 社會로의 社會經濟의 諸條件이 갖추어 지지 못하고近代化運動을 擔當할 새로운 社會勢力이 遲遲하게 成長하여 가던 中王朝 後期부터의 身分制의 漸進的 解弛와 더부려 自律性이 점차 높아가는 農民階級이 形成된 末期에 이르러서부터 近代的 農民(民衆)叛亂이 展開되어 마치 韓國의 近代化運動은 外國勢力의 直接的 影響 없이 内部의 矛盾과 變遷過程 속에서 自發的이고 自覺的인 면에서 徐徐히 成長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崩壞해 가는 封建的 官人支配體制를 再整備強化하기 위해서는 高宗初 大院

(16) 金道泰編「徐載弼博士自敘傳」pp. 65—66.

(17) 林毅陸編「金玉均傳」上 p. 134; 金道泰編 前揭書 p. 66.

(18) 所謂「紳士遊覽團」이 이것이며 當時 清國에 留學生을 派遣하자는 計劃이 이 보다 먼저 發議되었는데도 不拘하고 實現을 보지 못하고 있던 次에 日本 視察團이 이같이 順調로이 推進된 것은 李東仁, 金玉均 등의 活躍과 日本公使 竹添의 힘이 커던 것이다.

(19) 李圭完翁逸話集 pp. 18—19.

君은 極端의in 對內政策과 아울러 對外的으로는 鎖國政策을 쓰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렇듯近代化로의 움직임이 위로도 막혀 있고 아래로도 막혀 있을 때 外部世界의 空氣를 吸收할 수 있는 換氣口의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兩班支配層의 壓迫을 받아오던 中人譯官, 醫官 및 僧侶들로부터 위로부터의 새로운 情勢反映과 改革의 可能性이 트인 것이었다<sup>(20)</sup>.

이와 같은 一連의 近代意識自覺의 歷史的 過程에서 共通된 特徵으로는 内在的 要求와 더불어 外在的인 壓力에 의하여 近代意識의 自覺이 促求되고近代化가 進行된 點이며 또한 이들 先驅的 人士들은 大體로 社會的으로 不遇한 階層의 人士들이었다는 事實이다. 即 新知識과 새로운 宗教를 提唱하고 民衆運動을 展開한 舉皆의 人士들의 成分을 보면 政爭에 不遇한 在野士林이나 階級의으로 不遇하던 庶孽에 屬하는 人士이거나 또는 兩班支配層의 壓迫을 받아 오던 中人(譯官·醫官) 및 賤人과 다름 없는 僧侶階級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不遇한 階層의 人士들이었기에 그들의 政治的 影響力에 限界가 있었던 것이며 또 頑固한 官人支配層의 保守的 儒生들의 追害를 받았던 것이다.

특히 開港을 前後하여 開化運動이란 標榜에서 위로부터의近代化運動이 檢頭된 것이나 이러한 運動도 保守強硬派들의 反對로 말미암아 더욱 더욱 依他性을 띠게 되고 外國資本主義國家와 結託하여 그 財力의 支援下에서 強制되고 教唆되기도 한 것이며 그 結果는 必然적으로 그들의 政策의 利用物이 되고 自主性을 缺如하여 自己矛盾을 犯하고 만 것이니 여기에 우리는 朝鮮王朝 末期에 있어서의 開化派 運動의 進歩性과 아울러 그 限界性도 엿볼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開港을 契機로 하여 外國勢力의 直接的인 刺戟과 그 背景아래近代化가 進行되는 가운데서 惹起된 當時의 葛藤에 영친 政治狀況과 儒林의 反撥에 關하여 論하고자 한다.

## 第二章 朝鮮의 開國

### 第一節 日帝의 對韓侵略政策과 江華島事件

近代極東史에 있어서 開港은 바로 開國과 同意語로 쓰여지고 있다. 清國이 開國한 것은 1842年(朝鮮憲宗 8年, 清의 道光 22年) 7月 22日 南京條約이 規定한 五國開港<sup>(21)</sup>에 의하여 實行되고 뒤이어 隣國인 日本이 開國한 것은 美國의 彈壓에 屈服한 1854年(朝鮮哲宗 5年, 日本 安政元年) 3月 3日 美日和親條約에서 定해진 下田, 蝦夷, 箱根의 開港에 의하여 具體化되었다<sup>(22)</sup>. 그러나 當時 朝鮮은 아직 鎖國을 固守하였다. 外國의 開港要求를 拒絕하는데

(20) 王朝末期의 이 같은 開化思想의 社會基盤은 一部의 中小官僚, 中小地主, 下級官吏, 新式軍隊, 中人出身의 都市商人層, 其他 小市民層, 여기에 開化한 一部小數의 地方儒生들이었으며 이들의 現實的 經濟的 土臺는 守舊派에 比하여 대단히 弱하였다.

(21) 阿片戰爭의 結果로 맺어진 南京條約은 英國을 위하여 福州等 5港을 開放하고 香港을 割讓했다.

(22) 田保橋 漸, 近代朝鮮に於ける開港の研究, 小田先生 頌壽記念 朝鮮論集 p. 600. 韓國史年表 震檀學會 p. 290.

놓이지 않고 佛蘭西艦隊가 서울에 近接한 江華島에 來襲했을 때에는 激戰 끝에 이를 擊退했으며(1866年丙寅洋擾) 또 美合衆國 艦隊의 江華島襲擊도 數 10日에 걸친 激戰 끝에 이를 擊退한 것이다(1871年辛未洋擾)當時 朝鮮의 政權을 掌握한 者는 國王(李太王)의 生父 大院君이었으나 그는 이 成功을 契機로 撫夷의 斷行을 中外에 聲明하여 「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이라는 文字를 새긴 碑를 八道의 要衝에 세웠다<sup>(23)</sup>.

이와 같이 하여 開國한 清國 및 日本國과 鎮國攘夷를 固執하는 朝鮮과의 사이에는 外交政策에 있어 큰 差異가 있었다. 朝鮮側에서 볼 때 清國이나 日本의 開國은 期待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며 宗屬關係에 있던 清國은 姑捨하고라도 特히 서역서역한 隣接國인 日本이 外國과 交渉하는 것을 警戒하였던 것이다.

日本은 警戒할 相對國이였을 뿐더러 帝國主義의 侵略의 意圖를 가지고 計劃的으로 朝鮮에 接近하여 江華島에서 雲揚號事件을 挑發하고 급기야 1876年(丙子年 高宗 13年) 2月 26日 江華修好條約에 依據하여 釜山外 二港의 開港으로써 朝鮮의 開國을 強壓的으로 實行케 한 것이다. 여기서 當時의 日本의 對朝鮮政策과 日本과의 開國修好의 經緯를 들추어 보기로 하겠다.

明治維新을 前後하여 日本은 西歐의 近代文明을 재빨리 輸入하여 國政全般에 걸친 一大革新을 斷行하고 天皇을 頂點으로 하는 強力한 中央集權體制를 整備하여 各分野의近代化를 促進하고 있었다. 이 때문인지 明治以後부터는 朝鮮에 대하여 優越感을 가지고 언제나 高壓的態度로 臨하였다. 事實은 明治以前(특히 江戸時代)만 하더라도 日本은 文化的으로 앞선 朝鮮에 대하여 敬意를 表하고 外交上으로도 鄭重히 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19世紀에 이르러 歐美列強의 艦船이 出沒하게 이르자 이들의 侵攻에 關하여 共通의 危險을 느끼고 相互의 情報를 交換할 것을 約束하였고 우리側은 1845年 英船이 朝鮮 南海峽에 寄港하여 測量을 實施한 때나 丙寅洋擾 등에 그 事情을 日本에 알리고 外船을 警戒할 것을 傳하기도 하였다<sup>(24)</sup>. 그러나 日本이 곧 美國에게 屈하여 開國하였고(1854年) 거기다 八戶順叔의 事件이 勃發하였는데 그는 香港에 滞在中 新聞에 寄稿하여 日本은 軍艦 80餘隻을 購入하여 朝鮮을 侵攻할 計劃이라고 하였다(1867年)<sup>(25)</sup> 이 征韓說 新聞記事는 中國政府를 通하여 朝鮮에 傳達되었다. 朝鮮은 對馬島의 宋氏를 通하여 日本幕府를 詰問하자 日本은 辯明을 하였지만 朝鮮의 疑惑이 풀릴 理가 없었고 日本을 危險視하여 日本과의 接觸을 避하는 方針을 取

(23) 政治日記 辛未年 5月 15日 龍湖間錄 卷 21.

(24) 그리고 庚申年(1860)에는 日本으로부터 五個國斗 條約를 締結하고 邪教防止와 邊防嚴戒를 알려온 일도 있었다. 日省錄 李太王 内寅年 十月 十五日條, 日省錄 哲宗 庚申年 八月 八日條, 奧平武彥著 朝鮮開國交涉始末昭和 10年 刀江書院 p. 32. 등 參照.

(25) 朝鮮史 第六編 第四卷 朝鮮總督府 昭和13年 p. 142. 田保橋潔著 近代日鮮關係의 研究 上卷, 朝鮮總督府中樞院 昭和15年 pp. 103ff, 第六.

한 것이다.

마침 日本에서는 幕府가 廢止되고 王政이 復古하여 明治維新政府가 樹立되었다(1868年) 일본은 宋氏를 媒介로 하여 朝鮮에 이 事實을 傳하고 修交를 請해 왔다. 그러나 朝鮮은 그 書式이 舊例에 어긋나고 있다는 理由로 日本의 書翰接受를 拒否했다(1869).<sup>(26)</sup> 그後로도 朝鮮과 宋氏를 通한 對日交涉이 여러차례 있었으나 問題는 解決되지 않았다. 當時 우리는 佛·美兩國의 艦隊를 擊退하고 攘夷의 氣勢가 높았던 때인 만큼 對日鎖國政策은 確固한 바가 있었다. 마침 日政府는 1869年 9月 宋氏一家의 使者를 朝鮮에 派遣하는 慣例를 바꾸어 外務省官吏로 하여금 交涉을 擔當케 하고 1870年 9月에는 外務省使節(吉岡)을 釜山에 보내여 日本政府로서는 最初로 直接 文書形式으로 外務卿의 書翰을 傳해 온 일이 있었지만 訓導 安東駿은 舊例에 따라 交涉一切을 宗氏를 媒介로 할 것을 要求하여 그 使節은 1年半동안 釜山에 滞留한 채 受理되지 않았다.

한편 韓日交涉도 進捲되지 않고 釜山의 草梁倭館(日本의 公館)에 對한 朝鮮의 態度가 冷淡해지고 薪炭食料의 供給이 끊어지자 日本政府는 1872年에 倭館을 撤收하였다<sup>(27)</sup>.

이러한 가운데 日本에서는 征韓論이 擡頭하였다.勿論 征韓論의 源流는 明治以前의 幕府末期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明治維新 以後에는 기기에 새로운 要素가 加味된 것이다<sup>(28)</sup>.

(26) 日本에 維新新政府가 樹立된 以後 8年間(1868—1875)은 韓日交涉이 困難한 時期이었다. 처음에는 慣例에 따라 對馬守 宗義達氏가 外務官吏로서 交涉을 擔當해 오다가 뒤에 外務省이 直接 交涉을 管掌하였다. 當時 日本新政府는 王政復古로 萬機를 親裁함에 따라 外交를 刷新하자 宗氏를 外國事務補에 準하여 朝鮮通交의 事務를 管掌케 하였다(田保橋潔著 近代日關係の研究 上卷 昭和15年 朝鮮總督府中樞院 pp. 136—137). 마치 日政府는 明治元年 11月에 宗氏로 하여금 王政復古의 事實을 朝鮮에 報告케 하여 또 勘合圖書印을 還納시켜 新製의 것을 宗氏에게 交付하였다. 그러나 舊規를 拘守하는 朝鮮의 接待官 訓導(安東駿) 등의 交涉員은 그 書翰이 前例와 다르기 때문에 接受를 拒絕하였을 뿐더러 翌年(1869)에 우리 接待官은 이를 論難하는 口陳書를 내고 다시 11月에는 宗氏의 書翰속의 「左近衛少將」「平朝臣」「書契押新印」「禮曹參判公」「皇」「奉勅」 등의 새 文字使用이 舊規格式에 어긋났고 또 中國以外의 國家에는 「皇」이란 文字를 使用할 수 없다고 하여 頑固히 밀어 들이지 않았다. 日省錄 李太王 己巳年 12月 13日條 議政府啓言 奧平武彥著 朝鮮開國交涉始末 京城大, 法學會叢刊 I. 昭和10年 刀江書院 pp. 32—33. 田保橋潔著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卷 前掲書 pp. 133—182, 174, 175. 明治元年에서 同4年(1868—1871)까지의 期間의 韓日交涉에 關한 朝鮮國記錄은 거의 闕如하고 있기 때문에 日本國의 資料에 많이 依存할 수 밖에 없다.

(27) 元來 釜山草梁所在倭館은壬辰亂前 三浦倭館에서 起源하여 朝鮮國이 遠人을 懷柔하기 위하여 設置한 客館이며 館守以下 員役에는 政府에서 日供酒米, 柴炭支給의 名義로 滯在費가 支給되었다. 卽 朝鮮國費에 의하여 維持되고 慣例上 對州藩에게는 其使用權이 認定되어 그 釜山出張所 같이 取扱이 되어 왔다. 1868年(明治元年)以來 韓日間 公의 交涉이 斷續되는 동안 歲遣船의 形式으로 留易交流도 若干 있었으나(年 12萬圓程度) 1872年에는 孤立無援狀態에 빠지자 接收한 것이며 이를 契機로 所謂 征韓論이 擡頭한 것이다. 그리고 其後 倭館은 外務省에 移管되었지만 外務少錄 奧義制를 公館長 代理로 駐在시켜 간신히 維持하여 왔다.

(28) 初期의 征韓論은 單純한 朝鮮侵略論에 그치지 않고 外壓에 對한 韓日連合防禦論 또는 朝鮮의 滅亡은 日本의 大患임으로 日本의 힘으로 朝鮮을 防禦하자는 議論 등이었다. 그러나 明治維新 以後에는 不平士族의 救濟事業으로서의 征韓, 日本의 實力を 強調하여 不平等條約의 改正의 手段으로 삼고자 하는 論, 對外紛爭에 의하여 國內改革을 阻止하려는 論, 列強의 手法대로 艦艦을 끌고 外交使節을 派遣하여 武力を 背後로 修好關係를 強要하자는 論 또는 武力侵略論 등

특히 朝鮮과의 交涉이 困難해지고 또한 日本政府가 釜山倭館을 接受하기에 이르자 征韓論을 刺戟한 것이다. 日本政府는 西郷隆盛의 意見에 따라 우선 西郷를 特派大使로서 朝鮮에 派遣하여 說得에 努力하고 萬一 朝鮮이 이를 拒否하고 大使를 殺害한다면 그것을 口實로 出兵한다는 方針을 定하였다. 이와 같은 西郷의 意圖는 內亂을 惹起할 危險이 있는 不平武士의 關心을 外部로 쏠리게 하고 또 歐美列強이 나타나기 以前에 朝鮮을 略取하려는 野心이었다. 그러나 西郷, 江藤新平, 板垣退助 등의 武斷征韓論은 곧 歐美視察로부터 歸國한 岩倉, 大久保, 木戸 등 一行의 反對로 奉制되어 日本政府는 이를 否決하였다(1873年). 이로써 一旦保留되고 韓日間의 武力衝突은 우선 回避할 수 있었다. 그러나 日本政府는 이들 好戰의 武士階級의 銳鋒을 海外侵略에 轉向시키기 위하여 앞서 1874年(明治 7年) 4月에 琉球人이 臺灣에 漂着하였다가 生藩族에게 殺害당한 事件을 口實로 삼아 臺灣征伐을 斷行하였으며(1874年 5月) 그 餘勢를 利用하여 다시금 對韓侵略으로 轉向될 危險性도 多分하다는 情報를 朝鮮政府는 6月 24日에 가서 清國禮部의 啓文으로 비로소 確認하고 唐慌한 것이다<sup>(29)</sup>.

한편 當時의 우리 國內政情을 보면 1873年 癸酉 12月 政變으로 國王·戚族이 大院君政權을 打倒한 後 從來의 內外政策을 再檢討하기에 이르렀으며 大院君을 비롯하여 韓日國交阻隔의 責任者를 政府外로 放逐 또는 懲戒하였다. 即 1874年 1月 3일에는 東萊府使로 鄭顯德을 免職시켜 새로 朴齊寬을 登用하고<sup>(30)</sup> 이어 같은 大院君의 腹心으로서 10年間 排日政策을 폐해온 監督官으로서 廣尚道 觀察使 金世鎬와 訓導 安東駿 以下 關係吏員을 查問하고 責任을 물어 懲戒하였던 것이다<sup>(31)</sup>. 이와 같은 朝鮮國內政情에 關한 情報가 日本政府에 報告된 것은 1874年 4月에 釜山倭館駐在官인 奧義制가 政界를 内探하여 大院君의 隱退 및 同系列의 大部分의 政界失脚의 消息을 報告한 것을 비롯하여 이에 따라 日本政府는 좀더 情勢를 把

各種의 要素가 加味되었다. 이러한 要素들이 混合되어 征韓論이 主張된 것이었다(田保橋潔著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卷 前掲書 pp. 298ff).

(29) 高宗 甲戌年(1874年 明治7年) 6月 24日 北京으로부터 清禮部의 急遞가 到着하여 清國 總理衙門의 密咨를 傳達하다. 이 密咨는 洋將「日意格」(佛人 Prosper Ciquel)의 意見을 根據삼아 作成된 것으로 그 要旨 내용은 「日本이 臺灣出征部隊의 一部 約5,000의 兵力を 長崎에 駐屯시켜 臺灣事件이 解決되면 朝鮮에 進發한다는 것이며 萬一 朝鮮에 出兵하면 佛·美兩國도 朝鮮과 前怨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兵船을 가지고 또한 出兵援助하기에 이를 것이다 이 경우에 朝鮮은 三國을 對敵할 수 없을 것이다. 萬一 中國이 朝鮮으로 하여금 佛·美와 通商을 約束하게 한다면 日本도 勢孤立하여 敢히 出兵하지 못할 것이니 朝鮮은 保全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모로나 善意의 重要 情報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내용을 좀더 慎重히 檢討하여 佛·美 등과의 自主의 修好通商을 講究하여 日本에 對處할 時期였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政府態度는 確實히 唐慌하면서도 日本의 称兵說을 不信하였던 것이다(高宗實錄卷之十一, 「朝鮮史」第六編 第四卷 p. 333).

(30) 日省錄 高宗 甲戌年 正月 3, 10日 甲戌乙亥史.

(31) 日省錄 高宗 甲戌年 6月 29日, 7月 3日, 4日. 「高宗實錄」卷之十一, 「朝鮮史」第六編 第四卷 p. 336 340. 懲戒結果는 金世鎬는 謹寵, 鄭顯德은 咸鏡道 文川郡에 罷配, 安東駿은 京城에 押送하여 義禁府에 拿來(9月 18日) 등 그리고 새로 東萊府使에 朴齊寬, 釜山 訓導에 玄昔運·別差에 玄濟舜 등을 配置했다.

握하고 臨機應變의 措處를 取하고자 우선 1874年 5月 15日 外務省 七等出仕 森山茂를 渡韓케 하여 最近의 朝鮮政情을 視察케 한 것이다. 그 結果 森山茂가 달려와서 모든 情報를 蒐集한 다음 6月 21日 그 本國政府에 報告하였다<sup>(32)</sup>. 이 森山茂의 報告에는 첫째 現地 外交官인 東萊府使 鄭顯德과 釜山訓導 安東駿 等이 失脚當하고 暗行御史의 出動으로 그 罪狀까지 繼續 追窮中인 만큼 모든 事態가 日本側에 有利하게 展開된다는 것과 또한 宮闈에 變火가 發生하여 數日間 延燒된 事實도 있으니 內紛의 徵兆임을 想像할 수 있다는 것이고 끝으로 清國政府가 朝鮮側에 通報하되 日本과 더불어 失和하지 말라 하는 注意까지 있었다고 하였다. 이로써 보더라도 當時 日本政府의 朝鮮國內事情에 關한 外交情報가 얼마나 機敏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으며 우리가 겨우 清國禮部의 啓文으로 비로소 前記한 日本政府의 臺灣征伐 등에 關한 重大情報를 뒤늦게 確認할 수 있었던 事實과 對照가 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大院君이 没落하고 戚族世道가 다시 擡頭한 以後로는 內政의 腐敗·紛糾를 助長하였을 뿐더러 對日外交의 一線責任者를 모조리 龍兎·處刑하고 이 事實을 日本에 通告하여 自進해서 韓日關係의 緩和와 讓步의 氣色을 表示하는 등<sup>(33)</sup> 그 自主性과 主見없는 卑屈하고拙劣한 外交施策을 露呈하였다. 이로서 韓日交涉에 日本側은 언제나 모든 機微를 앞질러 눈치채고 機先을 制하였고 漸漸 意氣揚揚해 져서 우리를 만만히 생각하고 威脅侮蔑도 서슴치 않는 態度로 나온 것이다.

本來 森山茂의 來韓 任務는 朝鮮의 政情視察에 있었으며 곧 交涉再開는 아니었다. 森山의 報告에 따라 宗外務大丞(對馬島守)이 渡韓하여 東萊府使와 交涉하게 編密히 計劃된 것이었다. 그러나 形勢의 進展은豫想外로 迅速하여 到底히 宗重正의 來着을 기다릴 餘裕가 없었으며 自進하여 東萊府使 및 倭界訓導와 連絡을 取하여 交涉再開의 機運을 促進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1874年 7月에 森山는 幹傳官 浦瀬裕로 하여금 通事 林三伊을 招致케 하여 韓日國交阻梗의 理由를 直接 說明하고 按覈使 朴定陽에게 傳達할 것을 依賴하며 同年 8月에는 通事 金福珠

(32) 當時 奧義制가 草梁倭館의 公館長代理로서 駐在하였지만 東萊府使 및 訓導등과의 交涉이 中斷되었기 때문에 1973년의 癸酉政變에 關한 情報도 遲滯하고 不正確하였으며 1874年 1月 公館에出入하는 朝鮮人の 風説로 비로소 政界消息을 傳해 들었다한다. 그리고 奧義制는 이 情報를 日本政府에 報告한 것이며 뒤 이여 森山茂가 달려 와서 情報를 報告하였다. 田保橋潔 前揭書 pp. 336—342. 韓國史最近世震擅學會 p. 369, 368, 370. 日本外交文書 第七卷 pp. 349—351. 文書番號 206 pp. 362—365 文書番號 210 附屬書 1.2.

(33) 當時 韓日政府間의 直接 往復은 없었기 때문에 戚族은 非公式且 直接的手段을 取했다. 卽 禁衛大將이며 武衛都統使를 兼하고 兵權을 掌握한 政界巨物 趙寧夏는 內命을 받아 秘密書翰으로 森山茂에게 從來의 國交저해를 遺憾으로 생각하며 政府가 日本官憲을 許接할意思가 있음을 通報해 주기까지 했다(朝鮮史 第六編 第四卷 高宗 11年 甲戌 八月, 日省錄 高宗 成年 8月 9日). 그러나 朝鮮의 政情을 채 把握 못했고 趙寧夏가 戚臣임을 알지 못했던 森山은 此機會를 利用하여 廟堂과 直接 往復하기에 이르지 못했다(田保橋潔著 近代日鮮關係の研究 上卷 前揭書 pp. 335, 346—348).

를 通하여 詳細한 文書와 아울러 日本이妥協할 수 있는 條件을 說明하여 按覈使와 東萊府使에게 傳하도록 依賴한다. 뒤이어 8月 16日에는 東萊府裨將 南孝源이 府使 朴齊寬의 密命으로 森山을 訪問 國交打開의 方法에 關하여 意見을 交換한다. 이러한 交涉 가운데 森山은 온갖 方法을 다하여 우리의 内幕 情報를 密探看破하고 強硬한 態度로 急變한 것이다.

마침 1874年 9月 3日 新任訓導 玄昔運과 別差 玄濟舜은 草梁公館에 찾아가서 公式으로 日本國官吏와 接見하게 이르니 이는 明治維新 以來로 朝鮮에서 日本外務省 官吏를 公認하고接待한 最初의 일이 있다.

이들의 折衝에서 朝鮮側의 主張은 日本側이 皇帝云云의 尊稱을 使用해도 無關하나 朝鮮도 對等하게 皇帝云云의 書式을 쓰라면 困難하며 또 日本使臣이 往來할 때 軍艦使用이나 洋服着用은 困難하다는 程度이었기에 森山은 더욱 自信滿滿하게 그들이 主張해온 交涉再開의妥協條件을 貫徹하고자 強硬한 態度로 나왔음을勿論하고 그 本國政府에 대하여 宗外務大丞까지 派遣할 必要가 없다고 建議하기에 이른다<sup>(34)</sup>.

먼저 森山이 朝鮮에 派遣된 任務는 朝鮮國 政情視察에 있었지 朝鮮國 官憲과 交涉하는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朝鮮國 政情이 急激히 進展되고 朝鮮의 對日外交 一線責任者들의 主見없고 卑屈한 態度를 만만하게 여겨 森山은 委任權限을 넘어서 東萊府使와 交涉하고 韓日國交再開의 條件을 協定하는데 成功한 것이다. 이제 森山은 本國政府의 請訓을 위하여 1874年 10月에 歸國報告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日本政府는 翌年 1875月 2月에 森山을 理事官에 任命하고 廣津弘信을 外務省 出仕로 副官에 任命한 다음 이들에게 日本外務卿과 外務大丞(宗重正)의 朝鮮禮曹判書와 參判에 對한 書翰을 持參케 하되 威勢를 펼쳐 1875年 2月 24日(陰正月)에 軍艦으로 釜山港에 到着케 했다.

森山理事官, 廣津副官一行은 東萊府에 들여 府使에게 持參한 書翰을 直接呈納하겠다고 要求하니 訓導 玄昔運은 이를 挽留하고 東萊府使 黃正淵은 그의 善後策을 中央에 請訓하는 등 이들과의 接見 및 接待節次에 關하여 慎重을 期한다. 이러한 朝鮮側의 態度의 急變은 때마침 大院君이 歸還하여 從來의 政策에 復歸하게끔 廟議를 움지기게 이르렀고 事態가 逆轉하였기 때문이었다. 東萊府使 黃世淵, 訓導 玄昔運은 日本政府의 書翰謄本을 보고 其原文이 日本文이고 外務省印을 찍혀 있고 또 書中에 「大日本」「皇上」의 字句가 亦是 使用되고 있는 事實 등을 重大視하여 이를 政府에 報告하여 그 指示를 기다렸다<sup>(35)</sup>. 中央의 政府要路 및 時原任大臣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監視를 받는 터이라 이를 日本外交官의 應對를 거듭 蹤躇하고 5月 9日에는 東萊府使의 命으로 森山理事官의 大禮服着用, 宴饗大廳正門出入 등을 前

(34) 韓國史最近世 李擅根著 前揭書 p. 372. 田保橋潔著 前揭書 pp. 344—346. 이때 森山은 日本國旗, 軍艦旗, 商船旗의 模本을 訓導에 手交하고 日本國 所屬船舶은 모두 此種旗章을 揭揚함으로 이를 沿海各地方에 分布하여 特히 鄭重하게 保護해 줄 것을 要請해 왔다.

(35) 田保橋潔著 前揭書 pp. 363—367. 龍湖間錄卷二一 乙亥 日本書契.

例가 없기 때문에 認定할 수 없고 오로지 舊例에 따라서만 設宴할 것을通告하자 森山, 廣津 등은 매우 憤慨하여 書翰捧納도 할 수 없다고 拒絕하면서 5月 下旬에 撤歸하고 말았다<sup>(36)</sup>. 이때 森山理事官 등은 조금도妥協氣色이 없이 도리히 訓導 玄旨運에게 朝鮮政府가 外國의 純然한 內政問題에 屬하는 事項에 이르기까지 干與하여 論議한다고 激烈히 痛擊한 바 있으며<sup>(37)</sup> 이보다 앞서 이미 4月 15日에는 저의 本國政府에 朝鮮內의 政情不安을 틈타 軍艦若干隻을 測量을 口實로 朝鮮近海에 派遣해서 武力威脅하는 것이 가장 有効한 手段이라는 趣旨의 建議書를 보낸 일조차 있었던 것이다<sup>(38)</sup>.

1875年 6月 9日(乙亥年 5月 10日) 國王은 森山理事官의 非妥協的인 強硬態度를 重大視하고 그 對策을 얻기 위하여 時原任大臣 政府六曹二品 以上의 參集을 命하여 懸案의 日本國外務卿의 書翰과 理事官 宴饗設行時의 儀節에 關하여 話問을 要求한 바 있었다. 當日 參席한 34名의 大臣卿宰中 右議政 金炳國을 위시한 少數의 強硬論者의 主張은 元來 交隣의 書翰은 300年來의 舊格이 있고 그 字樣은 一點一畫도 隨意變改를 不許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日本外務省 書翰은 舊格이 어긋날 뿐더러 衣服改色과 正門出入 등 儀節도 舊例에 反하는 條件을 強要하여 決코 容納할 수 없다는 것이며 또 領中樞府事 李裕元, 特司 判中樞府事 朴珪壽를 비롯한 大多數의妥協論者の 主張은 300年間이나 交隣이 없는데 다시 持續하는 것은 誠信한 길이 아니며 舊格을 變更하는 것은 不可하지만 此際에 萬一 저들의 書翰을 斥退한다면 邊境에 紛亂를 挑發할 것은 必然의이고 이때문에 日本과 正面衝突을 招來하는 것은 絶對로 避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다고 그 具體的 方法에 關하여 提案된 것은 없었다. 이 밖에 左議政 李最應(大院君의 實兄)을 위시한 極少數者は 日本國制 改革의 結果로서 그의 書式이나 尊號 등이 改正된 것은當然하며 그 變改를 強要할 根據가 없다하여 當時로서는 가장 進步的 意見을 主張한 者도 있었으며 國王도 이에 賛成하여 書翰을 取見한 後에 그 内容을 따져 拒斥할 것을 明正히 가려서 處理하는 것이 옳다고 下敎한 바 있었다. 그리고 當時 事實上 政權을 掌握한 咸臣 閔奎鎬(知三軍府), 趙寧夏(知三軍府)를 위시하여 4名

(36) 高宗實錄卷之十二 朝鮮史 第六編 第四卷 高宗 12年 乙亥 正月 19日, 7月 9日 pp. 356ff. 371ff.

(37) 實事上 當時 東萊府使 訓導의 態度가妥協의이었던 만큼 森山理事官 廣津副官도 이에 順應하여 어느程度 讓步하여(最少限 衣服改色 正門出入을 舊例에 따르는 程度) 迅速히 宴饗을 設行시키고 東萊府와 會見하여 書翰의 授受를 實現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이것이 日本外務卿 追加訓令(4月 29日)의 精神(強壓手段 아닌 平和的 解決을 命令)에도 符合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森山理事官 등에게는 이 程度의妥協氣分도 없이 오히려 一國의 榮辱에 關한 件이라 하여 激語를 弄하였다. 이러한 公文은 實事上 最後 通牒의 決意를 表示한 것이라 하겠다(朝鮮交際始末 卷三 日省錄 高宗 乙亥年 3月 4日條).

(38) 이 建議書는 森山理事官이 1875年 4月 15日 副官 廣津六 等 出仕를 上京시켜 外務卿에 上申한 것으로 그 内容은 變形의 征韓論이라 하겠으며 4個月後 江華島事件의 發生을 示唆하는 것으로 注目된다. 日本政府도 그 必要性은 認定했지만 于先은 4月 29日 森山理事官에게 追加訓令을 보내어 外交手段에 의한 嘗初의 目的達成을 指示한 것이다.

의 高官이 沈默을 지키고 所見을 上陣하지 않은 것은 注目할 만한 事實이라 하겠다<sup>(39)</sup>. 이로서 보건데 國王 및 臣은 우선 日本과의 正面衝突을 回避하려고 協調的 態度로 나온 것이며 李最應의 主張을 그들의 意見를 代辯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當時 政府는 依然 排外思想이 充滿하여 李裕元, 朴珪壽 같은 對日斷交를 批判하는 者까지도 強硬論에 壓迫된 것이었다. 거기다 日本政府의 一線責任者 森山理事官, 廣津副官 등은 朝鮮國政府의 不誠實을 詰責하고 外務省 書翰呈納을 犠牲하는 限이 있더라도 舊格에 따를 것을 絶對拒否하고 禮服着用 및 正門出入을 끝내 固執하고 一步도妥協의 氣色이 없었을 뿐더러 거듭 武力侵攻을 恣行하여 掠奪行悖를 서슴치 않았기 때문에 交涉은 停頓되고 만 것이었다.

앞서 우리는 1873年 10月에 日本政府에서 西郷 等의 征韓論이 歐美視察로부터 歸國한 岩倉・大久保 等의 反對로 否決되었음을 論及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이 征韓論에 反對한 것은 征韓 그 自體에 反對한 것은 아니었고 無期延期를 決定한데 不過한 것으로 西郷 等을 下野시켜 指導權을 掌握한 岩倉 等은 自進하여 征韓을 實行하였다. 即 우선 修交交涉을 하여 그 効果가 없음이 밝혀지자 武力的 示威를 決意한 것이었다. 마치 前記 1875年 4月 15일의 森山理事官의 武力威脅의 建議書는 日本外務省과 海軍者の 몇몇 征韓論者の 協議下에 採擇되어 軍艦 春日, 雲揚, 第二丁卯의 三隻을 極秘裡에 朝鮮沿海에 派遣하게 되었다.

이로서 日本은 用意周到한 計劃下에 公公然한 威脅的手段을 敢行한 것이다. 軍艦 雲揚號가 1875年 5月 25日(陰 4月 21日) 釜山에 入港하자翌日 26日 우리의 訓導玄昔運은 그 突然한 來意를 倭館에게 質問하니 森山理事官은 그의 交涉使命 遲延의 責任을 물고 督促의 事味로 來航했다고 서슴치 않고 對答하여 威壓의 態度를 誇示하는가 하면 뒤이어 6月 12日(陰 5月 9日) 釜山에 入港한 第二丁卯艦은 마침 觀覽을 希望한 我方의 訓導 玄昔運以下 18名의 現地官憲을 塔乘시켜 놓고 不時에 演習이라고 일컬어 兩艦이 示威砲擊도敢行하는 바람에 釜山, 東萊의 官民들을 戰慄케 하였다<sup>(40)</sup>.

雲揚艦은 朝鮮東海岸을 北上하여 咸鏡道 永興灣까지 進入하여 示威하였으며 迎日灣을 거쳐 일단 저의 長崎로 歸航했다가 9月(陰 8月)에 再出發하여 西海岸을 測量하는 채 一路 江華島의 水域으로 接近했다. 이 水域은 앞서 佛・美兩國의 艦隊가 來襲한 곳으로 首都 서울의 입구를 이루는 重要한 要塞地帶이었다. 그런데 同艦은 9月 20日(陰 8月 21日)에 江華島 東南方 蘭芝島附近에 投錨한 후 短艇을 내려 井上艦長以下 數 10名이 塔乘한 다음 마음대로 沿岸을 探索하면서 草芝鎮砲臺까지 接近하게 되니 그들의 行動을 注視하고 있던 우리 砲臺의 守兵은 참다 못해 當然한 責務에서 그들의豫告없이 侵入해온 異樣船에 대하여 銃砲擊을

(39) 日省錄 高宗 乙亥年 5月 10日, 11月 15日. 議政府臘錄 高宗 乙亥年 11月 15日. 「朝鮮史」第六編 第四卷 高宗 12年 乙亥 11月 15日字 參照。

(40) 田保橋潔著「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 前掲書 pp. 395—397.

加하였다고 한다<sup>(41)</sup>. 그런데도 不拘하고 豫定된 計劃에 따라 雲揚號는 무서운 艦載砲로 우리 草芝鎮에 對하여 報復의인 猛射擊을 加하여 破壞한 다음 歸路에도 永宗鎮沿岸에 砲擊을 加하고 陸戰隊까지 上陸시켜 殺戮·掠奪 등 가진 만행을 態行하였으니 이는 日帝의 用意周到하게 計劃된 武力侵掠의 始作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當時 不意의 侵攻을 받은 我方側은 沿岸砲臺의 裝備나 戰術이 낡고 不充實했음은 無論하고 中央政府의 文武當路者들은 政爭을 일삼고 守舊背馳를 固執하는 한편 一線에서 國防責任을 擔當하고 있는 文武上下의 官員들도 戰鬪士氣을 잃고 戰慄, 唐慌하여 敗走·分散해버린 것이며 歐美式近代武器를 裝備하고 侵略的 意慾에 넘친 雲揚艦側의 威脅과 侵略앞에 政府는 無爲無策斗不能 醜態만을 露呈했던 것이다. 우리側에 많은 戰死者와 俘虜를 내고 無數한 軍器·銃彈을 掠奪당한 不法侵攻을 當하고 도<sup>(42)</sup> 우리 政府는 無爲無策했음은 姑捨하고 意識의으로 事件을 흐지부지 일버무려 陰蔽하고자 한 것이며 一線責任者는 事件真相을 中央의 當路者에게 正確하고 迅速하게 報告하여 그 指示를 받으려 하지 않았고 뒤늦게 報告를 接受한 中央의 當路者들도 새삼 이를 問題 삼으려 들지 않고 中國에 대해서도 卑屈하고도 虛偽欺瞞의 繢縫策만 되풀이하였다. 當時 우리 政府의 下意上達의 通信이 얼마나 遲滯되고 不正確했으며 또 그 内容이 故意의으로 歪曲되었던가 하는 것은 다음의 報告를 通해서도 어느程度 짐작이 간다. 即 事件이 서울의 關門인 近接한 江華島에서 發生한지 4日째(8月 24日)에 뒤늦게 永宗僉使 李敏德의 公式 謄報가 政府에 到着했으며 3日째(8月 23日)에 誤樣船 來侵의 情報에 따라 政府는 問情 譯官을 火急히 江華府에 下送하고 議政府가 國王에게 啓言하였는데 그 内容은 正體不明의 異樣船이 內洋에 潛入하여 衝火·放砲했건만 何國이 무슨 緣由로 이러한 犯行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며 또 三軍府의 啓言에도 年前의 侵掠番船인 佛艦이나 美艦과 同類인 것 같이 虛偽報告를 서슴치 않고 있으며 後日에 北京政府에 보내는 咨文에서도 突然히 異船이 侵入하여 우리 守卒이 開砲하니 저쪽이 猛砲擊을 加하여 우리 永宗鎮域을 燒蕩하였다. 小邦이 아직 日本船임을 確認하지 못하고 있다는 内容이었다<sup>(43)</sup>.

(41) 韓國史 最近世 前揭書 李瑄根編 p. 376.

(42)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研究 上前揭書 pp. 397—400. 韓國史 李瑄根 最近世篇 震檀學會 pp. 377—378.

(43) 「高宗實錄」卷之十二 高宗十二年 乙亥 8月 23, 24日條, 備邊司謄錄 第256冊 高宗 12年 乙亥 8月 23日字 國史編纂委員會版 p. 788. 「朝鮮史」第六緯 第四卷 高宗十二年 8月 21, 23, 24日. 「日省錄」高宗 乙亥年 8月 22—26日, 當時 日本側의 行政通信狀況을 보건대 江華島事件에 關한 戰果報告인 井上雲揚艦長의 電報가 8月 29일 即 日海軍省에 到着하였고 그 翌日인 8月 30일에는各大臣以下 參議가 參集한 明治天皇 御前會議가 開催되었고 그 決議에 따라 그 翌日(9月 1日)에 川村海軍大輔는 在長崎軍艦 春日艦長 등에 電命하여 釜山에 急航시켰다. 또 釜山에서 長崎에 歸着한 森山理事官은 8月 30일 事件을 聞知하고 外務卿에 打電하여 長崎에서 至急 釜山에 歸還하여 公館及 居留民保護를 擔任할 것을 上申하고 또 春日軍艦의 使用許可를 申請한다. 이에 따라 外務卿는 川村海軍大輔와 協議 끝에 9月 1日 回訓하고 그의 便乘을 許可하는 同時に 새로운 訓令을 보낸 바 있다(田保橋潔「近代日鮮關係研究」上 pp. 402—403 參照). 이 얼마나近代

이와 같이 邊境의 防備가 허술하였고 政府의 無爲無能이 如實히 들어나자 이를 看破한 日帝는 서슴치 않고 뒤이어 同年 10月에는 在釜山 倭公館 및 居留民保護를 口實로 보다 더 優勢한 巨艦과 大砲를 이끌고 釜山에 來侵하여 軍隊를 上陸시키어 示威하였고 마침내 同年 12月(陰 11月)에는 海兵隊가 釜山鎮에 來侵하고 發砲突擊하여 우리에게 重輕傷者를 내기까지 한 것이다<sup>(44)</sup>. 이와 같은 行悖는 그들 政府의 對韓威脅策을 알아 채고 되도록이면 紛糾를 挑發하여 內外呼應하자는 凶計라 하겠다.

## 第二節 丙子修好交涉과 修交後의 國內外關係

前述한 江華島事件을 契機로 하여 日本朝野에서는 征韓論이 再演되어 對韓強硬策으로 國論이 大體로 기울어졌다. 특히 日本內에서 朝鮮問題의 權威者로 自他가 認定하고 있던 參議 木戸孝允 같은 者는 앞서 內治優先을 主張하고 征韓論을 反對해 왔지만 朝鮮國內政情과 臺灣征伐의 例를 들어가며 江華島에서의 朝鮮側의 「暴舉」를 默殺할 수 없다는 見地에서 強硬談判을 主張하고 나섰다. 그의 主張은 清韓「宗屬關係」를 밝혀서 우선 清國政府의 責任을 묻고 清國이 이를 回避한다면 비로소 武力を 뒷받침하는 巨物級大使를 派遣해서 強壓 交涉을 敢行하자는 것이었다<sup>(45)</sup>. 이러한 主張은 마치 森山 및 廣津 등 現地外交官의 支持를 얻어 別다른 異議없이 國論으로 定해지고 日本政府의 對韓政策으로 決定되었다. 이러한 政策이 決定되자 日本政府는 清國政府의 態度를 살피고 또 東京駐在各國公使에게 日本政府가 어디까지나 平和使命을 主로 한다는 趣意를 公式으로 通知하여 諒解를 求한 다음 우선 先報使로 廣津弘信理事官을 12月(陽曆)에 釜山으로 派遣하여 豫告하고 뒤이어 特命全權辦理大使 黑田清隆(陸軍中將 參議 開拓長官), 副使 井上馨를 위시하여 種田政明(陸軍少將), 宮本小一(外務大丞), 樺山賛紀(陸軍中佐) 및 森山茂以下 軍事外交의 實務專門家를 包含한 一行은 輸送汽船 玄武號에 塔乘하고 野砲 八門과 儀仗兵 262名의 護衛아래 다시금 軍艦 三隻과 輸送船二隻으로 統計 800餘名兵力을 引率하고 威勢를 갖추워 1875年 12月 19日(陽曆 1876年 1月)에 釜山港에 來泊하였다<sup>(46)</sup>.

---

의 行政通信裝備를 갖추고 機敏한 通信이었으며 아울러 政府內의 命令系統에 따르는 圓滑한 調整이 이루워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알수 있으며當時의 우리 政府의 行政狀況과 좋은 對照를 이룬다.

(44) 日省錄 高宗乙亥年 10月 27, 28日, 11月 9, 24, 29, 30日, 11月 16日(陰) 日本海兵隊 68名은 一士官指揮下에 武裝하여 公館을 뛰어 나와 銃砲刀劍을 휘두르며 釜山鎮으로 行하는 도중 이를 沢止하려는 我方官民에게 流血劇을 態行하여 12名의 重輕傷者를 낸 일이 있었다.

(45) 田保橋潔著 近代日鮮關係研究上 前揭書 pp. 413—420.

(46) 이들一行은 表面上 「平和的 使命」을 가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田保橋潔著 近代日鮮關係研究上 pp. 413—432) 「그러나 此平和的 使命을 圓滿히達成하는 與否는 強大한 海軍力의 示威가 第一義라고 생각되었다. 이는 未開 或은 半開國에 대한 Anglo-saxon 流의 武力外交를 模倣한 것이며 23年前 美合衆國 東印度艦隊司令長官兼 遣日特使 海軍代將 C.M.C. Perry, U.S.N에 의하여 加해진 것을 隣國에 實施하려는 것이다」(前揭書 p. 433) 이렇듯當時의 日本國政治家 및 軍人들은 英·美의 武力外交를 본받아 우리에게 接近해 온 것 같다. 그 보다 20餘年前(1853年)

이들은 釜山港에서 西海岸을 北上하여 漢江下流의 水路를 測量하면서 目的地인 江華府로 接近하는 途中 高宗 13年(1876) 正月 2日(陽 1月 27日) 京畿道 南陽灣에서 宮本 등의 隨員을 내세워 問情次로 往訪한 南陽府使 姜潤에게 그들의 江華島向의 理由와 艦船의 規模 및 彼此의 接應節次 등에 關하여 討議하였고 同月 3일에는 江華府 草芝鎮 前洋에 來到하여 江華府留守와 判官의 問情을 받고 內洋에의 突入을 禁止當했으나 이에 屈하지 않았다<sup>(47)</sup>. 이로서 政府는 初 3日 以來의 時原任大臣의 熟議끝에 同月 5日에 御營大將 申櫟을 判中樞府事로 借發令하여 接見大官으로 또 禮曹判書 尹滋承을 都督府 副總督으로 發令하고 同副官으로 任命하여 곳 日本使臣과 接應對處토록 했다. 그들間의 折衝에 따라 저들의 主張대로 江華府를 會談場所로 決定한 다음 正月 16日(陽 2月 10日)에 그들 全權一行을 江華島에 上陸케 하고 丙子(1876) 正月 17日(陽 2月 11日)부터 正式會談에 들어 갔다<sup>(48)</sup>. 日本은 이에 앞서 清과 交渉하여 全權一行派韓에 關하여 諒解를 얻고 清國이 朝鮮에 干涉하지 않을 것을 確約시킨바 있으며 江華府談判에서는 江華島事件에 關하여 朝鮮을 詰問하는 同時に 修交條約의 締結을 強硬히 要求하였다. 우리 政府는 清國의 威嚴도 빙자할 수 없는 立場인지라 어느 面에서나 談判에서 委縮되여 始終 그들에게 主導權을 빼앗긴 채 臨할수 밖에 없었다.

朝鮮政府는 連日의 重臣會議에서 甲論乙駁 態度를 決定하지 못하다 結局 國策을 一變하여 開國의 方針을 取하게 이르렀으며 (第三章 第二節 參照) 또 會談過程에서도 일찌기 近代의 国際修交締結에 經驗이 없는 우리 側이 가지 威脅의 言辭와 會談決裂 및 撤收의 脅迫을 받고 賊反荷杖의 攻勢에도 忍耐하면서 臨하게 된 것은 적어도 다음의 重大理由에 根據한 것이라 하겠다. 即 첫째로 世界大勢로 보아 어느 나라에 對해서도 開國하지 않고는 못배길 客觀의 国際狀況이 成熟하였고 둘째로 鎮國攘夷를 強行하여 왔던 大院君이 물러나고 王妃閔氏一派가 政權을 掌握하자 閔妃政府는 大院君時代의 諸政策을 修正하고, 그 對外政策의 變更을 폐한 것이며 셋째로 日本은 이러한 機會를 틀타 朝鮮의 開國을 武力의 威壓으로 脅迫 強要하기에 이르렀으며 甚至於 正式談判의 席上에서도 事不如意하면 一戰을 不辭하겠다고屢次恐

---

에 이미 世界一流 新式海軍을 가진 美政府는 太平洋에 있어 最大艦隊를 그의 遣日大使에게 부쳐 줄 수가 있었다. 當時 日本政府는 저의 居留民保護를 口實삼아 軍艦 2隻이 釜山에 이미 到着하여 示威하고 있던 터이며 또 二個大隊의 陸軍兵力을 저의 本國政府로 電請하여(陽正月 18日) 補強했으며 이들이 合勢한 뒤 小艦隊의 編成에 不過하지만 우리 政府로서는 實로 壯觀이요 未曾有의 恐怖임은勿論하고 兩國間의 國力과 士氣 및 近代化水準의 懸隔한 格差를 露呈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들一行이 釜山港에 到着한 後 二個大隊의 陸軍兵力의 增派遣을 電請한 바 있는 바(陽正月 18日) 實際로 來着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行動은 그들의 強硬한 交涉貫徹의 意圖에서 나온 것이었다. 即 漢江下流의 海面은 水路不明으로 艦船은 陸岸에 接近하기 困難할 뿐더러 江華府一帶의 防備도 嚴重할 것으로 推測이 들기 때문에 우리 側이 戰端을 開始한 경우에 이를突破上陸하여 勝戰함으로서 將來의 外交交涉을 有利하게 誘導하자는 것이었다 한(田保橋 前揭書 p. 436).

(47) 日省錄 高宗 丙子年 正月 4日. 高宗實錄卷之十三 高宗 13年 丙子 正月 4, 5日.

(48) 日省錄 高宗 丙子 正月 13, 15, 16, 17日條 田保橋潔著 近代日鮮關係研究 上 前揭書 pp. 454, 447.

喝도 하였으니 當時의 허술한 우리의 防備狀態에 비추워 威壓當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넷째로 清國政府가 日本과 相爭하는 것이 不利함을 우리에게 劍告하고 朝鮮의 開國을 贊成하게 되니 이러한 清廷의 態度는 一層 閔妃政府를 激勵한 것이다.

이리하여 閔妃政府는 日本의 要求를 받아드려 丙子二月 初三日 韓日修交條規(江華條約)에 講印한 것이다. 日本은 이제까지 歐美諸國이 成功하지 못했던 朝鮮의 開國을 軍艦 雲揚號의 武力示威와 江華島의 武力衝突挑發 및 小艦隊를 引率한 黑田·井上 全權의 江華談判強行 등을 通하여 一擊에 強要한 셈이 된다.

이 條約은 12 個條로 되어 있는데 그 主要內容은 (一) 朝鮮國은 自主國으로 日本과 平等 權을 保有하며 (二) 朝鮮國은 20個月 以內에 釜山外 二港을 開港하여 在留日本人에게 居住 貿易의 便宜를 提供한다. (三) 在留日本人의 領事裁判權을 認定한다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歐美列強이 日本에 強要한 不平等 通商條約을 거의 그대로 模倣한 것이며<sup>(49)</sup> 또 當時 朝鮮의 爲政者들은 近代的 條約에 대한 認識이 全然 없었기에 日本案을 그대로 받아드려 講印하였기 때문에 歐美諸國이 極東諸國에게 強要한 不平等 條約과 거의 同一한 것이었으나 다만 差異點은 이 江華條規의 不備를 補充하기 위하여 日本側이 本條文속에 今後 다시 付錄 條規의 細目을 協定할 交涉權을 確保한 點이었다. 即 江華條規成立後 15個月 以內에 使節의 往來(第2款)와 6個月 以內에 朝鮮에서 通商章程을 商議한다(第11款)는 規定이 그것이다. 事實上 이 條約의 内容이 不平等 條約임은 明白하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自主와 平等을 標榜한 것은 이로서 日本은 朝鮮에 대한 清國의 「宗主權」을 排除하고 朝鮮에서 自由롭게 行勢할 것을 노린 것이라 하겠다.

日本은 今後의 重大한 對韓外交交涉에서 豫想되는 困難을 打開하여 交涉을 有利하게 進行시키기 위하여 江華條約講印直後 朝鮮의 高官을 日本에 招待하는 外交方針을 定했다<sup>(50)</sup>. 朝鮮政府는 이와 같은 政治的 意圖를 가진 日本의 修信使派遣 要請에 應하여 丙子 4月에 金綺秀(禮曹參議)를 修信使로 하는一行 75名을 日本視察에 派遣하였다. 이들一行이 同年 7月에 歸國하자 그 日本視察報告는 朝鮮의 對日感情을 好轉시키고 對日警戒心을 緩和하는 등 朝鮮政界에 큰 變化를 가져 왔으며 日本은 豫期한데로 修信使招待外交로 最大的 効果를 거둔 것이다<sup>(51)</sup>. 뒤이어 日本은 1876年 6月 5日(陽 7月 25日) 宮本理事官一行을 修好條規

(49) 日本外交年表 並主要文書 上 pp. 1-4.

(50) 田保橋潔「丙子修信使와 그 意義」青丘學叢 第13號 p. 39.

(51) 日本이 政治的 野心을 가지고 對韓進出하려는 狀況下에서 修信使一行의 復命報告(4月 4日 釜山 出帆 5月 27日 東京을 떠나 歸國, 東京滯在 20日間 6月 1日 國王에게 復命)가 當時 對日認識不足의 朝鮮政府의 對日政策을 誤導한 것은 매우 重大한 事實이었다. 그들 修信使 禮曹參議 金綺秀 同隨員 玄昔運以下 一行 75名은 日本의 計劃的 視察日程에 羨기여 見聞한 것이며 이들에게 過大한 期待를 걸고 日本의 國情 및 對韓政策探索의 使命을 賦與한 當時의 朝鮮為政者の 失策은 매우 큰 것이었다(韓國史料叢書 第九, 「修信使記錄」全 國史編纂委員會 日東記游卷一 pp. 1-3).

付錄 及 通商章程交涉次 京城에 派遣하여 6月 16일부터 朝鮮側代表 講修官 趙寅熙와 前後 13回의 商議의 結果 그들의 提案을 無修正成立시켜 同年 7月 5日(陽 8月 24日) 그 調印에 成功하였다.<sup>(52)</sup>

이 付錄 및 通商章程에 의하면 (一) 開港後 數年間은 關稅를 免除하고 (二) 去來에 있어 日本貨幣를 使用할 것을 認定한다는 것이었다. 이리한 兩 付錄條規의 成立으로서 韓日兩國의 平等關係는 完全히 破棄되어 朝鮮은 半殖民地化되는 새로운 段階로 突入한 셈이된 것이다. 即 日本은 諸外國과 締結한 修約 중에 이보다 有利한 것이 存在하지 않았으며 또 朝鮮으로서는 이보다 片務的 不平等條約은 歷史上 처음이었던 것이다. 이 兩付錄條規의 成立을 契機로 하여 그後 日本은 政治的, 軍事的 그리고 商業的 進出을 強行하여 朝鮮의 經濟, 政治, 社會, 文化 등 각分野에 深刻한 影響을 미친 것이다.

이리하여 朝鮮과 日本과의 貿易關係는 언제나 朝鮮關稅權의 否認(關稅免除) 日本貨幣의流通 그리고 領事裁判權의 行使 등 三個의 片務性을 基調로 行해지게 되었으며 이리한 特權的地位는 歐美先進諸國에 對하여 關稅自主權이 없이 從屬的인 關係에 있었던 日本이 富國強兵과 軍備增強을 위한 많은 財源을 確保하는데 바로 價值가 있는 것이었다.<sup>(53)</sup> 그後 1877年 10月에는 이 江華條規付錄 및 通商章程에 立脚하여 花房義質가 辦理公使로 朝鮮에 派遣되어 釜山(1876)以外 二個開港場을 選定하고 1879年에는 京城에 公館을 設置하고 뒤이어 元山(1880)及 仁川(1883)에 兩港을 開港하였다. 이들 諸港에는 日本商人들이 繽紛 전너 왔으며 또 第一國立銀行의 支店이 釜山(1878) 그 出張所가 元山(1880), 仁川(1882) 등에 設置되었다. 日本商人은 前述한 片務的 特權을 亨受하고 第一銀行의 援助를 받아가면서 날뛰었다. 日本軍艦은 때때로 入港示威하면서 日本商人을 激勵하였다.

이리하여 江華條規締結 以後 數年間 日本商品은 朝鮮市場을 獨占하였으며 其結果 朝鮮에 對한 資本主義商品의 輸入은 日本商人을 通하여 無制限으로 輸入되고 日本貨幣로 朝鮮에서 米穀, 大豆 등의 穀物類와 金이 購入 輸出되며 그것도 掠奪과 다름없는 不當한 去來가恣行되었기 때문에 朝鮮의 農民經濟는 莫甚한 打擊을 받았고 朝鮮經濟는 混亂에 빠진 것이다.<sup>(54)</sup> 이로서 日本은 朝鮮에 대하여 列強이 할 수 없었던 것을 列強에 앞질려 遂行했다. 그 手法은 일찌기 美國이 日本에 對하여 行한 것 以上으로 僥略的인 것이었다. 富國強兵과 軍備增

(52) 奥平武彦著「朝鮮開國交渉始末」p. 64. 田保橋, 近代日鮮關係研究 上 前揭書 第十二號 pp. 579ff.

(53) 姜德相「李氏朝鮮開港直後에 있어서 朝日貿易의 展開」歷史學研究 第265號 pp. 1—18.

(54) 文定昌著近世日本의 朝鮮侵奪史 1964. 柏文堂 pp. 143—158. 韓國史最近世篇 李瑄根著 震檀學會 pp. 445—446. 中國柱著近代朝鮮外交史研究 有信堂 1966. pp. 126—127. 日本으로 부터는 主로 編製品 疏布가 輸入되었으나(總輸入額의 85%가 織物이고 其他 染料, 金屬製品, 雜貨가 15%) 그 大部分은 英國製品의 仲繼貿易이었다(88.3%가 유럽商品). 이로 말미암아 日本은 朝鮮의 編製品市場에 獨占的地位를 占했다. 編製品과 農產物과의 交換은 朝鮮農民을 商品經濟 속에 휘둘렀다.

強을企圖하고列強틈에한목끼고자하는日本은列強에본받아亞細亞侵略에나섰으며그第一步로朝鮮에발을부친것이었다.

이와같은強力한日本進出에 대하여清國은勿論默認하지않았다.從來의宗主權을回復하기위하여經濟面에서는清國商人과그商品을進出시키고政治的으로는朝鮮政界의保守派를支援하고또日本의獨占을牽制하기위하여歐美諸國에의開港을朝鮮에勸告하고同時에列國과朝鮮과를仲介함으로서宗主國으로서의立場을되찾고자努力하였다<sup>(55)</sup>.이로말미암아朝鮮의政治狀況은日·清兩國의干渉과勢力에끌리여政治的,思想的,民族的인內部分裂을惹起시켰으며結局守舊派(親清派)와開化派(親日派)의黨爭을誘發하였다<sup>(56)</sup>.

앞에서論及한바와같이日本이朝鮮에 대하여經濟的으로political의侵略의in接近을해와서朝鮮인의食料不足騰貴와朝鮮經濟의混亂을가져왔을뿐더러元山,仁川의開港을強要한뒤이어釜山의關稅賠償과米穀禁輸의解除까지提起하는등朝鮮政府를難處하게한일이한두가지가아니었다.여기서朝鮮政府는이러한問題등을折衝하고그들의眞意와實情도探索해보고또維新後의日本의制度와文物을視察하기위하여高宗17年(1880)에再次修信使(金弘集)一行58名을日本에派遣하였다.日本은修交後에豫想以上으로惡化된朝鮮民衆의對日感情과日本人에대한憎惡感이今後의朝鮮進出에障害가됨을豫想하여이障害를克服하고朝鮮政界에親日의黨派를育成하기위하여이第二次修信使를극진히歡待하였다.

이들修信使一行은渡日하여日本要路로부터日本의對韓進出政策의方策에關하여사주를받고또當時의清國駐日公使館의何如章公使,黃遵憲參事官등으로부터露西亞의侵略政策에對抗하여清國·朝鮮·日本등三國의親善과提携의必要性을듣게되어歸國에際해서는黃遵憲의著「朝鮮策略」<sup>(57)</sup>이란小冊子를寄贈받아이朝鮮策略은國王에도깊은感銘을주고政府要路의重臣들중에도그所論에贊同하는者가있어朝鮮의對外政策에큰影響을미친바있었다.이「朝鮮策略」의理論은單純한著書의意見이아니고어느程度清國政府의意見이기도했다.이보다앞서1879年朝鮮國王은清國在留中の正使領李裕元에게命하여李鴻章에對하여朝鮮의外交方針에關하여意見을打診한바있었다.그때李鴻

(55)旗田麌著「朝鮮史」p.171.

(56)大院君世道中萌芽를發한革新,守舊의分黨은高宗17年頃에이르러漸漸形態를갖추워서로暗殺濫刑도서슴치않는激烈한黨爭으로進展하기에이른다.當初革新的色彩를띠운것은反大院君의一派로서國王,王妃,閔氏及그一族元老領中樞府事李裕元을비롯하여國王의信任하는一部의青年政治家등이었다.이들이大院君을center으로하는守舊勢力에對抗하여우선成就한것은丙子修好條規이며다음에는仁川開港(高宗17年1880年)이었으며그리고仁川開港의先驅는第二回의修信使派遣이었다.

(57)韓國史料叢書第九修信使記錄全國史編纂委員會pp.160—171原文參照.

草은 密書를 李始元에게 傳하여 當面의 朝鮮外交方針을 大略 다음과 같이 勸告한 일이 있었다.

日本은 富強의 術을 講하고, 西洋諸國의 勢力を 比려, 朝鮮을 侵略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朝鮮은 마땅히 毒으로써 毒을 制하여, 西洋諸國과의 立約을 許하고, 日本을 奉制하여야 한다. 西洋諸國이 要求하는 것은 通商에 不過하므로 朝鮮이 英·德·法·美의 諸國과 交通하면 日本을 奉制하고 露國의 北邊을 노리는 것을 防備할 수가 있으며, 通商의 利益도 얻을 것이다. 日本이 不法으로 朝鮮을 侵略하는 일이 있으면 締結各國을 結集시켜 그 非를 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論하고 있다<sup>(58)</sup>.

이로써 보더라도 朝鮮開國以來, 5年間, 朝鮮政府의 開化政策은 日本의 勸誘에 따랐을 뿐더러 背後에서 清國이 日本을 奉制하기 위하여 朝鮮을 誘導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59)</sup>.

무릇 開國이라 하면 鎮國孤立하여 對等關係에서 先進諸國과 公式的 交通을 受容하지 않았던 國家가 그들을 平等並行의 國家로서 承認하여 國際團體의 法規下에 外交關係를 設定하고 相互通商을 許容하여 國際團體社會에 그 一員으로서 加入하는 것을 意味한다<sup>(60)</sup>. 그런데 東洋諸國의 開國은例外없이 그 國家의 自發的 欲求에 의하여 이루워진 것은 아니었다. 當事國이 바라지 않았던 것을 歐美諸國의 優越한 武力의 使用(例컨데 阿片戰爭 같은 直接武力) 또는 그것을 背景으로 하는 壓力(例컨데 海軍艦隊의 威脅)에 의하여 強要된 것이었다. 特히 朝鮮의 開國은 1876年에 日本과 그리고 歐美諸國과는 1882年에 '비로소 條約關係에 들어가기 始作함으로서 이루워지는데 그 動機는 勿論 通商上 其他의 經濟的 理由도 있었으나 顯著하게 列強間의 國際政治上의 目的에서 이루워진 點이 特徵이라 하겠다. 그리고 朝鮮의 開國은 東洋諸國中에서도 가장 뒤늦은 편이나 그 理由는 첫째로 歐美人의 朝鮮에 關한 知識이 極히 稀薄했었고<sup>(61)</sup> 둘째로 從前의 武力を 通한 佛國 및 美國의 開國強要가 共히 江華遠征에 失敗함으로서 歐美諸國에게 開國이 困難하다는 印象을 주고 또 極東에서 武力紛糾를 惹起하는 것을 願치 않은 點 등을 들을 수 있겠는데 마침 日本과 江華修交로서 最初의 開國이 強要되고 뒤이어 歐美諸國과의 開國은 中國의 幅旋으로 이루워졌으며 그 動機는 當時의 極

(58) 「李文忠公全集」奏稿卷三四, 密勸朝鮮通商 西口摺, 記書函稿卷九, 論勸導朝鮮通商, 「中日交涉史料」卷一(三四).

(59) 1880年 5月 美合衆國政府는 朝鮮國과의 國交開始를 希望하여 日本政府에게 그 紹介를 依賴하였다. 外務卿 井上馨은 이를 受諾하여 特別히 公文을 禮曹判書 尹滋承에게 보내어 合衆國政府의 希望에 應할 것을 勸告하였다. 이때 朝鮮政府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田保橋潔著 近代朝鮮에 있어서 開港의 研究, 小田先生頌壽記念 朝鮮論集 昭和 9年 p. 670).

(60) 奧平武彥著 朝鮮開國交涉始末, 昭和 10年 p. 4.

(61) 1866年に Macpherson은 朝鮮에 關하여 「豆滿江을 넘으면 中央「아프리카」의 土人에 關하여 알려져 있는 바와 거의 다름없는 知識밖에 없는 異國人을 發見한다」(Eden, C.H. China Historical and Descriptive with an appendix on Corea, London, 1877. p. (281)고 말한 바있었고 또한 歐美諸國에게 開國의 動機가 되었던 交易上の 利益에 關해서도 甚히 漠漠하고 天然物資가 缺乏한 國土란 觀念이 普及되어 있었다(奧平前揭書 p. 14 參考).

東에 있어서의 清露의 転轍과 清·日의 對抗이란 國際情勢에 由來한 것으로 커다란 政治的 意義를 內包하며 特히 朝鮮의 政治的 地位에 關하여 清·日間의 見解對立이 內在한 點 등은 다른 東洋諸國의 開國과 比較하여 朝鮮의 開國이 지닌 特色이라 하겠다. 이러한 特色이 開國後의 朝鮮의 近代化過程을 特徵지우고 있는 것이다.

如何間에 以前부터 閔氏政權의 自主性 없는 開化政策에 反對하여 온 守舊派는 政府攻擊을 계속하여 閔氏政權을 窮地에 몰아 넣었다. 한편 이 守舊派에 對抗하여 大院君時代의 保守的 施策을 버리고 各種의 改革을 斷行하기 위하여 閔氏政權은 閔氏一族 및 開化派를 要路에 充員하여 政權의 安定을 企圖했으며 이를 위하여 中央政府機構의 大改革에 着手하였다.

### 第三節 西歐諸國과의 修交

第二節에서 論及한 바와 같이 日本과의 丙子修好以後 西歐諸國과는 高宗 19 年(1882 年)부터 同 23 年(1886 年) 사이에 修好條約을 締結하였다. 西歐諸國中에서는 美國과의 사이에 修好條約이 먼저 締結되었고 뒤이어 英國, 獨逸, 露國 등의 順序로 修好가 이루워졌다.

(一) 韓美修好條約締結 —— 高宗 3 年 内寅(1866 年) 美國船「제네랄셔먼」(General Sherman) 號事件, 高宗 5 年 洋인의 德山掘塚事件, 그리고 高宗 8 年 辛未年 駐清美國公使「로우」(E.E. Low)와 水軍提督「로저스」(J. Rodgers)가 이끄는 美艦隊의 來訪을 契機로 빚어진 江華灣上衝突, 即 辛未洋擾 등으로 韓美間に 武力衝突이 있은 후<sup>(62)</sup> 한동안 兩國間의 交涉은 없었으나 마침 韓日修好修約이 締結되면서 韓日間에 使節의 往來가 頻繁해지자 韓國政府는 國王以下 歐美諸國에 대한 認識과 態度가 점차 變하게 되었고 또 歐美諸國도 韓日修好에 刺戟을 받어 韓國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機會있을 때 마다 直接·間接으로 修好條約交涉을 피하여 왔다. 即 韓美修好交涉에 있어서는 美國 朝野의 對韓再交涉의 運動도 있었지만 日本外交官의 周旋과 日本外務卿 井上馨의 觀說 日本政界의 一, 二修信使에 대한 勸告 그리고 清人 黃遵憲著「朝鮮策略」의 聯美說과 李鴻章의 구준한 幹旋과 居中調停 등에 힘입은 바 적지 않았다. 特히 韓美條約締結에 있어서는 清國의 幹旋이 크게 奏効하였다.

일찌기 美國政府는 1879 年 海軍提督「슈펠트」(即 蕭孚爾)로 하여금 對韓再交涉을 委任한 바 있었고 그가 日本政府를 通한 對韓交涉에 失敗하자 方向을 달리하여 清國側의 幹旋을 打診하게 되었으며 마침 李鴻章은 「슈펠트」提督을 天津으로 招請하고 그를 支援하여 韓美交涉의 幹旋役을 自進擔當한 것이었다<sup>(63)</sup>. 李鴻章은 帝露의 南下를 防禦하고 日帝의 對韓進出을 牽制하기 위한다는 口實아래 韓美修好條約의 起案까지 自進請負를 맡되 이 機會에 그들의 所謂 宗邦論을 強要具顯시켜 보자는 腹案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이 當時의

(62) 文一平著 韓米五十年史 4278年 朝光社 pp. 1—14. 李能和著 朝鮮基督教 及 外交史 1968. 新韓書林 pp. 123—126.

(63) 文一平 前揭書 pp. 49—64.

朝鮮政府 上下는 外交知識이나 力量에 있어 이를 拒否하고 主權國家의 威信을 빽바로 發揮할 만한 人物도 없었다. 「朝鮮策略」등을 通하여 알고 보니 美國이 天下의 萬國의 共知하는 바 民主之國이요 共和爲政의 富強하고 侵略野慾이 없는 나라로서 좋게는 생각되었으나 國內反撥이 甚한지라 國王以下 執政大官들도 清國의 威力を 빌어 推進하되 一切의 內容을 秘密에 붙였다. 이리하여 清國政府와의 秘密交涉에 따라 金允植, 魚允中 其他 領選使一行의 派遣으로 韓美秘密外交가 進行되었다. 領選使 金允植은 北京을 經由, 保定府와 天津에서 李鴻章과 數次 會談하였고 李鴻章은 다시 「슈펠트」提督과 交涉折衝함으로서 韓美間의 居中調整을 한 것이다<sup>(64)</sup>. 드디어 高宗 19年 4月에 朝鮮政府의 全權大官 申朱櫟, 副官金弘集, 從事官 徐相雨 美國全權 「슈펠트」提督 그리고 斡旋役의 清使馬建忠, 丁汝昌 등이 仁川에서 會談함으로서 韓美條約締結이 結實한 것이다<sup>(65)</sup>.

以上 韓美條約 內容은 大體로 友好的이고 公正한 相互文化交流를 約束한 것으로 앞으로 繼續하여 締結될 英·獨·露 등과의 諸條約의 基準이 된 것이었다. 마침내 高宗 20年(1883年) 4月에는 美國全權公使 「푸트」(L. Foote)와 全權大臣 閔泳穆 사이에 批准을 交換하였고 高宗은 美公使를 召見하여 그의 國書를 親受하였으며 朝鮮政府도 그 答禮로 同年 6月에 喰族世道의 巨物인 閔泳翊을 報聘大使로서 全權大臣에 任命하여 副官 洪英植以下 徐光範 邊燧 등 開化黨의 青年政治人們을 美國에 派遣함으로서 韓美文化의 歷史的인 交流가 시작된 것이다<sup>(66)</sup>. 韓美條約이 成立한지 二個月 뒤에 壬午軍亂이 터지고 「푸트」公使가 來駐한지 一個年半쯤 넘어 日清戰爭의 導火線을 지운 甲申政變이 일어 났다. 이 政變에 대하여 「푸트」公使는 政變의 主動人物인 金玉均과 通情도 하고 勸告와 相議도 하였던 것이다<sup>(67)</sup>.

(64) 韓國史料叢書 第六 陰晴史上 pp. 53—58, 48ff, 114—131 韓國史最近世篇 前揭書 第三編 第一章.

(65) 文一平著 前揭書 pp. 69—79.

(66) 閔泳翊一行의 美國特派는 朝鮮使臣의 出洋하는 嘴矢며(日省錄 癸未 六月 初五日條)一行은 隨員 俞吉瀬, 高永喆 其他 陪從까지 合하여 11人으로 1883年 7月 26日(陽) 仁川出帆 日本을 거쳐 美國桑港에 同年 9月 2日(陽)에 到着했다.

(67) 甲申政變을 앞두고 Foote 「푸트」公使와 金玉均과의 接觸이 頻繁하였음은 金玉均의 甲申日錄에 나타난다. 例컨대 甲申 11月 5日에 公使館을 往訪했을 때 金氏가 公使에게 「內情의 艱과 時勢의 困을 論하매 米國公使는 나의 말하는 바를 웃지 않다는 것이 없었다」고 했고 金氏가 日清撤兵의 急務임을 말하자 公使自己도 그 말에 대하여 多少 周旋하겠다는 深厚한 同情의 意思를 表示한 바 있었으며 그후 「푸트」公使가 11月 14日 同夫人하여 金氏를 訪問했을 때 密談이 있다 하여 夫人은 먼저 돌려 보내고 公使만 머물러 있어 金氏의 무서운 改革의 陰謀를 듣게 되었는데 이때 公使는 泰然히 말하여 「公等이 나라를 위하여 一死를 내기 하는 뜻은 나의 본래 深信하고 欽敬하는 바 그러나 내가 貴國에 나온 以來 我政府의 密囁한 것과 내 一人의 心中に 생각했던 바를 하나도 퍼지 못하였으니 내가 벌써 돌아가야 마땅한데 오늘날까지 遷滯하는 것은 진실로 貴國의 獨立을 위하여 公等에게 所望이 있는 때문이라 다만 清兵撤還의 事는 公等의 前後懇勸을 나도 생각하는 바 있어서 向日 竹添이 다시 오기 前에 이미 島村久와 商議하여 日本 外務卿에게 轉譏계 하였으니 公等은 幸히 為國爲身하여 또는 나의 忠告를 위하여 아직 고요히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것은 金玉均이 誇張한 點도 있겠으나 參考가 된다(金一平著 韓米五十年史 前揭書 p. 994).

(二) 韓英修好條約締結——韓英修好條約은 韓美條約에 準하여 손쉽게 成立되었다. 即 英國政府는 駐清英國公使「웨이드」Thomas F. Wade로 하여금 清國의 李鴻章에게 美國과 同等한 條件 아래 韓英修好를 幹旋해 줄 것을 依賴하자 이에 李도 굳이 拒絕할 수 없어 承諾하였으며 따라서 英國政府는 海軍提督「윌스」Admiral Willes를 全權으로 任命하여 派韓하였고 때마침 丁汝昌, 馬建忠 등이 아직도 滯韓中인자라 그들을 通하여 清國政府의 紹介가 傳達되었음으로 朝鮮政府에서도 高宗 18年 4月에 서슴치 않고 趙寧夏를 全權大臣에 金弘集을 副官에 徐相雨를 從事官으로 任命하여 仁川에서 韓英會談을 開始케 하였다. 同條約交涉過程에 있어서는當時의 朝鮮政府當局者들이 國際條約業務에 無知하고 無能한데 比하여 英國政府當局者들이 外交術策에 老練했던 만큼 그들의 立場에서 보다 有利한 條件을 保障하려는 意圖에서 벗어나는 바람에 高宗 21年(1884年) 4月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條約이 批准交換되었고 總領事로서 「아스頓」을 常駐케 함으로서 韓英國交는 맺어진 것이었다<sup>(68)</sup>. 英國이 日本이나 美國과는 判異하게 그의 뒤를 따르는 獨逸과 더불어 全權公使를 派遣하지 않고 格下시켜 總領事を 派遣한 것은當時의 老大帝國 清國政政의 脾胃를 맞추기 위하여 取해진 媚態라 하겠으며 韓英條約이 가져 온 結果는 우리 外交上의 威信의 損失을 가져 왔고 別로 큰 所得은 없었다<sup>(69)</sup>. 더구나 修好通商한지 며칠이 못가서 帝露의 侵略性을 奉制한다는 口實下에 巨文島를 巨艦大砲로 하루 아침에 不法占領해 버린 일이 있었다.

(三) 獨逸·露西亞 및 佛蘭西와의 修好條約締結——高宗 18年에 韓美交涉이 成功하고 英國이 그 뒤를 쫓게되자 駐清·獨逸公使「브란트」는 清國政府의 紹介文書를 받아가지고 同年 5月 6일에 軍艦으로 仁川에 來到하였다. 그리하여 亦是 清國道員 馬建忠의 幹旋으로 朝鮮政府에서 任命派遣한 全權大臣 趙寧夏, 同副官 金弘集 等과 더불어 交涉折衝한 結果 同年 5月 15일에 韓·獨修好通商條規에 調印하였고 다시 同年 10月 27일에 修正調印되었으며 甲申年 8月에 總領事「챔부쉬」가 着任함으로서 兩國間에 國交가 始作되었다.

다음 露國과의 關係는 大院君의 執政初期부터 露人의 犯境과 韓人の 沿海州移住問題로相當한 紛糾가 있었으며 뒤이어 帝露의 極東政策이 갈수록 積極化되어 南下하여 不凍港을 慾求하는 態度가 露骨化되자 黃氏의 「朝鮮策略」이나 清·日兩國의 거듭 所謂 防俄策을 勸告하는 등 하여 우리 政府로서는 警戒를 해온터이며 露國側의 和親交涉도 拒絕해 온 것이다. 그러나 韓·美交涉이 成熟해 가는 高宗 19年에 傳染病의 相互豫告와 通譯官의 自進斡旋 같은 地方의問題를 提起하여 局地交涉을 促求해 왔으며 마치 韓·美交涉이 成功하자 天津駐在露國領事「웨이버」Carl Waeber가 李鴻章이 推薦해 派遣한 「윌렌돌프」를 買收하여 그의 幹旋에 의하여 外務督辦 金炳始 全權大臣과 會談한 結果 高宗 21年(1884年) 閏 5月에 韓·露

(68) 韓國史 最近世篇 露學會 pp. 746—756.

(69) 上同 p. 756.

修好通商條約을 調印하는데 成功하였다. 뒤이어 翌年 8月에 「웨베르」는 代理公使 兼 總領事의 資格으로 入京하여 批准交換을 하는 同時 서울外交界의 隱然한 新勢力으로 登場하게 된 것이다.

다음 佛蘭西는 歐美諸國中에서도 가장 먼저 門口를 두드리고 宣敎事業으로 生命을 懲牲해 가며 國交를 맺고자 努力했지만 誤解와 摩擦이 겉들여 正式國交는 다른 나라보다도 數年 뒤 멀어지게 되었다. 閔妃政權이 開國外交로 政策을 轉換하자 宣教師의 入國도 容易해졌으며 教希復興에 새 務望을 가져 보았으나 不幸하게도 곧 譚壓을 받게되었다. 1882年에 美·英·獨 등과 그리고 1884年에는 露國하고까지 修好交涉이 成功하고 國內의으로는 甲申年에 政變과 더불어 信敎의 自由와 함께 宣教師의 入國이 默認되자 佛國政府는 1886年 3月에 비로소 「코고오당」 F.G. Cogordan이 全權委員으로 派遣되어 仁川에 到着하였고 이에 朝鮮政府도 漢城府尹 金晚植을 全權大臣에 任命하고 會談折衝케 한 結果 5月 3日에 韓·佛修好條約을 調印하였으며 1887年 閏4月에 批准交換 함으로서 兩國間의 오랜 宿題였던 國交는 正式으로 열렸고 이에 따라 宣敎事業도 活潑히 展開되었다<sup>(70)</sup>.

### 第三章 開港을 前後로 한 政治文化의 動搖

本章에서 丙子修好條約을 中心으로 한 國內朝野의 知識人의 反應과 그리고 修好條約成立以後의 反應을 通하여 나타난 政治文化의 展開過程을 살펴보고자 한다.

1876年 日本과 締結된 丙子修好條約은 韓國最近 政治史에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意味를 갖는다. 그것은 첫째로 朝鮮朝 五百年의 傳統的 對外秩序이던 東洋的인 事大交隣의 關係에서 벗어나 맨처음으로 西歐的 國際秩序에 參與하게 되었다는 點이며 둘째는 이와 같이 日本을 통한 西歐秩序와의 接觸은 그 밀려오는 西歐的 影響이 西歐史의 近代의 內容을 中心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條約은 韓國史의 歷史進行過程에 있어서 最初로 遷이어야 하는 西歐的 近代와의 對決이었다는 點이다<sup>(71)</sup>. 前者는 充分히 益熟하지 않은 泰西와의 通交라는 點에서 地域의 遠隔이 問題가 되는데 反하여 後者は 전혀 體驗하지 못한 近代의 要素의 受容이라는 점에서 歷史的 時代 隔差가 無視될 수 없다<sup>(72)</sup>.

(70) 그밖에 韓伊修好通商條約이 1884年 6月 26日, 韓澳修好通商條約이 1892年 6月 23日, 韓白修好通商條約이 1901年 3月 23日, 韓丁修好通商條約이 1902年 7月 15日에 각각 調印되었다(韓國史最世篇 前揭書 pp. 773—774).

(71) 오늘날 韓國史에서는近代化的 基點으로 1876年的 修好條約을 많이 들고 있다. 그것은近代意識의 成長與否보다도近代的 西歐秩序와의 最初로 制度化된 接觸이 있다는 歷史的 事實을 重要視하고 있기 때문이다. 震擅學會編 震擅學報 第二十三號 乙酉文化社 1962, pp. 195~212 韓國近代化 問題 參照.

(72) 修好條約締結當時 이를 反對하고 나타난 斥和議에서 「倭洋同體」나 「洋警」등의 標語는 具體적으로는 機械文明에 의한近代化된 西歐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日省錄 高宗 13年 1月 23日條 崔勉菴 上疏文 參照「設使彼是眞倭非洋, 古今懸殊 不得不察…」

이와 같이 空間的으로 時間의으로 二重의 隔差를 調和시켜야 할 修好條約은 우선 泰西에 대한 제나름대로의 既存知識에서부터 反應을 불러 일으켰다. 그것은 即 當時 泰西에 대한知識이 清國을 通한 傳聞과 貧弱한 關係文獻을 통하여 間接的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西歐勢力의 進入에 대한 反應도 西洋에 대하여 구축된 正確한 觀念形態에서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이다<sup>(73)</sup>. 따라서 여기에 대한 反應의 기반은 西歐에 대하여 漠然히 간직되어 왔던 既存의 獨自의인 意識形態로부터 그것을 評價하려는 主觀的인 意味賦與形式이 中心을 이루고 있었으며 여기에 現實的으로 漸高해가는 西歐의 影響 속에서 體驗的 感知를 통하여 反應의으로 얻어지는 直觀的 解釋이 따르고 있었다<sup>(74)</sup>. 이와 같이 西歐라는 對象에 대한 客觀的認識을 거치지 않은 채 獨自의인 既存의 觀念體系로부터 出發하여 直觀的 評價를 隨伴하며 나타난 反應形態는 자연히 既存의 價值體系를 中心으로 하여 現實의 諸要素들을 여기에 비추어 解釋하려는 主觀的 合目的論이 支配的이었다. 그와 같은 評價形式 내지 態度는 적어도 西歐的 要因에 對한 反應이 肯定的 立場이던 혹은 否定的 立場이던 간에 兩者의 경우 모두 共通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注目되어야 할 새로운 傾向은 비록 그 論理의 基盤이 傳統的自己 價值를 中心으로 한 保守的 當爲論에서 出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傳統的自己秩序를 根本的으로 動搖시키려는 深刻한 挑戰要因에 對해서 實感하게 된 危機意識으로<sup>(75)</sup> 말미암아 西歐的挑戰要素에 대한 制限의이긴 하지만 綿密한 考究와 現實의 分析의 傾向이 따르고 있었다는 點이다. 그것은 時代가 要請한 歷史의 새로운 動因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現實의 기반에서의 反應은 自我에 대한 守舊的 執念이 強하면 強할수록 또 異質要素에 대한 排斥이 깊으면 깊을수록 比例的으로 徹底하고도 積極의이었다. 이러한 轉換點에서 나타난 一聯의 思想的 反應을 여기서는 주로 傳統的自己秩序라는 價值定向과 새로운挑戰要因이라는 外壓的 狀況을 中心으로 政治文化的側面에서 考察해 보기로 한다.

### 第一節 修好條約의 지녔던 歷史의 爭點

朝鮮王朝 末期의 外交史에서 丙子修好條約이 지니고 있던 歷史의 問題點들은 이미 修好條約이 成立되기 數年前부터 即 具體的으로는 高宗 初年間의 倭書契問題를 起點으로 하여 이미 提起되어지고 있었다<sup>(76)</sup>. 무릇 이 書契問題는 周知하다시피 傳統의 倭와의 對外關係를 中

(73) 日省錄 高宗 12年 12月 16日條. 回還奏請使 李裕元問答. 日省錄 高宗 13年 1月 23日條. 前司諫 張皓根 上疏. 日省錄 高宗 13年 1月 27日條. 右通禮 吳尚鉉 上疏. 日省錄 高宗 13年 1月 28日條. 副護軍 尹政賢 上疏

(74) 洋警과 斥邪는 이미 高宗 初부터도 國내에 汚濫하는 洋物을 보고 그에 대한 反應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日省錄 高宗 3年 9月 19日條 工曹參判 李恒老上疏「不爲外物所牽制, 所謂外物者……洋物爲最甚……」. 日省錄 高宗 3年 8月 16日條 副護軍 奇正鎮上疏.

(75) 韓國史研究會編, 韓國史研究 2, 1968, 12, 서울光明出版社 韓治勛 “開港當時의 危機意識과 開化思想” pp. 106~109.

(76) 書契問題는 日本이 明治維新을 치르고난 후, 即 朝鮮朝에서는 高宗 6年末부터 提起되었다. 日省錄 高宗 6年 12月 13日條 “對馬島主書契使之改修呈納” 參照. 田保橋潔著 近代日鮮關係研究 上 pp. 133ff.

心으로 하여 그 形式上의 節次問題로서 提起된 것인 바, 이 修好問題도 同一하게 倭와의 對外關係를 中心으로 하였으며 또 그 動機 또한 從前의 秩序를 새로운 對外關係로 바꾸려는倭의 一方的 要求에서 出發되었다는 點에서 丙子修好條約은 書契問題와 同質的 次元에서 發展歸結된 것이 確實하다<sup>(77)</sup>. 이런 點에서 丙子修好條約을 中心으로 하여 國內에서 일어났던 反應에 대한 考察은 이미 書契問題로 因하여 던져졌던 論爭들에 대한 評價를 그前提로 하고 있다.

### (一) 書契問題의 擙頭와 그 性格

書契는 朝鮮朝가倭와의 關係에서 來往하던 一種의 交隣文書이다<sup>(78)</sup>. 따라서 그 書契는 朝鮮朝의倭와의 傳統的 交隣關係를 規制하고 있는 重要한 制度의 하나였다. 即 이 書契를 통하여 朝·倭兩國關係는 그 外交的 性格과 儀禮的 形式이 함께 表現되었으니 여기서 書契는 兩國을 往來하는 單純한 儀禮的 外交文書에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兩國外交關係의 基本的 性格을 담아 規定해 주고 있는 重要한 한 外交制度로서의 意義를 가지고 있었다.

또 이와 같은 外交의 한 制度로서의 包括的 性格을 지니는 書契는 當時 朝鮮朝의 交隣關係가 主로倭를 中心으로 集中的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本 書契는 單純히 對倭外交만을 規制하는 外交形式이 아니요 그것은 곧 한편으로는 朝鮮朝의 交隣外交의 一般的 性格을 表現하는 것으로도 說明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朝鮮朝 交隣外交의 重要한 한 形式으로 維持되어 오던 書契가 從前까지 理解 遵守되어 오던 基本形式과 性格을 달리하려는데서 朝·倭書契問題는 擙頭되었다. 이때 書契形式의 變更을 一方的으로 試圖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倭側이었으며 그 動機는 곧 從前까지의 朝·倭外交關係를 根本的으로 變革시키려는倭의挑戰的 要求에서 이루워진 것이었다<sup>(79)</sup>. 即 그러한 動機와 要求의 裏面에는 從前까지의 朝·倭關係에 對하여 품어온倭의 不滿과 維新以後에 있어서의倭의 一聯의 改革의 氣勢가 도사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어디까지나 朝·倭外交關係를 그들에게 有利하게 展開시켜 半島進出을 圓滑히 하려는倭의 積極的挑戰勢力에 의하여 提起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倭의 底意黑心에서 나타난 書契問題는 高宗 5年(1868年) 경부터 그 기미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드니어 高宗 6年 對馬島主 平義達 書契를 통하여 나타났다. 이 書契를 朝

(77) 高宗 12年(1875年) 陰十二月 釜山 前洋에 나타난 黑田一行은 그들이 「書契公幹事」로 誓音을 明言하고 있었다. 日省錄 高宗 13年 1月 2日 東萊府使 洪祐昌狀啓 그리고 그一行에 의하여 書契問題의 結末로써 修好條規가 締結되었다.

(78) 通文館志 明治四十年, 韓國, 京城, 韓國珍書刊行會編刊 卷之五, pp. 1~3 卷之六 p. 21 參照.  
李鉉淳 朝鮮前期對日交涉史研究 韓國研究叢書十 1964, 서울 韓國研究院 pp. 35~40.

(79) 國史史料叢書十 海泉野錄(黃玗著) 國史編纂委員會 戊辰 廢關白條.

鮮朝의 朝廷에서는 〈大違格例〉라 하여 改修를 命함으로써 修好條約에 이르기 까지 7~8年에 이르는 書契를 中心으로 하는 朝·倭關係 對立狀態가 시작되었다. 即 이 書契에 대한 朝鮮朝의 反應은 當時 最高 政策議決審議機關인 議政府의 啓聞과 國王의 允許를 거쳐 나타났는 바 그 内容에서 보면 島主의 職名을 前에 使用하지 않던 右近衛少將이란 稱號를 사용한 것과 平義達이란 名字下에 朝臣이란 二字를 더 添記한 것은 恒例恒式이 아니니 三百年間 지켜온 條約本意에 이를 削除改修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80)</sup>. 이와 같은 反對決定은 差倭書契傳達→訓導別差의 手本→東萊府使 狀啓→議政府啓聞→國王允許와 같은 通常的 政策決定過程을 通하여 별 論難 없이 處理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簡單히 拒絕되어 버린 第一次 書契問題는 다음해인 高宗 8年 4~5月間의 洋船倭人事件을<sup>(81)</sup> 契機로 차차 複雜한 樣相으로 얹히기 시작하였다. 즉 這間의 洋船事件에서倭人의 洋人招納을 의심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한 國家安危를 저으기 不安하게 생각한 朝廷은 그 事件의 經緯를 우선 清國에의 杏文과 함께倭에게도 書契를 通하여 通信하고 있다. 이 書契에서는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島主의 새로운 稱號를 사용하고 있으며 두달 후인 7월에 가서는 島主의 새로운 稱號를 썼다 하여 改修를 命했던 前日의倭書契를 그대로 許諾하여 받아 드렸다<sup>(82)</sup>. 여기서 書契形式은 第一次로 島主稱號의 改新을 통하여 그 部分的 變更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對倭關係에서 國力を 背景으로 하는 國際的 葛藤도 점차 현저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書契問題는倭의 明治維新이 점차 安定되어 갈에 따라 1872年 末경부터는 그 書契의 形式만이 아니고 外交關係를 全面적으로 改革하기 위하여 所謂 新講隣好를 위한 外務省官吏의 直接 派遣을 하기에 이른다<sup>(83)</sup>. 여기서 朝·倭關係는 幕府를 무너뜨리고 새로이 登場된 維新政權이 主體가 되어 朝鮮朝와의 對外關係를 새로이 策定하려는 外交交涉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새로운 外交關係를 設定하기 위하여 特別히 派遣된 外務省官吏의 面談은 姑捨하고 그들이 于先 呈納하려고 지니고 온 書契마저도 朝鮮朝 朝廷은 받아 드리지를 아니했다. 이와 같은 朝鮮朝의 一方의 拒絕로 朝·倭兩國關係는 거의 斷交狀態로 들어 갔으며 이와 같은 狀態에서 鎮國의 執權者였던 大院君이 물러나고 高宗의 親政이 시작되었다. 高宗의 親政以後에도 書契問題에 대한 朝鮮朝의 態度에는 根本적으로 變한 바가 없었다. 물론 政權을 擔當했던 力量이 一時에 交替됨으로써 對倭關係를 擔當했던 當路人物 및 職業官吏들이 一新되었으나 그것은 對倭關係의 責任如何에서가 아니고 다만 國內政局의 變

(80) 日省錄 高宗 6年 12月 13日條 對馬島主書契 改修呈納 參照。田保橋潔著 近代日鮮關係研究上 昭和 15年 中樞院版 pp. 151~166 參照。

(81) 即 高宗 7年 5月 倭館에 停泊했던 洋船에倭人이 5名 同乘한 것을 朝鮮朝에서는 洋을倭句 引紹介한 것으로 보아 甚한 危脅을 느껴 그 頓末을 清國에 杏文과倭에 書契까지 보내어 알리고 있었다。日省錄 高宗 7年 5月 12日條。

(82) 日省錄 高宗 7年 8月 25日條。

(83) 日省錄 高宗 9年 6月 7日條。

遷에 따른 政治勢力變動의 結果로써 나타났던 것이다<sup>(84)</sup>. 이것은 곧 韓國政治史의 展開過程에서 보아 高宗의 親政이 새로운 對外關係와 政治的 改革을 가져 올만한 劃期的 維新의 契機로써 成長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意味해 주는 것으로써 따라서 大院君 執政期의 書契의 受納拒否가 그의 單純한 鎮國政策의 結果만이 아니란 것을 말해 준다.

여하튼 高宗 親政으로 접어든 後 朝鮮朝의 對倭關係는 그 擔當人物들의 交替와 함께 多少 誠意있는 反應으로 나타났다. 即 三·四年前부터 斷絕狀態에 빠진 國交通信을妥結하기 위하여 그들의 要求內容을 다시 質問看取한 다음 그에 대한 政府로서의 措置를 그들에게 提示하고 있다. 그들의 要求는 첫째 一年前부터 가지고 온 書契를 받아 줄 것 둘째 書契를 다시 고쳐서 가져 오겠다는 것 세째 朝鮮朝에서 먼저 書契를 만들어 聘使를 시켜倭에 보내 줄 것 등이었다. 여기에 대하여 朝鮮朝의 朝廷은 첫째 條件에 대하여 年前에도 이미 받지 않았으니 이제 다시 받을 수 없다하여 大院君 執權時와 同一한 態度를 取하였으며 聘使入送問題는倭가 이미 書契를 改修해 올 뜻을 비쳤으니 별로 必要치 않으며 오직 改修한다는 條件은 받아 드릴 수 있다고回答하였다. 또 改修해온 結果를 보아 그 내용이 合當할 경우에는 다시 交隣의 舊交를 맺을 수 있으나 거기에 다시 들기 어려운 語句가 들어 있으면 다시 扈退하겠다는 자못 一貫된 自主性을 固守하고 있었다<sup>(85)</sup>. 그러나 그 翌年(1875年) 改修하여 다시 가지고 온倭書契에서도 그 問題는 如前히 繼續되었다. 即 그들이 가져 온 書契에는 “天子”나 “君而” 等의 文字는 빼었으나 아직도 外務省印이 찍혀 있고 書中에 大日本, 皇字(大文字로) 등을 비롯하여 容認할 수 없는 表現이 들어 있으며 原本 副本을 모두 眞諺(漢文 및倭文)을 섞어 使用하였으며 또 書契를 通譯들에게 보이기 앞서 擔當官吏와의 面談을 要求한다는 東萊府使의 報告를 받고 議政府는 곧 그것은 非但 條約問題가 아니고 實로 背反當한 일이니 後弊를 念慮하여 엄하게 防止할 것과 한편으로 府使로 하여금 그들을 餉宴으로 慰恤케 함으로써 懷柔의一面도 보이게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指示는 어찌까지나 書契에多少라도 違格이 있으면 退却시키라는 立場을前提로 하고 있었다<sup>(86)</sup>. 國王은 곧 重臣會議를 열어 이 問題를 討議시켰다. 여기서 나타난 反應을 살펴보면

領府事 李裕元은 「……오늘날 問題는 書契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있다……持正의 論으로 行한다면 權宜의 政이 不可能해지고 權宜의 政을 行한다면 持正의 論이 사라지게 된다. 邊鬪(外國과의 紛爭)의 緩急이 실로 여기에 달려 있다. 書契를 받아 드릴 경우 비록 姑息의 인 方途는 되지만 앞으로 닥쳐올 근심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다.」

(84) 釜山訓導 安東晙과 東萊府使 鄭顯德의 交替도 對倭關係의 責任을 물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雲邊人 清算이라는 立場에서 이루어진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日省錄 高宗 11年 6月 29日 安東晙拿來正法 參照.

(85) 日省錄 高宗 11年 8月 9日條 命倭書契改修以來. 田保橋潔著 近代日鮮關係研究上 前揭書 p. 349.

(86) 日省錄 高宗 12年 2月 5日條.

여기서는 이미 書契問題가 外交問題에서 더 나아가 國防上 安危問題로 擴大해석되고 있으며 從前까지 主張되어 오던 持正論(名分論) 못지 않게 權宜之政(現實政治)의 重要性도 考慮되고 있다. 즉 그가 名分과 權宜兩者中 어느 것도 擇하기 어렵다고 結論한 것은 결국 現實的事勢의 急迫이 名分論만을 主張할 수 없게한다는 意味인 것이다.

原任 領議政 金炳學은 「書契를 받지 않는 것은 그 몇개 語句 때문이다. …… 이제 그들이 사용한 稱謂의 駭妄함은 三百年來(倭와의 通交以來) 없는 일일 뿐 아니라 그 以前의 文牒에도 없던 일이다. 또한 그들이 宴饗時에도 전에 입던 衣服을 着用하지 않는다면 실로 그것은 後弊에 關係되는 일이다」 여기서는 書契不捧의 名分을 強調하여 비록 數三字의 語句나 그들이 입는 服裝의 問題이지만 그것이 가져올 後弊가 莫大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여기서 指摘된 後弊란 말할 것도 없이 正大한 것으로 信奉되는 傳統的 秩序를 變改함으로써 오게 될 文化意識의 弊害를 말하는 것이다.

判府事 洪淳穆은 「書契를 받아야 한다는 主張은 우리가 먼저 紛爭의 發端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며 받아서는 안된다는 主張은 格式에 이긋나는 것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약 받아 드리지 않았다해도 어찌 또 다른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 일은 邊情(國防)에 關係되는 것이니 매우 重大한 일이다」 여기서는 書契問題가 邊情의 問題에 關聯되기 때문에 매우深刻하다는 것을前提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挑戰해 올 倭勢力を 不安要素로 느끼고 있다.

判府事 朴珪壽「日本의 書契問題를 끌어오기 이제 8年이 되었다. …… 그 나라에서 皇帝, 또는 帝란 稱號를 쓴 것은 대개 國平王때부터 이어서 벌써 數千年이나 되었다. …… 그들이 이제 國制를 變更하고 隣好를 大修하려하는데 이제까지 받아 드려지지 않으니 반드시 憾恨을 느낄 것이고 그것은 生鬪(紛爭)을 가져 올 것이十分 염려된다. …… 받아 드린 후 나타 날 後弊는 그때 그때 막더라도 日下의 事端으로 彼此 區區하게 執言하고 있으니 실로 여기에 憂慮되는 바가 있다. ……」 그는倭에 대하여도 比較的 識見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 書契問題도 比較的 現實的 立場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主張은倭에 대한 客觀的 分析이나 維新政府가 要求하는 隣好가 지니는 새로운 歷史的 意味를 認識한데서 파기 보다는 外交國防上으로 물린 目前의 危急을 解決해야 한다는 直觀的 現實論이 앞서는 듯하다.

右議政 李最應<sup>(87)</sup> 「書契가 馬島를 거쳐 오지 않고 直接 外務省에서 온 것이나 交隣文字에 自尊大하는 稱號를 쓴 것은 받아 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馬島를 廢하고 官制를 變更하고 政令을 一新하였으니 그것은 交隣하는 마당에서 通好하려는 底意일 것이다. 그것은 隣國으로서 강제로 變改시킬 수 없는 것이다. …… 이제 다시 그 問題를 더 끌어 간다면 그것은 誠信의 道가 아니며 만약 隣國이 失信할 경우 그것은 곧 生鬪(紛爭)이 우려

(87) 李裕元, 李最應, 朴珪壽 등 三人은 그 主張과 態度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後日 修好條約贊成者로써 役割을 다했다.

된다.……」 그는 事態의 趨移를 現實的으로 分析하여 그것을 姑息的 立場에서 隣國의 道와 交隣의 信이라는 名分으로써 合理化시키고 있다.

右議政 金炳國 「書契는 一字一劃이라도 前規에서 벗어나면 即時 退却하는 것이 例이다. 지금 받아 드린다면 비록 目下에는 生繫의 念慮가 없을지 몰라도 받아드린 후에 있어 어려운 請들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것은 交隣事大에 關係되는 것이니十分 賽慎해야 한다.」 이것은 典形의인 名分論과 交隣國體에 대한 傳統的인 信念에서 나온 強硬한 反對論이다.

行知宗正卿 李承輔 「倭의 情形을 아직 據得치 못하고 있다. 經法으로 말하면 절대로 바로 그것을 받아 드릴 수 없고 權宜의 道를 쓴다면 앞으로의 일이十分 해야려진다.」 이것은倭의 態度를 의심하여 경계하는 입장이다. 즉 權宜의 道로써 받아드린다 해도 앞으로 닦쳐올倭의 黑心이 우려된다는 原則的으로 보아 反對論에 該當되는 主張이다.

行上護軍 金炳淮 「書契를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經이냐 權이냐 하는 問題이다. 저들倭의 情狀이 극히 알기 어렵다. 交隣하는 마당에서 마땅히 誠信을 보여야 하고 오직 事理에 따라야 한다.……」 이것도倭의 底意를 알 수 없으니 誠信과 事理대로 반하자는 警戒와 不安의 表示가 中心을 이룬다.

行上護軍 金炳德 「……從前의 條約을 이제 갑자기 어기니 결코 있을 수 없다. 저들나라에 變化가 있다해도 交隣에 失和를 가져 온다는 것은 『可曰否』할 것 까지도 없다.……」 이것은倭의 要求를 斷乎히 拒絕하는 不可論이다.

左參贊 朴齊寅 「倭의 狡猾한 情形은 限이 없으나 아직도 그 實狀을 據得하고 있지 못하다. 이제 갑자기 그들의 要求를 들어주어 앞으로 무엇이든 要求하면 된다는 習慣을 길러 주어서는 안된다.」 이것도倭에 대한 警戒를 中心으로 하는 不可論이다.<sup>(88)</sup>

以上과 같이 次對討論에서 나타난 意見을 綜合해 보면

첫째 于先 書契問題는 단순한 交隣節次上의 問題로서만 論議된 것이 아니고 한거름 더 나아가 國防上의 不安과 國家의 安危問題에 關聯된 深刻한 危機意識에서 評價되고 있다. 여기서 書契問題에 나타난 持正之論과 같은 名分論이나 不可論 등은 意識의 保守性이나 漠然한 觀念論으로 一方의으로만 評價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적어도 自己守護를 為한 徹底한 現實的 要求와 結合된 것이라 하겠다.

둘째로倭에 대한 不安은倭에 대한 正確한 知識이 缺如되었던 탓으로 해서 그 不安에 대한 對應도 自然히 具體的 方便으로 보다는 一方의인 自己主張의 名分論으로만 나타났다. 따라서 한결 같이 正經과 大道와 前例를 들어 書契不擇을 主張한 것은 적어도當時와 같이 貧弱한 國際關係 知識으로는 唯一한 論據가 될 수 밖에 없었다.

(88) 日省錄 高宗 12年 5月 10日 次對條.

## (二) 그에 대한 反應 一朝庭 및 在野—

以上과 같이 深刻한 國家安危問題에 結付되어 持正之論의 名分論으로 기울어졌던 重臣會議를 거쳐 나타난 朝廷의 政策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即 모든 書契形式과 儀式節次는 前規대로 해야 하겠기에 倭의 要求에 應할 수 없으며 여기에 根據하여 아래와 같은 세가지理由를 밝혀 보겠다.

① 書契가 對馬島를 통해서 오지 않고 直接 外務省에서 보내 온 것은 三百年來 처음 있는 일이며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첫째 理由이며

② 交隣文字에 謙恭의 稱號를 쓰지 않고 妄自尊大하였으니 그것이 받을 수 없는 둘째 理由이며

③ 宴饗을 베풀어 柔遠之德을 베풀려하나 모든 節次儀式을 前規대로 하지 않으니 그것이 받을 수 없는 세째 理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當時 朝廷이 내세운 形式的인 理由일 뿐 그根底에는倭의 要求에 대한 不安과 앞으로 닥아올 國防上의 安危에서 보다 深刻한 實際的인 自守防護의 問題가 中心的 理由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이와 같이 수년을 두고 얹혀 온 書契問題가 最高政策決議機關인 議政府의 焦急한 問題點으로 登場되고 또 國家安危에 影響을 미칠 重大事態로 進展되어 나가자 이것은 朝廷自體內의 問題로만 그치지 아니 했다. 여기에 當時 中間 「엘리트」 들의<sup>(89)</sup> 反應에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곧 書契問題의 重大性에 비추어 當時 宗社와 官人體制의 維持에 執着하고 있던 上流階層의 保守的 意識構造에서 부터 波及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前縣監 金炳星은 「그의 防禦之策上疏에서 “듣자하오니 倭虜들이 無端히 트집을 잡아 말을 건네며 우리를 試試해 보고 있읍니다. 여기서 所謂 書契를 받고 받지 않고 하는 것은 審且 慎한 重大問題입니다. ……壬辰·丁卯 두번에 걸친 事例로 이미 前鑑이 뚜렸합니다. 오늘날 倭皇이 妄自尊大하는 것은 足히 責備할 것이 못된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跳梁하는 대로 맡겨두어 陛下와 骨字란 稱號를 쓰게하여도 責備함이 없이 安然히 받을 수 있겠읍니까? …… 저들이 北京(淸政府)에 一字通告하지 않는 것은 어찌 일입니까? 그것으로 보아도 그들이 內面設心을 明確히 알 수 있습니다. 필경에는 生事を 免치 못하게 될 것이니 順然히 받아드려 가볍게 보이느니 보다는 正을 지켜 그 奸計를 잘라 없애는 것이 났읍니다. 이제 어지러움이 생기느냐 안생기느냐 하는 것은 書契의 棒·不棒에 있는 것이 아니고 機會의 大關이 義理의 正·不正에 있지않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時急한 任務는 오직 쓸만한 將帥를 求하고 草野의 賢人을 얻고 軍糧을 마련하고 隊伍를 整備하고 機器를 利롭게 하여 應變할 計策

(89) 當時의 mid-élite로는 朝廷의 官僚로 充員될 수 있던 上流階級中에서도 退職官僚와 在野儒林들을 들 수 있겠다.

을 圖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에는 汲汲하지 않고 다만 持正之論만으로써 高獨不觀을 삼아왔습니다.……」 그는 于先 書契問題를 그 捧·不捧의 問題가 아니고倭의 侵略底意에 의한 것으로 斷定하고 처음부터 義理의 正·不正에서가 아니라 그러한 侵略에 對備하기 위한 應變策을 講究하기 為한 現實的인 施政對備에서 論하고 있다. 即 기틀에 크게 關係하는 것이 義理의 正·不正에 있지 않다는 그의 主張은倭에 대한 不安의 急迫과 이미 對倭關係를 交隣의 義理를 떠난 純然한 힘의 力學關係로 해석하고 있음을 明示해 주고 있다<sup>(90)</sup>.

前縣監 洪鍾泰도 그의 上疏에서 「丙寅年 洋醜는 頑強의 賦들인 바……그들을 물리치신 舞干의 道와 衛正斥邪의 義는 그 누구가 殿下의 聖德을 崇仰치 않겠습니까?…… 이제 또한倭騷로 論할 것 같으면 書契란 名目으로 生蠻(트집)을 삼으려는 뜻이 分明합니다. 그들이 이미 生蠻할 意圖라면 어찌 이 書契一假만이 安危에 關係있는 일이겠습니까? 書契를 받어드린 後에 잊달아 難處한 일이 생기면 장차 어찌 措處하겠습니까?……지금 그것을 받지 않으면 지금은 或 念慮가 되지마는 뒤에는 危險이 없읍니다. 그러니 지금 危險하고 後에 危慮없는 것이 옳을 줄 알닙니다」<sup>(91)</sup>. 이 上疏도 書契를倭의 侵略底意에 連結시키고 있으며 그들의 要求를 들어주어 새르운 秩序로 通交한 다음에 올 被害를 前日 丙寅洋擾 以後의 衛正斥邪의 義를 들어 排擊하고 있다. 따라서 그 思想의 根底에는 傳統秩序를 中心으로 한 自守思想과 外夷를 排斥하려는 衛正斥邪思想이 들어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在野儒林들의 反應은 첫째倭가 意圖하고 있는 새로운 對外關係는 本質으로 朝鮮朝의 傳統秩序를 動搖시키려는 것으로써 그것은 國家安危에 直接 關聯하는 權限狀況으로 解석하였으며 둘째, 그와 같은 不意의 侵略을 斷乎히 排擊하기 위하여는 一戰不辭의 強硬한 對應을 하여야 하는 바, 그것은 一便으로 彻底한 對應策의 講究라는 現實政策의in 側面과 一便으로는 異族排斥을 위한 從來의 衛正斥邪思想의 強化라는 意識의in 側面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提示한 對應이란倭의 情形과 意圖에 대한 客觀的 知識과 正確한 疏通이 缺如되어 있었기에 항상自己周邊을 中心으로 解釋說明하려는 경향을 가졌으며 그 결과 그것은 새로운 講究와 새로운 主張을 導出시킬 만한 폭넓은 意識의 動搖나 變化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러나 同年 8月 所謂 雲揚號事件을 겪고 나서는 書契問題를 中心으로 한 朝鮮期의 態度는多少 그 경향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제까지 生蠻黑心이니 하여 漠然히 느껴 오던倭에 대한 不安이 一段 힘에 의한 그들의 實力行使를 現實的으로 體驗한데서 오는 것이

(90) 日省錄 高宗 12年 9月 3日條.

(91) 日省錄 高宗 12年 6月 14日條.

었다.

그것은 우선 朝廷의 廟黨(議政府)會議에서 부터 나타났다. 即 雲揚號事件 以後 8月 29日 萬慶殿에서 開催된 次對討議에서

左議政 李最應「……內修外攘은 모두 典學에 들어 있는 말대로하는 것이 진실로 合當합니다. 비록 兵利將勇하드라도 穀物이 없으면 防禦하기 困難합니다. 財用을 節的하는 것이 目下의 急務입니다<sup>(92)</sup>」. 여기서 朝廷의 態度는 具體的 防禦對策으로 그 焦點을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어 倭船來往에 대한 調察과 倭船和賣穀物禁止와 같은 對倭政策의 強化를 수반하였다.

또 同年 10月에는 國王이 直接 陳慰兼 進香使로 中國에 다녀 온 三使臣(正使 姜蘭馨, 副使 洪競周, 書狀官(姜齋)을 불러 倭情과 世界情勢에 대하여 下問하였다.

이 자리에서 正使 姜은 所謂 萬國公報中에 실려 있는 日本의 朝鮮侵略意圖에 대한記事를 上達하면서 이 新報를 보면 中國이 우리를 疑心하게 될 것은 물론 天下萬國이 이것을 實狀으로 알고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表現하였다. 이에 反하여 國王은 몸소 그記事內容을 親覽할 것과 그것을 廟堂에 一一히 報告하여 論議케 하라는 下命을 내렸다. 여기서 國王과 朝廷은 清國 皇城內에 들끓고 있다는 洋夷와 倭의 勢力에 대한 不安과 倭의 侵略陰謀가 中國大陸에 까지 뻗쳐 있음을 感知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對外關係에 對한 知識과 情報가 不正確하나마 第三國을 통해서 점차 朝廷의 엘리트들에게入手됨으로써 倭에 대한 政策決定의 基礎資料로 삼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同年 12月에는 亦是 奏清使로 中國에 다녀온 李裕元을 國王이 召見하여 中國과 倭의 情勢에 대하여 下問하였다. 이 자리에서 李裕元은 清의 兵部侍郎 繼格 潤陽將軍 崇實과의 談話內容을 奏達함으로써 當時 倭를 評價하는 朝·中 知識人們의 態度의一面을 보여 주고 있다. 即

崇實이 倭情을 묻자, 李裕元은 우리나라를 洋人보기를大洋禽獸와 같이 取扱하기 때문에相通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제 日本도 三百年間 通好해 오다가 갑자기 그 國俗을 變更하였기에 小邦(朝鮮)이 그 非理를 責諭하였으나 終來 그들이 듣지를 않는다. 이에 대하여 崇實은 「近來 日本이 西洋을 그대로 본받으니 크게 念慮된다. 朝宗舊制를 버리고 西洋만을 즐겨 본받으며 純全히 火砲만을 믿고 있으니 貴國은 當然히 防止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繼格도 「近來 日本이 泰西諸人들을 神明처럼 받드니 真實로 鄙陋한 일이다. 大人(李裕元)의 말이極히 옳다」 이러한 内容과 함께 또 李裕元은 上奏하기를 我國의 일을 皇太后(清國)에게 잘 말하였드니 太后도 자못 東國(朝鮮)의 일에 凉解하였으며 朝紳들 역시 모두 相愛之心을 가

(92) 日省錄 高宗 12年 8月 29日條.

지고 있더라고 敷衍하였다<sup>(93)</sup>.

以上을 綜合하여 볼 때 丙子修好條約 以前 7~8年에 걸친 書契問題로 인한 國內 知識人們의 反應을 보면 첫째 그 反應의 幅은 于先 그 書契問題에 關聯한 當路者와 極小數의 在野人們의 關心 속에만 局限되어 있었다. 그것은 當時 通信手段의 不備로 인한 問題性의 所在에 대한 傳達認識이 鈍하였던 理由도 있었으나 그것 보다는 提起된 問題에 대한 政權首腦部의 反應이 적어도 表面的으로는 받아 드릴 수 없다는 方向으로一致하고 있었기 때문에 贊反의 是非나 意識의 分裂로 因한 問題의 擴大가 國內의 方으로 일어 날 수 없었던 理由가 보다 重要視 됨다고 하겠다. 둘째 여기서 나타난 反應은 前規와 傳統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外國의 不當한 要求에 應할 수 없다는 保守的 自存意識의 中心을 이루고 이러한 自存自守意識은 衛正斥邪와 같은 傳統的 思想類型과 그 邊備 武備에 대한 典學的 理論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 따라서 이 過程에서는 아직도 知識人们的 意識을 根本的으로 動搖시킬 만한 契機가 發見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意識面에서는 不當하다고 느껴지는 國外的 要素의 挑戰으로 인하여 意識의 自守的 保守성이 一段 強化되는 方向으로 反應의 特徵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 第二節 修好條約의 成立과 그에 대한 反應

書契를 中心으로 했던 對外關係는 雲揚號 事件을 거치고 나서는 本格的인 修好條約妥結過程으로 접어 들었다. 그것은 우선 이제까지 집요하게 요구하여 오던 새로운 外交關係를 具體的으로 實踐妥結 짓기 위하여 紹密한 計劃下에서一方的으로 몰려온 倭의 特命使節의 來泊으로 벌어졌다.

### (一) 朝廷의 反應과 그 決定過程의 分析

高宗 12 年(1875 年) 陰 12 月<sup>(94)</sup> 이미 修好條約 草案을 携帶하고 倭의 正式使節로서 政府의 命을 받아 日本을 出發한一行은 同月 19 日 7 隻의 軍艦으로 東萊에 나타났다. 이것은 곧 東萊府使 洪裕昌의 狀啓로써 議政府에 報告되었다<sup>(95)</sup>. 이들倭船은 即時 江華島로 向하였다며 이들이 南海 앞바다 楓島에 나타났다는 問情狀啓가 다음 해 1月 3日 京畿監司 閔台鎬에 의하여 報告되었다<sup>(96)</sup>. 그러나 朝鮮朝 朝廷은 이와 같은 地方官의 狀啓報告에 의하여 서만이 아니고 이미 高宗 12 年 12 月初 東萊訓導 玄昔運을 통하여 올라온 倭 外務理事官의 廣津弘信의 口陳書에 依하여 倭의 特命全權辦理大臣 派遣內容을 알고 있었다<sup>(97)</sup>. 그 口陳書

(93) 日省錄 高宗 12 年 12 月 16 日條.

(94) 그 日字는 日本記錄에는 明治 9 年 1 月 6 日(高宗 12 年 12 月 初旬에 該當)로 되어 있다.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研究 上 朝鮮總督府 中樞院 昭和 15 年 京城 前揭書 p. 423. 또 高宗 13 年 1 月 3 日字 京畿監司 閔台鎬 狀啓中의 問答內容에는 「發船 在我曆 明治八年 一月 初旬 在貴國曆十二月念後也……」라 쓰여 있는데 그것은 明治九年 一月 初旬의 誤傳으로 생각된다. 日省錄 高宗 13 年 1 月 3 日字 閔台鎬 狀啓.

(95) 日省錄 高宗 12 年 1 月 2 日 東萊府使 狀啓.

(96) (註94) 京畿監司 狀啓.

(97) 口陳書는 明治 8 年 12 月 19 日 倭外務丞 廣津에 의하여 訓導 玄昔運에게 傳達되었으며 三日後인

內容은 書契問題와 雲揚號 事件으로 貴國의 心意所在를 疑心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兩國의 隣好로 보아 그 問題를 그대로 默過할 수 없다는 點, 그리하여 的確查問을 위하여 使節을 正式으로 派遣하며 江華島로 直行시키니 만약 거기서 接答치 않으면 장차 京城으로 直進케 하여 從前과 같은 遷延의 慣法을 容納치 않을 것이라는 點, 그러나 그것은 婚媾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好에 돌아가기 위한 것이며 다만 使事が 重大하기 때문에 兵船으로써 그들을 護衛하게 한 것은 不可避해서 한 것이라點 등을 들고 있다<sup>(98)</sup>.

이러한 内容은 當時 朝鮮朝 朝廷으로 보아서는 切急한 問罪談辦을 要求해 오는 것으로서 거기에 兵力까지 兼한 자못 威脅的인挑戰으로 밖에 느껴질 수 없었다. 또한 前記 東萊府使 狀啓는 그것과 함께 釜山港에 入港한 黑田이 倭館長代理 外務四等書記生 山元城祐長을 통하여 보낸 口陳書도 함께 至急瞻寫하여 政府에 進達하였다. 即 이 口陳書도 前日 廣津이豫通하였던 口陳內容과 똑같이 大臣이 出接치 않으면 京城에 直進한다는 자못一方의인 通告이었던 것이다<sup>(99)</sup>. 따라서 東萊府使는 그의 狀啓末尾에서 「書契一欵은 前後 公幹에서 이미 緜詳할 것인즉 從便改修할 것이지 오직 變向을 일삼아 감히 江華로 向한다 하니 갈수록 痛懷하여 邁情(國防)을 생각할 때 극히 疎忽하다」고 하여 邊備가 疏忽한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事態에 直面하여 政府는 우선 京畿沿岸에 滯留하고 있는 船追에 대하여 問情을 指示하는 한편 備禦應邊之策을 原任大臣政府堂上合同會議로써 빨리 商確할 것을 命하였다<sup>(100)</sup>. 그리고 이와 같은 備禦對策과 兼行하여 하는 수 없이 外交談辦에 臨할 朝廷의 代表를 任命하여 江華에 派遣했다. 即 判中樞府事 申棟(申觀洗)(前御營大將)을 大臣에 都總府副總管 尹滋承(前禮曹參判)을 副官에 그리고 弘文館副校理 洪大重을 從事官에 각각 補任差下하였다<sup>(101)</sup>. 이와 같은 接見大官의 任命은 議政府의 啓言에 따라 國王의 允許를 얻어 決定되었으며 이와 같은 接見官의 派送理由를 形式上으로는 「其柔遠의 道에 있어서 그 願함에 따라 한번 接話해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내세웠지만 그 内容에 있어서는 問情結果 接見을 要求하는 그들의一方의인 主張에 無策으로 應할 수 밖에 없었던 切急한 事情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接見場所나 接見節次를 編劃할 겨를도 없이 下直의 禮도 省略하고 接見大官을 現地에 急派했다<sup>(102)</sup>. 이것과 아울러 그들 兵船의 萬一의 事態에 對備하기 위하여 要所에 軍士配置도 下

21일에는 玄旨運으로 부터 그 謄本을 이미 政府에 進達되었음을 通告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日本의 受理與否는 政府의 下回를 기다려야 한다고 傳했다. 田保橋潔 前揭書 p. 431.

(98) 上揭書 p. 430 그 原本內容은 朝鮮交涉始末 卷三에 들어 있으며 朝鮮朝의 官纂文獻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99) 田保橋潔 前揭書 p. 436.

(100) 高宗 13年 1月 3日 (日省錄 同日字條 參照).

(101) 高宗 13年 1月 5日 (日省錄 同日字條 參照).

(102) 承政院日記 高13年 1月 5日條.

命하였다<sup>(103)</sup>. 이 段階에서만 하여도 朝鮮朝 政府는 倭側의 要求를 一分도 肯定的으로 受容하지 않았으며 完全한 敵對的 對備라는 次元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次元에서 「그들의 情形을 살펴보니 곁으로는 和好하는 듯하나 안으로는 祸를 감추고 있으며…… 그들의 請求에 應酬하려다가는 나라가 將次 疲弊하고 말 것이다…… 그들이 江華에 入城하였는데도 아직 背城一戰치 못하고 不先犯하는 것 만으로 姑息之計를 삼고 있다」는 江華留守 趙秉式의 哀切한 上疏에 國王은 「이미 修好로 해서 왔다하는데 먼저 厚撫로써 하는 것이 交隣誠信의 誼라고」 批答함으로써<sup>(104)</sup> 그들의 江華入城에 대하여도 政府는 慎重한 消極性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倭에 대한 否定的인 態度는 同月 20일에 열린 御前會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三百年 修好해온 마당에서 이제 書契事로써 여려날 끌어 오고 있으니 심히 알 수 없는 일이다. 政府는 그에 對한 停當之策을 講究하라」는 國王의 分付에 대하여

李裕元「臣等이 政府에 每日 모여 商確한지 오래입니다. 그들의 狡猾한 것으로 보아 歸順치 않을 듯합니다.」

金炳學「저들이 비록 修好하기 위하여 왔다하나 저들의 情狀으로 보아 修好가 아니고 特집입니다. 마침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洪淳穆「敵國外患이 어느 때는 없겠습니까? 진실로 朝廷의 處置가 옳아서 衆心이 成城하면 自然歸順케 될 것입니다.」

朴珪壽「저들이 修好한다 하면서 兵船을 帶來한 것은 그 情形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意外의 일이 벌어진다면 不可不 用兵할 수 밖에 없읍니다. 만약 三千里封疆이 內修外壞之方을 宜當히 하고 國富兵強의 效에 이르렀다면 저 보잘것 없는 섬나라가 감히 어찌 恐嚇을 慈行하겠습니까?……」<sup>(105)</sup>

以上의 反應을 綜合해 보면倭가 要求하는 修好를 徹底히 不信하고 이를 拒絕排擊키 위한 우리의 態度를前提로 하여 저들을 우리側 態度에 歸順케 한다는 어디까지나 修好通商에 대하여 否定的 態度를 代辯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 裏面에는 저들이 쉽게 歸順치 않을 것이라는데 대한 不安과 또 萬一의 事態에 用兵할 경우 그것을 敢行할만한 內修外壞과 國富兵強이 不備함에 대한 問題點들을 憂慮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憂慮는 오히려 逆으로 自初에 내세웠던 強硬한 斥退의 名分을 弱化시켰으며 그것은 後日 不得已 修好通商을 받아 드리게 했던 보다 現實的인 動機로 作用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미리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當時

(103) 當時 兵力配置狀況을 보면 幸州項……訓局步兵 1哨·御營步兵 1哨, (標下軍 30名御營中軍 梁柱台引率), 鹽倉項……訓局步兵 1哨, 禁營步兵 1哨, 標下軍 30名(禁衛中軍 申桶引率). \*여기 1哨는 軍士 124名 哨官 1名 將校 2名이었음. 承政院日記 高宗 13年 1月 5日條.

(104) 承政院日記 高宗 13年 1月 13日條 江華留守趙秉式上疏.

(105) 承政院日記 高宗 13年 1月 20日條 政府堂上引見.

會議內容에 대하여는 또한 書契問題나 通商要求에 대한 知識이 너무나도 薄弱하였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即當日引見會議에서 開陳된 官人엘리프들의 意見들은 모두 「其情叵測」(其情不可測)이라 하여 修好通商要求에 內包된 그들의 딴 底意를 漠然히 推測하였을 뿐 그 내용에 대한 具體的인 評價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國家安危에 直接的으로 有關한 敵國外患으로 修好要求가 認識되었다는 切急한 次元과 그것에 對備하기 위하여 論議된 政策討論의 内容과는 너무나도 懸隔한 狀況과 意識과의 差異가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反應意識의 遲鈍은 우선 當場 對倭問題에 대한 知識의 缺乏에 그 주된 理由를 歸着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修好通商要求에 대한 十三件 條項을 傳聞해들은 國王도 「十三件條項에 대하여는 아직 來報가 없어正確히 알 수 없으나 그 第一項에서 設館通商을 要求한다 하니 이미 倭館의 開市가 있는데 다시 設置할 必要가 무엇인가?」고 下問할 程度였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答이나 對應策으로서도 고작 「그들의 所請은 이미 開端叵測(不可測)한 것이라」는 것과 (洪淳穆)「國家가 維持되려면 名分과 法綱이 있어야 하며 名分이 바르고 法綱이 엄하면 비록 外憂가 있더라도 깊이 憂慮할 바는 못된다」는 것(李最應) 「오늘의 憂慮는 더 없이 큰 것이며 거기에 대한 備豫의 方法은 오직 財貨입니다.……公納延滯를 받아 들여中外의 儲蓄을 퉁튼히 해야 한다……는 것」(金炳國) 등인 바, 그것은 실로 傳統의 政治理論이나 支配理念에서 조금도 進步하지 않은 舊態依然한 意識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면 不過 10餘日後 修好通商을 電擊的으로 締結하게 하였던 主된 動機는 무엇이었을까? 同年 1月 24日, 議政府는 條規冊子 謄本을 받아 檢討하는 자리에서 「이제 修好하려는 마당에서 그들의 通商을 拒絕할 必要는 없다. 修好節次를 不可不 商確해야 할 것인 바, 우선 이러한 뜻을 接見大官에게 알릴 것」을<sup>(106)</sup> 議決하여 國王의 允許를 드디어 받았다. 이것은 이미 修好通商을 받아 드린다는 原則에 合意한 重要한 議決이었다. 또한 그와 같은 政府의 議決內容을 現地 接見大官에게 通告한 그翌日(1月 25日)에는 政府에서 다시 「條規等諸般講定을 廟堂에 煩거롭게 公移하여 日字를 遷延할 것이 아니라 便民利國하다고 생각되면 專決하는 것이 可하다」고 通告함으로써 修好條約 締結에 따른 모든 節次上の 過程을 現地 大官에게 委任하여 速決케 했다<sup>(107)</sup>.

한편 專決委任을 받은 大官 申櫟은 「此時此任이 莫重하기가 比할데 없는바, 臣과 같은 常儒에게 委任한다는 것은 萬不當하다」고 그에 대한 再考를 上疏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國王은直接 批答으로 「今番倭使가 온 것은 비록 달로는 修好라고 하나 그 實은 國家安危에 有關한 것이기 때문에 朝廷의 論議가 모두 그것 아니면 안되겠다는 것(修好條約 締結)이니 그에게

(106) 承政院日記 高宗 13年 1月 24日條.

(107) 承政院日記 高宗 13年 1月 25日條.

한 臨機應變으로 不得已 委任專管토록한 것이다」라고 確言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아울러 「… …(그러는 사이에) 廟堂에 覆議하여 籤度協議하여 그일을 이미 끝냈더라면 어찌 國家의 幸이 아니었겠느냐? ……」라고 附言함으로써 그에 대한 早速한 妥結을 다시 한번 促求하고 있斗<sup>(108)</sup>.

그리하여 1月 21日 現地 大官에 의하여 傳達報告되었던 條規冊子謄本은 드디어 1月 30日 國王에 의하여 批准되어 現地大官에게 다시 下達되었으며 그것은 다음 달 初三日에<sup>(109)</sup> 兩國使節間에 署名調印되어 交換됨으로써 丙子修好條約은 歷史的인 締結의 고비를 넘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條規冊子가 報告되어 (1月 21日) 廟堂稟處에 붙여지고 그 政府討議결과 通商原則이 合意決定되어 現在 大官에게 通告되고 (1月 24日) 締結節次에 따른 모든 決定이 現在 大官에게 委任되어 그 速決이 促求되고 (1月 25日) 드디어 條規冊子가 批准되어 下達되기 (1月 30日) 까지 實로 10月 間에 일어났던 一聯의 政策決定過程에서 나타난 趨向은 바로 1月 20日 政府堂上 會議時까지만 하여도 大部分이 否定的 態度로 그들을 排擊하려던 意識形態로 보아서는 도저히 一應 說明될 수 없는 너무도 큰 事態의 變轉이 있었다 하겠다. 그러면 當時 修好條約을 받아 드리게 했던 政策決定過程의 肯定的 要素는 무엇이었을까? 이 問題에 答하기 위하여 우리가 當時 「엘리트」들의 價值體系에서 合理的인 進步過程이나 그것에 基盤한 意識의 變動을 도저히 찾아 보기 힘들다면<sup>(110)</sup> 우리는 一段 當時 開港問題에 影響을 미칠 수 있었던 狀況의 要因에서 그것을 說明치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첫째는 權力이란 社會的 價值를 中心으로 한 國內政治의 狀況을 들 수 있다. 癸酉年 (1873年) 大院君의 没落은 政治權力構造上의 何等의 變化도 없이 當時 執權 「엘리트」를 完全히 交替시킨 소리 없는 政變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새로이 權座를 擔當하게 된 새로운 權力階層은 權力의 正統性形成을 위하여 적어도 지난 政權의 政策에 대한 批判과 懐疑만은 不可避하였다<sup>(111)</sup>. 그러한 懐疑의 첫번째 對象이 大院君에 의한 鎮國政策이었고 그 結果로 눈앞에 닦아온 書契問題가 再檢討된 것이다. 여기서 書契問題의 解決을 통한 現實政局의 安定이나 前政權의 批判檢討에서 求하려는 새로운 權力基盤의 構築은 모두 權力이라는 새로운 價值를 獲得한 權力 엘리트들이 가지는 保守的 動機의 產物이었던 것이다.

(108) 承政院日記 高宗 13年 1月 29日條.

(109) 日省錄 高宗 13年 2月 5日條 副官 尹滋承狀啓에 그 日字가 明示.

(110) 當時 傳統의 價值體系를 우선 專制王朝秩序에 基盤을 두는 朱子學의 儒教思想이라 한다면 적어도 當時 修好條約을 推進하였던 極少數 「엘리트」들까지도 그러한 基盤에서 脫皮한 如何한 主張이나 혼적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 開港推進 「엘리트」들의 行態는 결국은 그와 같은 傳統의 價值秩序에 變動을 초래치 않는 範圍內에서의 一種의 保守的 反應으로 밖에 說明될 수 없다.

(111) 黃琰 前揭書 甲戌年條.

이와 같은 國內的 權力狀況의 要求로 생긴 對倭關係에 대한 一聯의 友好的 傾向은 이미 權座를 물려 받은 直後부터 나타났다. 그것은 우선 東萊府 對倭交涉狀況을 檢討하기 위한 按覈使의 派遣으로 나타났으며(高宗 11年 1月 30日)<sup>(112)</sup> 同年 6月 23日 清禮部로 부터 온 總理衙門의 密咨(臺灣駐屯 日軍 5000 名의 朝鮮征伐 可能性) 通報로 빚어진 不安意識을 契機로 그와 같은 友好的 關心은 더욱 具體化되었다. 即 對倭關係에 대한 責任을 물어 慶尙監司 金世鎬를 講罷시키고, 前東萊府使 鄭顯德을 流配보냈으며(高宗 11年 11月 3日) 또 譯官訓導 安東駿을 義禁府에 拿來하여 嚴罰하였다(高宗 11年 9月 8日)<sup>(113)</sup>. 그리고 그와 같은 對倭關係 改新의 結果를 當時의 戚臣 趙寧夏의 私信에 依하여 倭公館長 森山茂에게 通告하였다(高宗 11年 9月 22日)<sup>(114)</sup>.

한편 이와 같은 새로운 權力 엘리트들에 의한 對倭 友好的 政策의 決定方向은 또한 當時의 重要한 對外關係이었던 對中國關係로부터 적지 않은 影響을 받았다. 于先 그 첫째는 앞에서도 言及한 바 있는 高宗 11年 6月 24日 條清總理衙門의 密咨이었다. 그 密咨의 內容은 當時 臺灣에 駐屯한 日軍 5000 名이 臺灣問題가 解決되면 곧 朝鮮에 出征할 것인 바, 여기에는 美·佛도 함께 侵攻할지 모르니 格別 防禦에 힘쓰라는 은근한 通告였다<sup>(115)</sup>.勿論 이 密咨의 內容에서는 그들과 和好하라는 勸誘는 없었으나 그 密咨의 結果는 當時 朝鮮朝 國內의 政治狀況으로는 倭에 대한 和好的 傾向을 더욱 助長케했던 것만은 틀림없는 事實이었다. 다음으로는 朝鮮朝의 對倭和好를 直接 勸誘하는 清의 公式的 態度가 나타났으니 高宗 12年(1875年) 雲揚號 事件의 責任을 抗議받은 清의 李鴻章은 朝鮮朝의 奏清使 李裕元을 通하여 (12.8.1. 離陞~12.12.19日 復命) 日本의 要求를 平和的으로 解決하라는 曲盡한 勸告를 보내 왔다<sup>(116)</sup>. 그것은 當時 日本과의 開闢을 원치 않는 清朝廷의 態度와 새로운 國際情勢로 보아 孤立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確信한 李鴻章의 個人的 識見이 綜合되어 나타났던 것으로 解釋된다<sup>(117)</sup>. 그리고 이와 같은 態度의 結果는 高宗 13年 2月 對倭 修好條約締結에는 決定的인 影響을 미쳤으니 그것이 곧 高宗 13年 1月 22日 世子冊封을 위한 清勅使 遷使行事에서 있었던 倭船問題에 대한 問答이었다. 즉 倭船問題에 대한 勅使의 意見을 묻는 國王의 質問에 遠接使 鄭世基는 「勅使가 義州에서 都京禮部 咨文을 받았는데 그 咨文에는 總理衙門

(112) 田保橋潔 前揭書 p. 332.

(113) 日省錄 高宗 11年 6月 29日條.

(114) 田保橋潔 前揭書 pp. 334~335. 거기에는 朝鮮交涉始末卷三에서 書函內容을 引用하였는 바 이 기서는 省略하겠다.

(115) 啓下杏文卷三 同治 13年 6月 27日條. 龍潮聞錄卷二十一.

(116) 嘉梧叢略 書 手譜三.

(117) 그와 같은 李鴻章의 見解는 그 後에도 積極 없이 繼續되었고 그것은 列國開化勸導策으로 나타났다. 歷史學報 17, 18合輯. 權錫奉, 「領選使行에 關한 考察」 1962. 6 pp. 277~312. 靑丘學叢 21號 昭和 10年 8月 京城 田保橋潔 “壬午政變の研究” pp. 12~13.

이 朝鮮修好事로 日本使臣이 장차 兩國에 出往한다 하니 相議善處하여不失和氣하라는」<sup>(118)</sup> 内容이었다고 上奏하였다. 이제 朝廷은 19日 現地 大官 申撫으로부터 條規冊子 十三款을 받고 거기에 대한 政策決定을 내리지 못하고 徘徊할 때이며 마치 勅使近接後 2日後인 24일에 原則的인 受諾決定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當時 清朝咨文의 内容이 修好條規締結에 미친 影響이 不少하였음을 能히 짐작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國內의 權力狀況의 要求와 對外關係의 現實의 理由에 의하여 朝鮮朝의 廣範圍한 政治意識의 反應을 外面한 채 極少數의 權力「엘리뜨」들만에 의하여 이루어진 修好通商條約이었기 때문에 開港以後에도 여의가지 形態의 反撥과 葛藤이 編綿히 繼續되었다. 그것은 當時 새로운 國際秩序로써의 修好通商이 國내의 새로운 改革勢力이나 反抗「엘리뜨」階層을 中心으로 하는 새로운 歷史의 推進勢力에 의하여 受容되지 못하고 舊態依然한 既存「엘리뜨」들의 現實의 安定이라는 權力의 保守的性格에서 逆說의으로 받아 들여졌다는 歷史의 아이러니가 져야할 必然的 陣痛이기도 하였다<sup>(119)</sup>. 그러나 이와 같이 오히려 保守的 次元에서 이루어진 開港이라 하드라도 國家的 安危에 대한 執念과 中國을 통하여 얻은 國際情勢에 대한 眼目으로<sup>(120)</sup> 武備를 中心으로 하는 一聯의 富國強兵에의 政策의 試圖가 끊임 없이 繼續되어 왔다<sup>(121)</sup>.

## (二) 在野 mid-élite 들의 反應(反對上疏)

雲揚號 事件以後 倭의 物理的挑戰을 體驗하고 또 最高官人「엘리뜨」들에 의한 對倭 和好的 態度가 무르익어가자 從前까지 一部 政府當路者들의 政策問題로서만 論議되던 書契問題은 그範圍가 擴大되어 一般 在野「엘리뜨」들의 論議對象으로 되어져 갔다. 그들은 主로 巷間의 소문 같은 不正確하고 遲遲하며 斷片의 通信를 통하여 그에 대한 情報에 겨우 接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通信手段에 의해서 나마 이미 修好通商에 대한 問題意識이 在野

(118) 日省錄 高宗 13年 1月 22日條.

(119) 이와 같은 當時 開港推進勢力과 一般的인 政治意識間의 乖離는 다음과 같은 事實에서도 뚜렷히 나타난다.

① 前啓者에 대한 上疏禁止(政院日記 高宗 13年 1月 3日條).

② 1月 24日 修好通商原則을決定한 以後 그速決을 위하여 現在 大官에게 모든 講修節次를 專管委任하였던 것(그것은 巷間의 異論을 피하기 위해서였다)(政院日記 高宗 13年 1月 25日條).

③ 條約締結後 當路官人們의 辭職疏(江華留守趙秉式, 行吏曹判書 閔奎鎬, 時原任大臣等)(政院日記 高宗 13年 2月 5日條).

④ 이리한 辭職疏(工理由는 峻發嚴斥)이라 하여 條約締結에 대한 責任에 대한 國王의 批答(今番事 不過明好而已…)(政院日記 高宗 13年 2月 5日條).

⑤ 그 후에 내렸던 屢次의 斥邪編音(國內輿論을 撫摩하기 위하여).

(120) 高宗이 成年이 되어 감에 따라 이미 王申(高 9年)경부터는 各種使行을 통한 中國과 列國의 情勢에 대한 問情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開港後에는 더욱 具體적으로 進行되고 있었다. 日省錄 高宗 12年～17年間의 各種使行召見條, 田保橋潔 前揭書 pp. 294～300.

(121) 그후에 있었던 領選使一行이나 神士遊覽團과 같은 것을 推進하였던 것도 亦是 國王을 中心으로 한 몇몇 top level의 官人 élite였다.

儒林들에게 遍滿되었다는 것은 結局 그로 因한 不安과 問題點이 그들 在野「엘리뜨」들의 意識狀況에 幅闊은 影響을 미쳤음을 意味한다. 따라서 그들의 意識上의 動搖는 活潑한 言路를 동하여(當時로는 上疏活動) 展開되었는 바, 그와 같은 一聯의 反應은 當時 開港을 中心으로 한 朝鮮朝의 政策決定過程에 包括的이기도 唯一한 投入機能으로 作用하였던 것이다.

倭使 黒田一行이 이미 京畿海岸에 留泊하고 있을 무렵 前正言 崔炳大는 時務上疏에서 「畿沿과 駕海에 異船이 碩泊하고 있는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廟堂에선 아무런 對應策도 命하지 않고 있으니 그것이 無事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서 그러합니까 人情이 沸悶하고 巷議가 喧籍하니 宗社와 生靈을 생각하여 治道를 講明하고 備禦를 商確하라……」<sup>(122)</sup>는 다시 말하여 倭船 來泊에 따른不安과 그에 대한 政府의 對應을 促求하였다. 이것은 條約內容에 言及함이 없이 異船威脅에 대한 直觀的인 危機意識에서 나타난 反應이었다.

#### 또 前司諫 張皓根도

「臭類의 匪賊들이 沁都(江華)에 下陸하였으니……幾百年 保障訓練한 땅에 開門納賊하여 그 跳躍하는대로 맡겨 두니 이 어찌한 일입니까? 저들이 約束講定하려는 十三條는 더욱 不可測합니다. 이러한 마당에 君臣上下가 마땅히 義理로써 誓死攢斥해야 하는데……廷臣 가운데 或 反對하는 이가 있으면 罷免을 當하게 되어 忠諫의 길이 막하고 있으며……빨리 哀痛의 紿音을 내리어 軍民을 激起시키어 背城一戰하여 轉屬爲安토록 해달라」<sup>(123)</sup>는 上疏를 올리었다. 여기에는 十三條 條約內容에 대하여도 言及하였으며 條約을 完全히 國家의 危機로 보아 이를 背城一戰으로 물리칠 것을 主張하고 있다. 또 여기에는 反對하는 廷臣이 罷免을 當하여 忠諫의 言路가 막하고 있다고 指摘함으로써 當時 朝廷의 修好通商의 要求에 應接하려 온 태度를 隱然히 批難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修好條約에 대한 斥和擊退의 態度나 主張은 當時 在野士林의 代表의 人物인 崔益鉉(號 勉菴, 前戶曹參判)의 上疏에 이르러서는 그 名分과 理論이 거의 整理되어 強硬하게 提示되고 있다. 即 그가 도끼를 메고 決死的 態度로 올린 斥和議疏에서 그는 修好條約 不可論을 5 가지로 提示하고 있는 바, 이를 要約·敘述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講和는 日本의 武力的 強壓에 屈從하는 것이다. 朝鮮이 武備를 갖추지 못하여 이 형듯 脆弱으로 講和에 應한다는 것은 目前의 始態에 不過한 것이니 앞으로 要求하여 올 日本의 無限한 貪慾을 어떻게 當해낼 것인가?

(2) 日本의 物貨는 모두가 「淫奢奇玩」한 것이요, 朝鮮의 物貨는 「民命所寄」로 有限한 것이다. 이같은 奢侈品과 必需品의 交易이 行해자면 數年못가서 朝鮮의 國土는 支撐해 볼수 없게 된다.

(122) 日省錄 高宗 13年 1月 3日條.

(123) 日省錄 高宗 13年 1月 23日條.

(3) 日本은 倭라고 하지만 그 實은 洋賊과 다름이 없다. 一段 講和가 成立되면 邪學(天主教)이 傳授되어 一國에 遍滿하게 될 것이다.

(4) 日本人이 下陸・往來하게 된다치면 이미 講和를 했으므로 이를 泯止할 수 없겠는 바 그것을 그대로 放任해 두면 財產・婦女의 凍奪을 慢行하게 될 것이다.

(5) 講和를 主唱하는 者들은 丙子胡亂 當時의 講和의 例를 引證할 것이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는 그것과 다르다. 日本은 貨色만을 알고 人理를 모르는 禽獸이다. 禽獸와 講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sup>(124)</sup>.

그가 提示한 名分은 西洋을 禽獸로 보고 天主敎를 異端視하여 倭洋을 一體로 보는 傳統的倫理觀에 立脚하고 있다. 이런 點에서는 당시 修好反對立場에서 있던 大部分의 儒林들의 共通되는 名分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倫理的 名分論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和議의 性格과 그 結果에 대한 상당히 銳利한 現實論의 批判을 더욱 主眼으로 展開시키고 있는 것이다. 即 그것은 現實的으로 威脅的手段에 強迫當하고 있는 條約締結의 性格, 그리고 그 結果가 招來할 連續的인 日本勢力의 侵透交易의 招來할 經濟生活의 破綻・財貨・婦女等의 罷奪에 의한 日常生活凡心의 隘落 등 實로 當時 朝鮮朝가 處해 있던 狀況에 대한 政治的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各部面에 걸친 多樣한 評價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또한 새로이 物質文明만으로 強化된 日本의 資本主義의 侵略에 對應하여 民族의 未來的인 自己生活圈을 保存하기 위한 主體的인 任務가 傳統的 倫理觀과 現實的 洞察力を 兼備한 當時의 mid-elite인 儒學者에 의하여 發揮되었던 것으로 解釋될 수 있다<sup>(125)</sup>. 이러한 斥和斥倭를 前提로 하는 立場은 또한 右通禮 吳尙鉉의 斥邪上疏의 경우에서는 主로 衛正斥邪라는 思想의 立場에서 強調되어지고 있었다. 즉 그는 正學을 衛하고 邪道를 斥하여…… 洋夷侵犯 主和賣國을 子孫萬代에 垂戒한 것은 八域臣民이 모두 敬仰하는 바이다……交易의 先王의 遺制인데도 不拘하고 이제 洋物을 가지고 互市한즉 저들의 無父無君의 邪敎가 隨時로 潛入하게 되어 人類는 禽獸로 빠지게 된다.……그러하오니 殿下는 邪類를 嚴斥하고 和應의 計略이 나타날 수 없게 하라는 것을 主張하였다<sup>(126)</sup>. 이와 같은 一聯의 在野反對上疏에 대하여 高宗은 直接 教旨를 내려 「制倭는 어디까지나 制倭이고 斥洋은 어디까지나 斥洋인즉 이제 倭船이 온 것도 어찌 洋과 合同한 것이라고 確實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sup>(127)</sup>라고 이를 물리치는 一方이 反對論者들을 모두 政府方針에 拒逆하는 者들이라고 하여 處刑하였다. 그것은 다름

(124) 日省錄 高宗 13年 1月 23日條.

(125) 韓治勸 “開港當時의 危機意識과 開化思想” 韓國史研究 2, 1968, 12, 韓國史研究會 pp. 117~118.  
旗田巍 “近代に於ける朝鮮人の日本觀—衛正斥邪論を中心にして”—「思想」520號(1967, 10).  
洪淳昶 “勉菴崔益鉉의 衛正斥邪思想”

(126) 日省錄 高宗 13年 1月 27日條.

(127) 日省錄 高宗 13年 1月 27日條.

아닌 日本과의 修好가 어테까지나 三百年의 舊好를 繼好하려는 것으로써 그것이 곧 通洋이 아니란 점을 強調하는 政府의 態度에서 나온 것이며 이와 같이 修好와 斥洋을 並行시키려는 政府의 態度와 그 意見을 같이하는 在野의 上疏도 있었다. 즉 高宗 13年 1月 副護軍 尹致賢은 「……朝野가 驚擾하게 된 根本은 倭洋二字와 和戰兩端인 바, 이제 저들 倭가 洋과 相連되었다는 소문이 있다해도 그들이 이미 倭使라 稱하고 왔으니 倭使로 對하는 것이 可하다. ……倭는 三百年 交隣之國이며 這間 7·8年間 書契를 가지고 呈納하려 努力해오다가 이제 먼저 오겠다는 通知를 하고 縱沿에 來泊하였으니 그 柔遠의 道理로 볼 때 禮로써 接見하고 書契를 接受하여 許할만한 것으면 許하고 물리칠 것으면 물리치는 것이 大經法이라」<sup>(128)</sup>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倭에 대한 「先加兵」을 경계하여 和接을 主張한 그는 「비록 設關行商을 한다해도 科條만 嚴立하여 그들로 하여금 違越할 수 없게하면 이는 萊館開市나 마찬가지이며 모든 洋物의 交易을 勿許하면 저들은 저 우리는 우리……따라서 밖으로는倭와의 繼好라 하나 그 内容은 洋의 邪를 充實히 물리치는 것이라」고 하여 繼好의 立場을 오히려 斥洋斥邪의 根據에서 合理化시키고 있다. 또 「倭使」의 入境으로 一國이 驚然한 것은 實로 危機에 逢着한 것이며 이때 晉紳의 上疏가 接踵함은 진실로 「憂國直諫」의 뜻에서 나온 것임으로 이 같은 言路를 杜塞해서는 안된다고 한 것과 또 오늘날 朝野에서 衣服汁物이 洋國에서 온 것이 많이 互相誇美하는 것은 實로 亡國의 根本이기 때문에 만약 痛禁치 않는다면 三千里禮義之邦이 반드시 禽獸之域으로 될 것이라고 警戒한 것으로 보아 그도 다른 在野 上疏者들이나 마찬가지로倭船으로 인한 危機意識과 傳統秩序를 保守하기 위한 斥洋思想에 根本을 두고 있었음이 分明하며 다만 그와 같은 自存保守思想을 우선 現實的인 和好의 方向에서 求하려 하였다는 點에서 和戰兩端의 差異만을 우리는 그에게서 認定할 수 있겠다. 이러한 思想과 意識形態는 적어도 當時 修好를 推進하려 했던 國王을 中心으로 한 官人엘리트의 경우에서도 同一하였다. 즉 이러한 尹致賢의 上疏에 國王은 積極同意하여 「與倭續好 匪洋伊和」야 말로 切要한 말이며 斥邪論의 布告, 洋貨禁售論도 不易之論이라 하여 嘉批를 내렸던 것이다<sup>(129)</sup>. 그러나 國王도 日兵이 上陸·入京하는 마당에서 「비록 修好라고 하나 國家安危에 關係되는 바 없지 않다」고 하여倭에 대한 警戒心을 버릴 수는 없었다.

이러한 點에서 斥洋斥邪論이라는 基本思想과倭의 要求에 대한 危機意識은 적어도 當時 國王에 있어서나 官人 엘리트에 있어서나 또 在野 儒林들의 경우에 있어서나 모두 一致되는 思惟의 基本的 方向이었다. 따라서 修好에 대하여 肯定·否定兩方向에서 나타난 反應은 모두 그와 같이 同一한 意識基盤에서 出發한 것이기에 그에 대한 理論이나 主張도 모두 傳統的인 自己秩序를 確保하기 위한 保守的 價值體系에서 展開되고 있었다. 여기에서 暫定的으

(128) 日省錄 高宗 13年 1月 28日條.

(129) 日省錄 高宗 13年 1月 28日條.

로 整理될 수 있는 結論은 開港反對를 主張하는 在野의 反應은 洋化된 倭를 排斥하려는 衛正斥邪思想을 基盤으로 하여 挑戰으로 因한 危機意識을 現實的 直觀과 結付시키면서 強力한 自守排他의 意識으로 나타났으며 他方으로 修好를 推進하려는 少數 官人 엘리뜨들은 前者와 同一한 意識基盤에 根據하면서도 「與倭續好 匪洋伊和」란 名目으로 이를 合理化시키려는 弱한 觀念的 名分論만을 여기에 附加上켰을 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修好名分論은 앞에서도 指摘하였듯이 當時의 國內的인 權力狀況과 對外關係라는 現實的인 要因의 作用이 絶對的이었음을 附言할 수 있겠다.

### 第三節 修文條約 成立以後의 反應

斥洋斥邪라는 傳統的 意識構造 바탕 위에서 權力安定과 對外勢力との 妥協이라는 姑息的 解決策으로써 模索되었던 修好條約의 締結은 條約內容에 대한 具體的 分析이나 앞으로의 對應策에 대한 綿密한 立案도 없이 條約自體의 成立만을 合理化하여 이것을 事實化하는 形式과 名分論의 立場만 強調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具體的 條約締結過程이 倭를 相對로 한 條約內容에 대한 實利的 討論談判의 方向에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 條約의 不利를 論하는 國內的 反撥을 撫摩鎮定시키는 觀念的 名分論의 方向에서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따라서 修好條約의 具體的 内容이 前日의 交隣秩序와 根本的으로 그 規와 質을 달리하는 不平等條約이었음에도 廟堂에서는 그 十三款 内容에 대하여 아무런 批判修正도 提議치 않았으며<sup>(130)</sup> 따라서 그 推進勢力이 내세웠던 「與倭續好 匪洋伊和」란 標榜도 사실은 具體的 現實과는 距離가 먼 一方的 合理化論理에 不過하였다<sup>(131)</sup>.

이와 같이 在野의 輿論에도 무릅쓰고 또 具體的인 内容을 主體的으로 提示함이 없이 서둘러서 決行되었던 條約締結이 그 以後의 實踐過程에서 수많은 矛盾과 葛藤을 露呈하지 않으면 안되었음을 너무나도 當然한 일이었다. 이로 인하여 잠시 潛在하였던 反對意識狀況이 活潑히 再燃하였고 그 條約 自體가 內包하였던 矛盾된 問題性들이 그 實現過程에서 들어나 여러 가지 後遺症을 惹起한 것이다.

#### 1. 條約實踐에 否定的인 反應 —衛正斥邪思想의 漸高—

開港以後 倭에 대한 警戒와 洋에 대한 異端視는 漸次 洋貨流入이 增加되어 감에 따라 比例의으로 漸高되어 갔으며 그것은 倭洋 一體라는 意識속에 主로 邊備에 대한 對備와 洋禁에 대한 主張으로 나타났다.

高宗 13 年 10 月 前注書 權鳳煥은 「邊備가 소홀하여 무슨 事變이 일어날지 모르겠으며 이제 저倭虜가 近者에 洋賊과 腸吐相連하여 蠱動하고 있으니…… 急히 兵器를 修理하여 臨戰

(130) 政院日記 高宗 13年 1月 20條. 19日 13款 條約冊子를 받은 後 열렸던 時原任大臣會議內容 參照.

(131) 韓治幼 前揭論文 p. 119.

制勝의 具를 갖추라는」<sup>(132)</sup> 上疏를 올리어 開港當時에 있었던 것과 같은 倭洋一體에 대한 警戒를 邊備面에서 主張하였으며 또 14年 3月에는 副護軍 李敦禹는 「西洋產物이 國中에 魏漫하니 異國產物을 禁斷할 것」을 上疏함으로써 前者와 같은 立場을 洋貨面에서 警戒하였다. 이와 같은 兩者的 主張은 高宗 16年 1月 執義 権鍾祿의 上疏에서 다시 集約되고 있다. 즉 「我國의 物產이 나지 않는 것이 없어 異國에서 求할 것이 없는 터 中國·倭國·洋國의 奇奇怪怪한 無用之物이 우리 物貨를 衰減케 하는 큰 구멍을 벌려 그 奢侈를 더하게 하고 있으니 可謂 雪上加霜이라 하겠다. 이 어찌 크게 禁하지 않겠는가? 近日에 倭醜가 通商이라 일컬어 해마다 往來가 빈번하다……」고 主張하였다<sup>(133)</sup>. 또한 이와 같은 通商에 대한 否定的 態度는 德源開港과 같은 具體的인 經過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高宗 16年 5月 副護軍 金斗淵은 그의 斥倭上疏에서 「저들이 開港을 要求하는 元山은 北道咽喉이며……또한 洋과 俄가倭에 뒤이어 開市를 請해 오면 장차 무슨 말로써 拒絕하겠으며…… 이제 만약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 住接케 한다면 水陸의 道가梗塞되고 南北의 產이 阻絕될 것이니 北道人民들은 무엇을 費하여 살겠는가? 또한 邪學이 燥蔓한 가운데에도 아직까지 이 北道만이 乾淨을 保存해 왔는데 一段開港이 되고난 후에는 그 弊端이 없을 것을 保障할 수 없다」<sup>(134)</sup>고 하여 開港通商이 가져다 줄 弊害를 物貨와 邪學兩面에서 指摘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態度는 仁川開港을 알두고 그것을 不得已 許諾하기로 決定한 朝議에 不滿을 품고 올렸던 領府事 李裕元의 疏論倭事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sup>(135)</sup>. 이와같이 修好條約締結에 姉息의인 和好態度를 取하였던 官人の top élite 李裕元이 仁川開港을 反對하였다는 것은 그가 지적 하였듯이 「講修의 窒碍로해서 無窮한 근심을 염두 되었다」는 體驗의으로 느끼는 深刻한 危機意識 때문이었다 하겠으며 그것은 또한 그만큼 在野輿論이 開港의 實踐過程에서 否定的으로 高潮되어 갔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傾向은 丙子修好條約以後 거의 公的인 性格을 띠고 勸誘해 오는 清政府의 (主로 北洋大臣 李鴻章이 中心) 影響과 近代的新兵器의 製造와 軍制改編等에서 부터 改革에의 意欲을 가지고 있던 國王中心의 몇몇 最高官人 엘리트의 國內的 推進要因에 의하여 점차 開放的 政策路線이 具體化되어 감에 따라 正比例의으로 激仰되어 갔다. 即 前者は 「親清聯美의 開放外交를 具體的으로 說得勸誘해 오는 李鴻章 中心의 清政府로부터의 對外的인 影響이었으며 後자는 開港前後부터 連綿히 이어 오던 政治的 安定을 위한 對外關係의 改善과 武

(132) 日省錄 高宗 13年 10月 24日條.

(133) 日省錄 高宗 16年 1月 24日條.

(134) 日省錄 高宗 16年 5月 15日條.

(135) 日省錄 高宗 16年 6月 17日條 領府事 李裕元 疏論倭事 “…德漂之特許 實中於柔遠之義…彼當順受出去而終以仁川之莫可闢狹者相持許久…以下・駭惑去益沸騰…乃以島夷之跳跟 講修之窒碍 違許難許之地 以啓無窮之憂…”.

備改修에 대한 自發的 意欲의 成長이었다. 이와 같은 兩者的 方向이合一되어 統理機務衛門設置·軍器·學造를 위한 領選使派遣·韓美修好條約 등 一聯의 刮目할 政策이 나타났으며 國內에 있었던 部分的 軍制改革과 金弘集修信使에 의한 黃遵憲의 「朝鮮策略」도 그러한 影響에서 일어났던 것이다<sup>(136)</sup>. 이러한 一聯의 具體的 事態에 대한 反應은 一便으로는 儒教 本來的 自守思想과 傳統的 意識構造에서 衛正斥邪思想을 極度로 沸騰시켰으며 他方으로는 現實的 被害와 感情의 不滿으로 蒼起된 組織된 大衆의 反抗運動인 壬午軍亂 등으로 나타났다<sup>(137)</sup>. 그러나 兩者는 모두 部分的으로 試圖된 當時 政權의 開化政策에 反對하고 外國의 勢力에 排他的이었다는 點에서 그 性格을 같아하고 있다.

高宗과 朝鮮大臣 사이에相當한 好意로써 받아 들여졌던 朝鮮策略에 의하여 불이 불었던 衛正斥邪思想의 沸騰은 그 册子의 內容이 傳達되기 시작한 即時 나타났다.

高宗 17 年 10 月 兵曹正郎 劉元植은 그의 時弊上疏에서 「요즈음 凶惡한 저 洋酋들이…… 貨色만 劫하고 邪教만 倡하여 異船을 타고 虛聲을 부리고 있다.…… 今般 修信使가 가지고 온 黃遵憲 私議冊子의 耶蘇天主의 學이 吾教에 朱·陸이 있는 것과 같다는 句節에 이르러서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膽이 흔들립니다.…… 朱夫子(朱子)는 위로 孔孟의 學統에 接하고 몸소 周程의 學을 익혀 千年에 道가 빛나고 百世에 師表가 됩니다.…… 朱陸(朱子와 陸象山)은 본래 趣意가 다른데 邪教에 물들었지 않다면 누가 감히 淡賢하겠는가…… 마라진에 潛伏한 凶徒를 남김없이 없애어 輿憤을 풀어 주소서…… 또하나 請할 것은 書院 復設의 命을 내리어 八域의 譚生(一般儒生)로 하여금 더욱 講誦케 하여 그들의 向背를 明辨케 한즉 扶正熄邪의 政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sup>(138)</sup>라고 主張하였다. 이것은 곧 孔孟程朱를 崇奉하는 傳統的 儒教의 秩序에서 耶蘇天主와 같은 異端을 排斥하려는 典型的인 衛正斥邪思想으로써 그 方法으로서는 潛伏邪敎徒의 罷滅과 斯文講誦을 위한 書院復設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點에서 그것은 從來 衛正斥邪思想의 典型的인 表現으로 解釋될 수 있다.

다음 前正言 許元斌은 高宗 17 年 12 月에 올린 時弊上疏에서 新設 武衛廳의 撤廢 仁川開港의 不可, 聯美拒俄策의 批判 및 軍器學送送人의 反對 等 當時 朝廷에서 推進하려던 一聯의 새로운 政策을一一히 反對하면서 黃遵憲 册子의 內容을 根本的으로 反駁하였다. 따라서 그는 固本寧邦의 道는 오직 國王에게 달려 있으니 날로 緝熙學問을 쌓아 나가면 실로 自求多福하는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sup>(139)</sup>. 이것은 곧 宗社와 生靈의 安寧을 技藝나 應變에서 求하지 않고 典學과 聖德에서 求하려는 傳統的인 儒家의 自存思想의 表現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立場은 中國에의 技藝學習派遣과 仁川開港을 反對하여 勤講學과 懲貪墨을 勸告한 掌

(136) 田保橋潔 前揭論文 青丘學叢二十號 pp. 13~14.

(137) 韓治勛 前揭論文 韓國史研究二. p. 130.

(138) 日省錄 高宗 17 年 10 月 1 日條.

(139) 日省錄 高宗 17 年 12 月 17 日條.

令 李駿善의 時弊上疏(高宗 17 年 12 月 28 日)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sup>(140)</sup>.

그러나 이와 같은 一聯의 反對上疏는 다음해 高宗 18 年에 이르러서는 그 形式이 儒生들의 集團運動으로 表現되었으며 그 規模도 全國의으로 擴散되어 갔다. 그 代表的인 것으로서同年 2 月의 嶺南儒生 李晚孫을 疏頭로 하는 萬人疏를 들 수 있다. 即 그 聯疏에는 黃遵憲의 私擬 1 冊을 伏見함에 아지못하는 사이에 「髮豎膽掉 痛哭憤涕」하다고 切切하게 表現한 다음 「海外夷種에서 나온 耶蘇邪敎가 傳播되어 儒教倫理를 掃盡하여 禽獸見洋의 地境에 빠져감으로 正宗 純祖以來로 이를 嚴禁하였던 것」인데 이제 丙寅洋擾以後 十年에 다시 邪敎가 널리 國내에 流布되게 된 이 때에 「蠻夷地域(日本)에 報聘되어 갔다가 辱國의 글(朝鮮策略)을 가져와서 이를 中外에 傳布시키기 까지에 이르렀음」을 痛切히 指摘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朝鮮策略의 內容을 逐條批判하면서 絶對不可를 力說하고 있다. 즉 時急한 放俄策으로써 내세워 親中國·結日本·聯美國 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朝鮮策略의 主張에 대하여 既存의 對外關係를 無視하고 그와 같이 새로운 外交政策을 敢行할 경우 거기서 오는 動搖와 要求와 弊端을 우리는 막을 길이 없다는 安存自守의 理論을 펴면서 俄·美·日은 모두 같은 夷虜로써 厚薄을 둘 수 없고 그들이 서로 이땅에 넘나들게 되면 「一隅青邱 將無地可容」이라 하여 瘋土의 守護가 不可能하게 된다고 主張하였다<sup>(141)</sup>. 또한 富國策과 耶蘇敎에 대해서도 그것이 「西學에 從事하여 致財勸農 通工에 盡力한다 하지만 財團·農工은 古來로 良法美規가 있는 바로서 西學에 從事함으로써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主張한 다음 策略未尾에 傳敎 無害說을 불인 것은 그 邪敎를 朝鮮에 流布시키려는 底意라고排斥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같은 書를 가져온 사람은 處罰하고 그 書는 水火에 投擲하여 好惡을 明示하고 周孔程朱의 教義를 더욱闡明한다면 民은 모두 「親上孔長 象心成城」하게 되어 醜類邪黨이 芳 불일 곳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실로 外夷의 接觸과 變動을 避하고 傳來의 孔孟聖賢의 秩序에서安定을 追求하려는 斥邪自存의 代表的인 意識形態의 表現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斥邪思想의 意識基盤 以外에도 一般內憂外患에 의한一般的 危機意識은 增大되어 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同年 3 月 出身 黃載顯은 當時의 內外

(140) 日省錄 高宗 17 年 12 月 28 日條.

(141) 日省錄 高宗 18 年 2 月 26 日條. 萬人疏의 具體的 反對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中國은 朝鮮이 그 藩邦으로서 二百年이 넘도록 信義交付해 온 터로서 一朝에 皇이니 짐이니 하는 稱號로서 보내온 日本의 國書를 容留한다면 만약 中國이 이로써 詰難하는 경우에 辯解할 길이 없다.

둘째 日本은 우리가 단속하는 바로서 關隘險夷와 水路要衝을 이미 占據하고 있어 朝鮮의 無備를 보고 豢突을 態行하면 이를 制止할 길이 없다.

셋째 美國에 대해서는 원래 잘 알지 못한다. 공연히 他人의 憲憲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이 우리의 虛를 窺視하고 弱點을 慢視하여 어려운 請을 強要하거나 繼續될 수 없는 經費를 떠맡긴다면 어찌 여기에 應할 것인가?

넷째 俄夷는 本來 우리와 嫌疑가 없는 자다. 이제 他人들로해서 틈이 생기면 遠交에 기대어近隣에 挑戰하는 것이 되어 이를 口實로 俄夷가 來侵하면 이를 어찌 免하겠는가? …」

情勢를 論하여 「俄·法·美·英 등은 不道를 恣行하여 때로는 戰爭을 일으켜 中國과 싸웠으니 이들이 或 朝鮮을 侵犯할 경우라면 泰山壓卯의 形勢일 것이며 이 같은 時期에 黃遵憲의 政策, 日本의 使行 같은 일이 있어 진실로 危急存亡之秋」라고 主張하였으며 또 出身 洪將中도 朝鮮策略에 대하여 逐條論駁하면서 從前의 “交隣”關係와 그 規를 같이 하는 制限內에서의 日本과의 修好條件을 提示하였다. 즉 그는 日本과의 修交는 결국 「邪說橫議 潛賂奇貨」로 말미암아 「掃蕩厚饋割地許港」에 까지 이르고 倫理는 禽獸와 같이 墮落되어간다고 主張하면서 修交開化論者를 辯斥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列舉한 다섯가지 條項에서 그는 政府가 和倭를 復古舊制로 說明하나 그것은 萬不當하며 今倭는 舊倭가 아니라 朝鮮이 도리어 옛날과 달리 日本에 制約를 받게 될 것이며 “倭即洋”과 다름이 없고, 修交後로는 鵝片烟·邪學書의 流入傳播를 禁法으로서도 막을 수 없으며 “結日本”으로 防俄策을 삼는다는 것은 得策이 될 수 없으며 더구나 敵이 注視하는 外國에서 兵器學造를 피하여 制勝을 期할 수 없으며 오히려 制勝에는 人君과 兵衆의 精神合心에 달려 있음을 強調했다. 그리고 그는 對日修交의 制限方針으로써 使臣交換의 制限, 開港場의 防備強化, 來航船隻數·交易日·交易品目·交易方法의 制限, 倭洋書의 禁絕 等을 내세웠다<sup>(142)</sup>. 以上兩人의 主張에서는 이와 같이 不利한 開化政策의 實踐으로 나타나는 民心의 離散을 경계시키고 上下一體·衆心成城의 効果를 傳統的 倫理의 強化와 外夷邪學의 禁絕에서 求할 것을 그 基盤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在野의 反對上流를 통하여 斥邪衛正의 思想이 沸騰하여 감에 따라 國王은 「一種邪敎가 泰西로부터 와서 感世誣民한지가…… 이제 百數年이 되었다.…… 이제부터 만약 다시 邪敎에 물들어 그 벼룩을 고치지 않고 愚蒙을 誘因한다면 屋을 誅하고 族을 滅할 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列聖朝 遺民을 保全하기 위한 至意이다」<sup>(143)</sup>라는 斥邪綸音을 내렸다. 그러나 이와 같은 総音만으로는 아랑곳 없이 斥邪思想의 反對論은 燥烈해만갔다. 同年 閏七月 江原道 儒生 洪在鶴<sup>(144)</sup>은 活氣에 찬 激切한 文句로써 다음과 같이 斥邪上疏를 올리고 있다. 그는 斥邪를 論하면서 直接朝廷의 主和重臣들을 論斥하였다. 즉 朝鮮에 있어서의 衛正斥邪는 正祖·純祖·憲宗 等 三朝의 遺業이며 그 義理는 아직도 빛나고 있다. 그러나 「高宗殿下의 親政以來 接倭通商을 主張하여 倭洋一體의 害를 돌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邪說이 廟堂에서 까지 橫行하여 凶敎異說이 京外에 狼藉하고 三王의 遺業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黃遵憲私擬冊子

(142) 日省錄 高宗 18年 3月 23日條.

(143) 日省錄 高宗 18年 5月 15日條.

(144) 洪在鶴은 華西 李恒老의 門人이며 勉菴 崔益鉉, 重菴 金平默 省齋 柳重最 等과 함께 韓末衛正斥邪思想의 代表의 人物이었다. 이 上疏로 斬刑을 당한 그는 忠臣이라는 評價와 함께當時 儒林行態의 典型적인 모델로 稱頌되고 있다. 따라서 그의 衛正斥邪思想은 그의 個人的인 思想이 아니고 華西學徒 淵源의 思想이며 그것은 一般的으로當時 儒林들의 代表의 意識構造이기도 하였다. 日省錄 高宗 18年 閏 7月 23日條. 黃攷 前揭書 韓國史料叢書第一, 華西淵源條 田保橋潔 近代日朝關係の研究上 pp. 754~755 旗田巍 前揭論文 全體參照.

같은 것은 朝鮮國 主和의 臣僚들이 그렇게 이름만 빌려 그렇게 하게 한 것에 不過하다. 國王은 聖心을 奮發하여 衛正斥邪의 大義를 堅持하여 主和賣國의 臣僚를 斬하고 耶蘇의 妖氣를 摲滅해야 한다. 孔孟程朱의 大道가 날로 흐려져 家庭에는 亂倫敗常하고 사람은 滅禮棄義하여 드디어 宗社가 危殆롭게 되었다……」<sup>(145)</sup>는 것이 그 內容의 大綱이다. 이것은 곧 高宗親政以來 修好開港을 推進하여 온 政府의 官人 엘리뜨들에 대한 直接的인 反對挑戰이며 大義와 生命을 함께 내걸고 斥邪를 實踐하려는 強烈한 朱子學의 價值定向의 端的인 表現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修好開港을 實踐하려는 當時 政府의 政策遂行에는 더 없는 制動要因으로 作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衛正斥邪思想은 同年 5月의 慶尙道의 金淳鎮, 忠載의 柳冀永, 忠清의 韓洪烈 等과 閏 7月의 京畿 申櫻, 忠清의 越啓夏 全羅道의 高定柱 等의 上疏에 서로 如前히 一貫되고 있었다<sup>(146)</sup>. 또 同年 11月에는 絶洋을 爲한 斥和倭를 中心으로 하여 當時 政權의 開化政策을 具體적으로 評價反對하는 上疏가 忠清의 宋秉璫과 館儒鄭猱에 의하여 呈納하였다<sup>(147)</sup>. 그리고 그 翌年(高宗 19年)에는 그와 같이 倭洋一體라는 立場에서 洋術과 邪學을 排擊하는 同時に 仁川開港에 따른 諸問題點들을 憂慮하는 上疏가 在野儒林이 아닌 當時의 判府事 申應朝에 의하여 呈納되기로 했다<sup>(148)</sup>.

그러나 이와 같은 中外儒生들의 沸騰하는 衛正斥邪思想 속에서도 開港 및 開化에 贊意를 表하는 上疏도 있었던 것이다. 高宗 18年 6月 前掌令 郭基洛은 近日 各道儒生들이 衛正斥邪 名目으로 거듭 上疏를 올려서 一國이 西學에 빠지고 洋服을 着用하게 되리라는 說은 잘 못이라고 前提하고 日本과의 修好와 斥洋은 스스로 別個의 問題로 看做하여 日本과 修交를 하드라도 斥洋政策은 堅持할 수 있고 또 그렇듯하면 된다는 主張을 내세웠다. 그는 「我國이 日本을 容接하는 것은 이를 羣魔하려는 計劃에서 나온 것이오 日本이 西洋과 交好하고 洋服을 着用하고 洋學을 배우는 것은 我國이 禁止할 바가 못된다. 그리고 우리가 交好하는 바는 즉 다만 日本뿐이오 어찌 洋夷와 더불어 通하는 것이 되겠는가?……」라고 主張하여 「崇正學 關異端」의 原則에서 邪學에 中毒・傳染되는 자는 이를 疫滅할 것이며 또 黃遵憲의 册子만 하드라도 我國과 關係되는 繫要敵情等에 대한 措策으로 그 用捨施黜은 朝鮮政府가 自主的으로 決定할 問題이다. 또 天主邪教等說도 他國人の 文字로서 設使 乖悖한 태가 있다해도 우리가 彙考할 必要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日本과의 修交는 古來의 修好關係와 天下通商의 現情勢에 비추어 그 要請을 拒否할 수 없으며 다만 得宜한 措置로서 自強을 폐할 수 밖에 없으며 그것은 疲弊된 內政을 改修하여 밖으로 寇敵을 물리치면 된다고 主張하였다.

(145) 日省錄 高宗 18年 閏 7月 6日條.

(146) 韓治勵 前揭論文 p. 127. 田保橋潔 前揭書 p. 754.

(147) 日省錄 高宗 18年 11月 30日條.

(148) 日省錄 高宗 19年 7月 2日條.

그는一步 더 나아가 「器械의 藝・農樹의 書는 진실로 利益이 될만 하면 반드시 擇하여 行하고 그 사람을 보고 그 良法까지 아울러 排斥할 必要는 없다」고까지 主張함으로써 西學과 西技를 分離하고 그 技術의 採擇으로써 實用을 폐할 것을 提示하였다<sup>(149)</sup>. 즉 그는 儒生들의 全面的인 倭洋排斥・西學排斥에 反對하여 倭와 洋 西洋人과 西洋技術을 각각 分離시켜 日本과의 修交・西洋技術의 導入採擇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도 崇正學 關異端을 基本的인 價值로써 前提하였다는 點에서 衛正斥邪의 범위를 完全히 떠난 것이 아니며 말하자면 衛正斥邪의 那두리 안에서의 開化論의 先驅라 하겠다. 그것은 또 異質思想의 混入에 의한 衛正斥邪論의 變質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門戶開放과 現實的인 政策變更에 따라 앞으로 나타나게 될 一聯의 “東道西器”的 開化論으로 그것이 發展하게 될 理論의 自己展開過程으로 解釋될 수 있겠다.

## 第四章 行政改革過程

### 第一節 行政制度改革의 動機

前述한 바와 같이 開港以後 近代的 思想과 制度 및 文物이 導入되자 斥洋斥倭를 主張하는 保守勢力의 反撥도 甚하였지만 한편 하루 速히 文明自強하자는 開化勢力도 만만치 않게 擙頭되었다. 이리하여 開港이 시작된지 數年間은 우리나라 is 國內外的으로 保守와 開化, 斥邪와 開國改革과 反撥的 政變 등 兩勢力이 엇갈린 分裂對立 속에 서로 맞서 徘徊하고 있었다.

마치 高宗 17年(1880) 12月 17일에 舊官制外에 새로이 統理機務衙門을 設置하기에 이르렀다<sup>(150)</sup>. 이것은 當代의 改革派의 主張을 部分的으로 反映한 것으로서 그것은 朝鮮王朝末期에 있어서의 行政近代化를 위한 하나의 重要한 制度改革이며 其後의 行政, 軍事制度改革을 誘發한 契機가 된 것이다. 即 이 改革은 近 5世紀 동안 存續하여 온 政府의 오랜 中樞의 遺制를 近代的 制度로 移行시키는 始發點이 되었다는 點에서 重要的 意義가 있었으며 뒤이어 軍制改革, 日本에 視察團派遣, 清國에 領選使派遣, 統理機務衙門의 改編, 軍制의 大改革 및 近代文化의 移入, 各種文物의 輸入 등 一連의 近代化作業이 뒤따라 이루워지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近代化作業은 勿論 1880年 前後의 韓國의 國內・外의 狀況의 變遷에 따라 切實하고 不可避한 現實的 必要에서 促求된 것이라고 보겠으나當時의 對內・外의 事態의 變遷과 關聯시켜 統理機務衙門의 設置를 中心으로 그 經緯와 日本, 清國의 改革에 대한 態度 또는 動機 그리고 爲政者들의 態度를 우선 살펴 보고 뒤이어 展開된 一連의近代化作業에 關하여 論하고자 한다.

우선 이와 같은 改革이 斷行되기 까지의 國內・外의 動機와 經緯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49) 日省錄 高宗 18年 6月 8日條.

(150) 備邊司謄錄, 國史編纂委員會 第27卷 p. 459.

① 日本使臣의 往來를 通한 改革의 勸告——日本은 丙子修好條約으로 國交가 열리자 日本代理公使 花房義質을 내세워 日本公使의 京城駐劄 開港場地 選定問題 등에 關하여 商議함과 同時に 總理機務衙門과 같은 性格의 어떤 官署의 設置를 慈憲한 일이 있었다. 即 日本代理公使의 來書를 通하여 開港以後의 外交事務를 專管하는 大臣의 必要性과 그 任務, 外國公使와의 關係, 使臣의 常駐問題 外國技術의 輸入, 留學生派遣 등의 問題에 關하여 論하고 將次 緊迫해 질 日本을 為始하여 泰西各國과의 外交 및 通商交隣事를 管掌하는 새 行政機構를 設置할 것을 勸告한 바 있었던 것이다<sup>(151)</sup>. 이와 같이 日本은 使臣의 往來를 通해서든지 書翰과 册子를 通해서든지 朝鮮政府가 하루 바삐 美·英·法, 德 같은 西歐諸國과도 通商修好하여 그들의 文物制度를 輸入함으로서 開化 自強할 것을 勸告해 오고 國書를 捧足해 온 日本公使 花房義質은 自國製品인 小銃十種과 彈藥 등을 禮物로 呈納하는 同時に 富國強兵을 위하여 政府制度의 改革도 示唆한 것이었다. 한편 日本과의 修好條規締結 以後 國土 및 戚族閔氏及趙氏 등 戚臣은 日本政府의 援助와 協力에 의하여 적어도 軍隊와 農業의 近代화 단이라도 企圖하였으나 그 機會를 發見하지 못했던 차이였다. 가령 高宗 13年(1876年) 2月 條約이 締結된 直後 高宗은 接見大官 申棟과 副官 尹滋承을 修正殿에서 召見하여 申의 啓言을 通하여 「日本兵農之器 甲於天下」<sup>(152)</sup> 하다는 事實을 알게되며 그리고 日本의 外務大臣 宮本小一와 外務權大丞 野村靖 등의 富國強兵策이 權臣들의 召見을 通하여 國王에게 알려지는 것이다<sup>(153)</sup>.

② 清에 學造器械事를 請容하여 그 承諾을 받아 新衙門設置가 促求된 事實——即 丙寅(1866), 辛未(1871)의 洋擾에 의하여 外國의 武力에 놀랐고 特히 雲揚號事件을 契機로 日本과 修好한 後로는 그 直接, 間接의 威脅과 善意의 慈憲으로 富國強兵策을 圖謀하지 않을 수 없었다. 特히 強兵策에 關聯하여 1879年 7月 以後 中國의 李鴻章과 우리 政界重鎮 李裕元을 中心으로 한 韓中交涉에서 學造器械事が 急速히 推進되었고<sup>(154)</sup> 아울러 外國과의 通商과 新衙門設置의 不可避性이 示唆되었던 것이다. 即 李鴻章은 李裕元에게 보낸 同年七月 書信에서 「密修武備」와 「與泰西通商制日本」을 勸告하였고 마치 朝鮮에서 이에 關한 朝野의 懇請이

(151) 總理機務衙門의 職能에 關해서는 清의 總理各國 事務衙門(總理衙門)과는 若干 다르나(前者는 內外의 軍國機務管掌) 그 名稱이나 中央官制上의 位置는 비슷한 것이며 또 特히 「日本代理公使 因派使定路事 呈二部書參照書, 別錄」에서도 清國 總理衙門 所屬機關인 同文館에서 刊行된 星船指掌(Charles de Martens, Le Guide Diplomatique, Leipzig 刊 第一卷의 1876年(丙子年) 韓譯刊行書)의 內容이 많이 採用되고 있어 각國과의 通商·交隣事를 管掌하는 새 機構로서 總理衙門이 聯想되어 그에 關한 記述이 많이 影響을 미쳤을 것으로 推測된다(歷史學部 第十七, 十八合輯, 前揭書 pp. 693—694).

(152) 日省錄 丙子 二月 初六日.

(153) 日省錄 丙子 四月 十五日條.

(154) 李裕元은 高宗 12年(1875)에 王世子 冊封奏清使로서 使行한 以來 李鴻章과 親交가 있었으며 朝鮮과 日本과의 外交問題 泰西各國과의 開國通商問題에는 이들 사이의 數次의 密函이 크게 作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있자 李鴻章은 朝鮮의 泰西 各國과의 通商과 軍器武備의 學習을 周旋한 바 있으며 드디어 1880年 7月에는 武備講究를 위하여 卞元圭를 清에 보내어 具體的 折衝을 하기에 이른다. 아울러 이러한 學造器械事와 더불어 事大, 交隣, 軍務, 邊情 등 事를 專管케 하기 위하여 中央官制에 一衙門을 新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料된다<sup>(155)</sup>.

③ 修信使 金弘集의 報告와 黃遵憲의 「朝鮮策略」의 影響——高宗 17年(1880) 봄부터 朝鮮政府는 再次 修信使를 日本에 派遣키로 決定하고 禮曹參議 金弘集以下 總員 58名으로 構成된 一行이 6月 26일에 釜山을 離發하였다<sup>(156)</sup>. 이를 一行이 한달동안 東京에 滯留하면서 거두게 된 成果는 懸案의 外交問題에 關한 折衝보다는 日本政府當路者들과 駐日清國公使 何如璋, 參贊官 黃遵憲 같은 人物과 接觸하여 文明自強에 對한 그들의 忠告를 聽取하고 帝露의 南下政策에 대한 共同對備策을 勵誘받아 온 것이라 하겠다. 即 金弘集은 東京에서 駐日清國公使 何如璋 및 그 麾下의 參贊官 黃遵憲 등과 數次에 걸쳐 來往하면서 泰西 國際關係의 意見交換을 거듭하였는데 그들은 特히 帝露의 侵略政策에 對備하여 韓·中·日 三國이 親善提携할 것을 強調해 마지 않았으며 黃遵憲著의 「朝鮮策略」이라는 小冊子까지 金弘集에게 寄贈하여 參考하기를 付託하였다. 同「朝鮮策略」中 國際關係에 關한 骨子는 地球上에 俄羅斯라는 莫大한 國家가 있어 우선 朝鮮을 侵略하고자 노리고 있으니 朝鮮의 今日의 急務는 防俄之策이라 하겠는 바 이를 위해서 「親中國·結日本·聯美國·防俄國策」換言하면 中國과 親하며 日本과 妥結하고 美國과 聯結하여 露西亞의 侵略政策에 對備하라는 것이었다<sup>(157)</sup>. 金弘集도 이 朝鮮策略을 所重히 생각하고 歸國後 同年 8月 28일에는 國王에게 謁見復命과 함께 이를 바치자 朝野에 큰 波紋을 끼치기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國王以下 이 나라의 要路들도 舊態依然한 單純한 傳統的 事大交隣의 對外關係로서 暈然할 수 있게 되었고 開港을 契機로 한 諸外國과의 外務通商 其他 內外政事를 處理하기 위하여 政府體制에 스스로 檢討를 加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며 여기서 政府組織의 一大革新이 斷行된 것이었다.

## 第二節 統理機務衙門設置經緯

統理機務衙門의 設置를 위해서 이미 1880年 12月 17日 以前에 朝臣들이 朝房에 모여서 熟議한 끝에 條目을 作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58)</sup>. 거기서 이루워진 新設 統理機務衙門의

(155) 新衙門設置의 史料인 備邊司牘錄 庚辰 十二月 七日字에는 「不可不設一衙門」이라 하였고 그 由로서 學造器械事를 말하고 있으며 이記事에 뒤이어 「凡係事大·交隣·軍務·邊情等事 使之 專管舉行」이라고 記錄되어 있음에 비추워 學造器械事와 開國通商 및 新衙門設置의 一連의 關聯性을 엿볼수 있는 것이다.

(156) 金弘集은 同年 2月 27일에 修信使發令을 받고(日省錄 高宗 辛巳年 2月 27日條) 5月 28일에 辭階, 6月 26일 丑時에 千歲丸으로 釜山을 떠나 7月 6일 江戶에 到着하였다가 7月 29일 神戶港泊 8月 4일에는 江戶(東京)을 떠나 歸國의 길에 오르며 8月 11일에 釜山에 還泊한다(韓國史料叢書第九 修信使記錄全 國史編纂委員會 修信使 日記卷二 p. 149).

(157) 韓國史料叢書第九, 修信使 記錄全 國史編纂委員會 pp. 160—171.

(158) 「統理機務衙門設置의 經緯에 대하여」 歷史學報 第 17.18 合輯, 1962. 歷史學會, 金庠基教授 華

節目(條目)을 살펴 보면 新衙門은 諸般機務에 關한 事項을 區別管理하되 上下官僚를 任命하여 各其 事務를 分掌케 하며 司를 12個로 編成하여 事大, 交隣, 軍務, 邊政, 通商, 軍物, 機械, 船艦, 譏沿, 語學, 典選, 理用 等의 各司를 두기로 하고 그리고 新衙門은 內外의 軍國機務를 總領하게 되는 만큼 正一品衙門으로 마련하여 議政府와 一律로 하며 大臣中에서 總理를 任命하여 節制視務케 하되 時原任大臣으로서 都相(總理)을 兼任케 하였다. 또한 堂上官은 員數에 不拘하고 統理機務衙門에 任命하고 郎廳은 文蔭武에 不拘하고 定數敘이 選任하되 參上은 主事로 하고 參下는 副主事로 할 것이며 官銜는 前三軍府의 處所를 利用할 것을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經過로 統理機務衙門이 設置되자 翌 22日에는 領議政 李最應은 그 總理大臣으로 京畿道觀察使 金輔鉉, 知中樞府事 閔謙鎬, 上護軍 金炳德, 尹滋惠, 趙寧夏, 大護軍 鄭範朝, 申正熙, 護軍 閔泳翊, 同敦寧府事 李載兢, 禮曹參判 金弘集 등 10名은 同衙門 堂上으로 配置하는 同時に 新衙門의 名稱 職務 處所 및 人事도 決定하였다.

이와 같은 新衙門의 設置는 그 構造나 機能으로 보아 勿論 根本的인 革新은 아니었으나當時의 國內事情과 中國과의 傳統的 關係로 미루어 보아 不得已한 일이었다고 본다. 當時國內의 一般的 輿論은 如前所述 因襲의이었던 關係로 斥邪滅洋의 氣運이 넘쳐 흘렀으니 學造器械事를 推進시킨 李裕元 조차 그 守舊的 風潮에서 完全히 벗어날 수 없어서 泰西 各國과의 通商과 學造器械에 대하여 매우 消極的이어서 李鴻章도 이에 대하여 疑訝와 不滿을 表示하고 非難한 바 있으며<sup>(159)</sup> 오히려 高宗自身이 學造器械事에 있어서 積極的인 態度를 取하여 왔던 것이다.

如何間에 統理機務衙門의 設置는 當時の 時代의 要請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制度의樹立은 일찍이 日本의 勸告를 받은 바 있으나 傳統的인 事大關係와 斥邪로 말미암아 當初에는 그 勸告에 應할 수 없었던 것이나 國際情勢의 變遷으로 中國으로부터 武備·通商의 勸告를 받음으로서 新衙門設置의 契機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中國이 勸告한 開國通商은 勿論 在來의 事大關係를 止揚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 自國의 防衛의 立場에서 防俄 또는 奉制日本 혹은 結日本하기를 內心으로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 國內에서도 近代的 文物制度를 受容하려는 自發的인 意識은 매우 稀舊하였다고 볼 때 新衙門의 性格은 비록 充分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新機構의 發足은 外國과의 開國通

甲紀念史學論叢. pp. 688—689. 新設衙門節目에 關해서는 備邊司臘錄 前揭書 pp. 460—461. 朝鮮史第六編 第四卷 高宗 17年 12月 p. 549.

(159) 當時 李裕元은 國內外의 情況, 特히 僂洋一體의 斥邪論에 左右된 것으로 생각되며 李鴻章은 이에 拘碍되지 않고 時期를 보아 꾸준히 開國通商을 慾懶한 것으로 推測이 된다. 특히 李裕元의 消極的態度에 대하여 「未便明言」하고 「李裕元 奉於衆議 玩其辭旨」한다고 李鴻章의 非難을 받아 왔으며 後日 李裕元은 李鴻章의 密函으로 修好通商을 贊成하였다가 反覆하여 귀양(竄配) 당한 일까지 있었다. 註 154 參照, 歷史學報 第十七, 十八輯 前揭書. 註 33, 34 參照.

상을 위하여進一步한 措置인 同時に 앞으로의 諸般改革의 始發點으로서 重要한 意義가 있었던 것이다.

統理機務衙門이 新設된 다음해 高宗 18年(1881年) 正月 16일을 期하여 新衙門을 關내에 設置하여 內衙門이라 稱하는 同時に 다음과 같이 各司의 堂上官을 正式으로 配置하여 事務를 開始케 하였다. 即 ○事大·交隣堂上에 趙寧夏, 鄭範朝. ○軍務·邊政·譏沿堂上에 閔謙鎬, 尹滋惠. ○通商堂上에 金輔鉉, 金弘集. ○理用堂上에 金炳德, 閔泳翊. ○機械, 軍物, 船艦堂上에 沈舜澤, 申正熙. ○典選·語學堂上에 閔致庠·李載競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正月 26일에는 左議政 金炳國을 總理大臣으로 發令하였다<sup>(160)</sup>.

### 第三節 紳士遊覽團과 領還使의 派遣

前述한 統理機務衙門의 新設發足과 同時に 政府는 우선 清國政府에 發議하여 軍器製造와 軍事操練의 習得을 위한 留學生의 派遣을 交渉해 왔으며 이 計劃을 좀더 積極的으로 推進하도록 하는一方 뛰어어 日本國의 새로운 文物制度와 軍事施設을 視察習得케 하기 위해 視察團을 選拔派遣키로 하였다. 그런데 前者の 清國의 留學生 派遣計劃은 相對方의 無誠意로 交渉이 不振하여 그 實現이 遲滯되었지만 後者の 日本視察團의 派遣計劃만은 花房義質 公使가 始終 熟意있게 積極協力한 關係로 順調로이 推進되었다.

(1) 高宗 18年(1881年) 正月 11일(陰)에 朝廷의 有能한 壯年紳士 遊覽團 10餘名을 選拔任命하였고<sup>(161)</sup> 同年 2月 27일에 金弘集이 第二回 修信使로 發令을 받아 이를 一行은 國

(160) 日省錄 辛巳年 正月 16. 17. 27日. 朝鮮史 第六編 第四卷 朝鮮總督府 p. 555.

(161) 後日의 所稱「紳士遊覽團」의 朝士名單과 補助任務의 隨員들은 다음과 같다.

前參判 趙準永	隨員 李鳳植, 徐相直
同 朴定陽	隨員 王濟膺, 李商在
前承旨 嚴世永	隨員 嚴錫周, 崔成大
同 姜文鑒	同 姜晉馨, 邊宅浩
同 趙秉稷	同 安宗洙, 俞箕煥
同 閔種默	同 閔載厚, 朴會植
同 李鍾永	同 李弼永, 閔建鎬
前參議 沈相學	隨員 俞鎮泰, 李鍾彬
同 洪英植	同 高永喜, 成洛基, 金洛雲
前教諭 魚允中	同 俞吉瀬, 柳定秀, 金亮漢, 尹致昊
前府使 李元會	同 宋憲賦, 沈宣永
前虞侯 金鏞元	同 孫鵬九

以上의 12委員들은 上述한 隨員以外에 通事 1名과 從人 1名을 隨行하여 大概 5名을 一班으로 編成하였으며 그 班編成은 文教, 內務, 農商務, 工務, 司法 外務, 大藏各省, 稅關, 陸軍 各部門 등 分擔한 것이었으며 가령 魚允中에게 내린 喻行御史의 封書(指令書)를 살펴 보면 「封書若日 日人之朝廷議論과 局務形便이며 風俗·人物·交聘·通商事之大略을 一番更探이 甚好라爾須督念하여 混騎日人船隻하고 渡往彼國하여 大藏省 所掌事務及 外他多少聞見을……一一探來後에 此別單을 從容爲之하라」고 指示하고 있다. 또 각班 責任者의 年齡을 살펴 보면 李元會가 55歳로 最高이고 洪英植은 最低로 27歳이었으니 平均 40前後의 壮年層이요 隨員으로 李商在가 31歳, 俞吉瀬이 26歳, 尹致昊은 最年少로 17歳로서 平均 30歳 未滿의 青年層이었다. (韓國史最近世篇, 震檀學會 pp. 437—438 參照) 그리고 朝鮮史 第六編 第四卷 高宗 18年 2月 10일(前

內一部의 反對氣勢를 忌避하여 「東來府 暗行御史」의 名目을 따고 서울을 出發하여 釜山을 떠나 4月 27日 東京에 到着하였다. 이들 第二回 修信使 金弘集一行은 各自 分擔한 文部, 內務, 農商務, 工務, 司法, 外務, 大藏各省, 稅關, 造幣, 製絲, 鐵業 및 陸軍各部門에 關하여 東京, 大阪을 中心으로 視察調査研究를 遂行하여 7月 14日에 東京을 出發歸國하였다. 이들이 作成한 龙大 한 報告書 및 復命書로 미루워 보아 热誠을 가지고 日本의 制度文物을 視察研究한 것으로 推測이 된다. 그리고 이들의 視察成果는 近代朝鮮政治 外交史에 큰 影響을 주었고 行政制度改革의 基礎가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丙子修信使 金綺秀一行과 마찬가지로 國王 및 感族이 期待한 바와 같은 所謂「物情詳探」이라는 面에서 新日本의 文化視察을 爲한 適任者들은 못되었다. 修信使들은 日本滯在中 最近에 있어서의 物質的 進步의 結晶인 軍隊, 學校, 工場 등의 視察을 거히 強要當하나니 하여 勸誘받았으나 本來 그 方面의 理解가 없고 또 본래도 實益이 없다고 하여 回避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물며 軍隊, 學校, 工場 보다一步進하여 各種의 行政施設을 視察見學하기에는 너무나 그 方面의 새로운 專門的 知識이 缺如했던 것이며 따라서 隨行員構成에 있어 專門委員이 必要했던 것이다<sup>(162)</sup>.

一行中の 魚允中 같은 人物은 特히 日本에서 上海로 向하여 다시 天津에 들려 李鴻章까지 訪問한 다음 되돌아 日本經由, 마치 第三次 修信使로 日本에 갔던 趙秉鎬와 從事官 李祖淵 등과 더부러 뒤늦게 11月末에 韓國復命하였으며 이들의 視察成果는 單純한 遊覽이 아니고近代化를 위한 當時의 內外政策을 促進하는데 重要意義가 있었던 것이다.

(2) 한편 清國에 領選使를 派遣한 것은 李鴻章의 慾憇이었기는 하지만 前年인 高宗 17年(1880年) 9月 22일에 武備講求의 交涉을 위하여 卞元圭를 中國에 보낸 事實로도 미루워 보아 武備自強의 必要性을 政府가 自覺한 폐다가 그의 歸國을 契機로 하여 留學生派遣의 움직임은 積極性을 띠게 되었으며 清國側으로서는 領選使派遣을 中心으로 하여 機器技術의 傳授뿐 아니라 軍事的인 影響力を 主導하려고 하였고 나아가서는 韓·中間의 보다 鑿固한 宗屬關係를 形成코자企圖했다고 보는 것에 妥當할 것이다<sup>(163)</sup>.

領選使의 使命은 本來 富國強兵 特히 軍備整頓을 目的으로 하는 軍機學造事이었으며 聯美事를 主로 한 外交的活動은 副次的인 것이었다. 이런 見地에서 그들의 留學活動은 軍事 및 行政發展에 意義가 큰 것이었으며 그 留學生의 構成과 人員에 對하여 살펴 보는 것이 또한

揭書 p. 558)에 의하면 日本國 武備觀察員으로서 統理機務衙門 被薦人前府使 李元會를 參劃官으로 差下(任命)하고 參謀官 李東仁을 引率하여 從速發行케 하라는 分付가 내렸으나 앞에서 言及한 바 있는 開化僧 李東仁은 渡日하지 않고 踪跡을 감추고 말았으며 여기서 여러가지 疑問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162) 田保橋潔著 『近代日鮮關係研究』 前揭書 p. 746. 이들一行은 「本使迂拙, 素無知解, 雖見無益」이라하여 近代의 施設의 視察勸誘를回避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들파는 別途로 같은 時期에 銅과 皮革製造法을 배우기 위한 技術見學生徒로 別軍官 林泰慶以下 李元淳, 金在愚에 通事1名 從人 1名을 붙여서 大阪府에 派遣한 바 있었다.

(163) 權錫奉, 領選使行에 對한 一考察, 歷史學報 第17, 18合輯 歷史學會 1962. 6. pp. 312, 282, 284.

意義가 있다고 본다. 이들 留學生의 選拔構成의 經過를 보면 우선 中國側의 人員數(38名), 出發日字, 學習方針과 細目 등 具體的 指示가 있자 統理機務衙門으로 하여금 六藝에 素質이 있는 適任人材를 薦擧케 하는데 統理機務衙門은 첫째 工徒를 派遣하여 그 製造法을 學習하고 學造技藝는 教師를 招致하여 演習하여 練兵을 위한 軍士의 定選은 中止할 것을 議決하여 上啓하므로서 正式決定을 보고(2月 26日)<sup>(164)</sup> 다음 38名의 人選이 同年 9月頃까지 完了되는데 그 身分을 보면 兩班階級出身의 學徒가 20名 그리고 中人階級出身의 工匠 18名으로構成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六條換言하면 六藝에 適合한 人材를 얻기가 困難했기 때문에 身分上의 貴賤을 不問하고 中人階級에 까지 그 人選範圍를 擴大한 것으로 본다<sup>(165)</sup>. 그리고 이들 留學生의 年齡을 보면 16, 17歲로부터 40歲까지 였으며 領選使行의 人員構成은前述한 留學生 38名을 中心으로 하여 領選使 金允植, 從事官 尹泰駿, 別遣堂上 卞元圭, 官辦 白樂倫, 譯官 崔性學을 爲始한 12名의 官員과 隨從 19名, 都合 69名이 正式人員이고 그밖에 留學生의 私帶隨從이 14名이 있었다.

이렇게 하여 領選使 金允植은 高宗 18年 9月 26日 高宗에게 告別하고 莊途에 올랐으며 陸路로 同年 11月 17日에 北京에 到着하였다. 留學生들이 中國에서 學習한 것은 火藥, 質藥의 製造法과 이와 關聯이 있는 電機, 化學, 製圖, 製鍊, 基礎機械學 및 外國語 등이었으나 이들 留學生이 歸國한 후에 實際로 轉用할 수 있는 機器가 小手機器이어야 한다는 見地에서 學習機器에 對한 批判이 肃起되었고 또 마침 本國에서 1882年 6月 9일에 壬午軍亂이勃發했기 때문에 學習을 中斷하고 早期 歸國하였다. 이와 같이 領選使行이 軍機學造라는 面에 있어 失敗한 것은 留學生選拔의 矛盾과 運營方法의 拙劣에다 中國側의 消極的協力에 基因하고 決定的 契機로서 壬午軍亂을 들 수 있겠는 바 要컨대 武備自強의 基礎를 마련하기에는 國內外의 政治情勢가 너무나 切迫하였고 또한 뒤늦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第四節 軍制의 改革

前述한 統理機務衙門의 設置와 더불어 大院君이 設置한 三軍府는 廢止되었으며 또 紳士遊覽團의 日本視察이나 清國에의 領選使行과는 全然 別途로 國내에 있어 特히 注意할 事實은

(164) 承政院改修日記 光緒 7年 辛巳 2月 26日條, 日省錄 辛巳年 2月 26日 特旨 練兵事를 辭讓한 것은 高宗 17年 11月 日本辦理公使丘 花房義質이 來朝하여 新軍制에 對한 論議가 進行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推測이 된다.

(165) 權錫奉 前揭書 pp. 295—296 參考 高宗 17年 5月 六條薦人의 下命에 대한 領議政 李最應의 意見에 依하면

此六條即是六藝也, 通才之人不多, 於世文學之士, 不間於軍旅 將略之才難兼於文學, 理所然也, 且才局之人, 貴賤無間, 視才之合用, 不必窮經之士, 獨爲薦擧, 卑賤之人 亦可舉擧也, 毋論文, 藥, 武, 貴賤, 如有通才具備之人, 一體薦獎似好矣.

라 하여 六條에 適合한 人才를 얻기 困難하다는 理由를 들고 이어 그 解決方案으로서 文, 藥, 武, 貴賤을 不問하여 被薦의 範圍를 넓힐 것을 主張한 바 있는 것이다(承政院日記, 光緒 6年 戊辰 5月 25日條).

國王을 中心으로 軍制改革이 著著 進行中에 있었다. 처음 丙子年에 이미 日本政府는 國王以下 接見大副官에게 機關砲, 小銃, 連發拳銃을 贈與하고 軍官에게 그 使用法을 教授한 바 있어 精銳한 新式兵器에 國王以下 關心을 쏟게 했으며 花房公使는 來韓以來로 機會있을 때마다 軍備의 必要를 提言하였고 또 仁川에 停泊中인 近代式 軍艦을 朝鮮軍官들에게 詳細히 見學시키기도 하고 뒤이어 小銃 若干種을 政府에 獻納하면서 軍務司經理堂上 閔謙鎬에게 新式武器의 教鍊과 軍制改編 등을 勸告한 바 있어 國王以下 格別한 關心을 갖고 新式軍隊의 編成을 命한 것이다.

이에 따라 高宗 18年(1881年) 4月에 花房公使의 勸告에 따라 前年 修信使의 隨員으로 日本에서 歸國한 別軍官 尹雄烈을 中心으로 하여 五營軍門으로부터 兩班의 子弟出身志願者 80名을 特選해 가지고 別技軍(俗稱倭別技)을 創設하여 武衛營에 所屬시켰으며 그리고 新式 教鍊을 實施하기 위하여 教鍊所堂上에는 戚臣中의 少壯巨物인 閔泳翊, 正領官에 韓聖根 左副領官에 尹雄烈 右副領官에 金魯元 參領官에 禹範善 등을 任命하는 同時에 日人敎官으로는 公使가 推薦한 隨行 陸軍工兵 少尉 据本禮造를 또 翻譯事務를 위하여 日本參謀本部 語學生 武田甚太郎 등을 招聘하였다. 그 教鍊은 極히 初步的인 것으로서 特別히 高級武官을 必要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別技軍 教場으로는 最初 西大門밖 慕華館을 使用하다가 뒤에 北門밖 平倉으로 한때 옮겼고 나중에는 現師大附高校에 자리 잡은 東別營이 下都監으로 移轉하였다. 이들 别技軍은 마치 國王의 私兵과도 같이 特別待遇를 받은 것이며 그 教鍊生에 대한 紿食待遇도 舊式軍隊 보다 매우 좋은 편이었고 따라서 그들 스스로 우쭐대기도 하여 舊式軍隊의 精忌를 사게 되었던 바 이러한 差別待遇가 後日의 큰 罹根을 蒼起하리라고는 누구나 想像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sup>(166)</sup>.

뒤이어 1881年에 紳士遊覽團이 歸國하자 統理機務衙門을 改編하여 軍務局 編制를 近代化하고 且開化派人士들로 그 軍務部署를 充員하고 나서 軍制의 大改革이 斷行되었다. 即 1881年 12月에 國家權力의 根幹을 이루는 軍事制度의 大改革에 着手하였는데 여기서 訓練, 龍虎, 禁衛, 御營, 捏戎의 五營軍門을 廢止하고 武衛, 壯禦의 二營을 設置기로 한 다음 李景夏를 武衛大將에 申正熙를 壯禦大將에 任命하였다<sup>(167)</sup>. 이들은 앞서 設置한 别技軍과 더불어 近代的 軍制로서 草綠軍服에 活氣띠고 서울 長安의 人氣를 모으게 된데 反하여 傳來의 軍制와 軍隊는 초라한 모습과 鮮주린 氣色도 감출 길이 없이 無用의 長物처럼 取扱되었던 것이다.

(166) 李瑄根著 韓國史 最近世篇 前揭書 p. 439.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研究上 前揭書 p. 748. 朝鮮史 第六編 第四卷 高宗 18年 辛巳 4月 22日 p. 567. 日本外交文書 第14卷(153)「朝鮮國に於て 銃銃隊創設之件」近代朝鮮政治史 姜志元著 pp. 187—188.

(167) 高宗實錄 卷18, 高宗 18年 11月 25日條. 朝鮮史大系一—最近世史 p. 92.

## 第五節 統理機務衙門의 改編

紳士遊覽團이 歸國復命한以後에 비로서 앞서 論한 統理機務衙門은 큰 改編을 보게 되었다. 即 國王以下 政府內의 少壯 開化勢力은 富國強兵을 위한 第二段階의 革新政策을 採擇하였는 바 우선 高宗 18年 11月 9일에는 統理機務衙門 12司를 改編하여 同文, 軍務, 通商, 利用, 典選, 律例, 監工 등 7司로 하는 동시에 각司의 擔當機能과 官階도 調整하였다. 官階에 있어서는 判書級以上의 人物을 「經理統理機務衙門事」(略稱 堂上經理事)라고 하여 該當司務를 總轄케 하고 다음에 副經理事라고 하여 少壯氣銳의 人物로 實務를 擔當케 하였다. 이와 같은 改編에 의하여 同月 21일 發表된 각司의 人事配置를 보면 다음과 같다.

同文司 堂上經理事에 李載冕, 趙寧夏

副統理事에 沈相學\*

軍務事 堂上經理事에 李載元, 申正熙, 閔泳翊, 趙義純, 李元會\*

副統理事에 洪英植\*

通商司 堂上經理事에 金輔鉉, 金弘集

副經理事에 趙秉稷\* 李鑑永\* 閔種默\*

理用司 堂上經理事에 閔謙鎬, 李根弼, 朴定陽\*

典選司 堂上經理事에 金炳德, 尹滋惠, 趙準永\*

律例司 堂上經理事에 沈舜澤, 嚴世永

監工司 堂上經理事에 閔臺鎬, 鄭範朝

副經理事에 姜文馨\* 등<sup>(168)</sup>

以上 新機構에 充員된 人物은 閔妃系列의 要人과 開化派의 重鎮이 綱羅된 것이며 紳士遊覽團의 委員(\*의 人物)은 거의 全部가 各司에 配置되었다. 特히 軍務司에 있어서는 이를 다시 三局으로 分掌케 하여 總務局에 閔泳翊, 洪英植, 參謀局에 申正熙, 趙義純, 敷練局에 李載元, 李元會 등 開化派 人物을 配置하여 近代式管理를 폐한 것이다.

如何間에 이와 같이 朝鮮의 中央政府機構 및 軍制의 大改革에 의하여 親日開化派가 擡頭하게 이른 것은 이제까지 數年間 朝鮮에 대하여 거둔 日本의 對韓政策의 成果가 漸次 結實해가고 있었음을 如實히 證明하는 것이었으며<sup>(169)</sup> 그리고 그것은 또 日本의 援助로 自己政權을 維持하고자 하는 開化派의 政權欲과도 符合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急速한 改革과 또 各界, 各層, 各地에 滔滔하게 波及된 開化風潮가 守舊派들의 反撥을 誘發했음을 우리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다.

## 第六節 近代文化의 移入과 各種 文物의 導入

(168) 高宗實錄 卷之十八. 朝鮮史 第六編 第四卷 高宗 18年 11月 初9. 21日.

(169) 世外井上公傳 第三卷 p. 449 參照.

開港以後 韓·日間의 修信使, 視察團 및 外交官의 頻繁한 往來와 接觸 및 通商 等을 通過近代文化의 移入과 各種 文物의 輸入으로 因하여 文化와 日常生活面에 開化의 氣運이 廣範하게 읊터갔다.

例컨데, 丙子修好條約을 체결한 뒤 처음으로 高宗 13年(1876)에 日本에 갔다 온 修信使 金綺秀가 記錄한 日東記游와 同修信使日記, 高宗 14年(1877)에 花房義質公使가 禮曹判書 趙寧夏에게 寄贈한 萬國公法 高宗 17年(1880年)에 金弘集이 가져온 前記한 바 黃氏의 「朝鮮策略」 高宗 18年에 花房公使가 領議政 李最應에게 寄贈한 「中西關係論」과 東西伯利亞 및 黑龍江地圖, 그리고 其他 普法戰記와 博物新編을 위시한 外國人의 著書와 國內人士의 著述이 近代的 文化開化에 寄與했고 各種 醫療技術과 商品 등의 導入이 日常生活의 開化에 이바지하였다.

(1) 日東記游——이책은 金綺秀가 日本에 갔다 온 다음해 즉 高宗 14年(1877) 2月에 黃海道 谷山郡守로 있을 때 整理한 것으로 日本에 갔다 온 使命과 日本의 政治, 行政, 經濟, 文化 및 社會狀態 등을 記錄한 것이다<sup>(170)</sup>. 이 記錄 중에서 丙子 六月初 1日 修信使 金綺秀의 復命內容(入侍筵說)과 同 金修信使의 見聞錄(聞見別單)을 通하여 朝鮮開國에 寄與한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復命에 있어<sup>(171)</sup>

#### —前略—

國王曰 報告書以外로 할말은 詳陳하라.

金綺秀曰 報告書(聞見別單)以外에는 別로 上奏할 것이 없으나 衣服은 大體로 洋服입니다.

國王曰 軍兵의 衣服도 亦是 洋服인가.

金綺秀曰 그렇습니다.

國王曰 風俗의 大綱이라도 말해 보라.

金綺秀曰 其國의 俗은 大概富強으로서 本務로 하고 있습니다.

國王曰 其國人은 大體로 強하기에 努力하고 軍隊도 亦是 強壯한가.

金綺秀曰 軍容은 強壯하고 操鍊은 매우 熟達하며 其以外는 오로지 利를追求하는데 努力하고 民人은 業에 勸勉하고 遊食하지 않으며 路上에 거지(流丐)가 없었습니다.

(170) 總4卷으로 成立된 이 記錄은 다음과 같은 項目으로 分類되었다.

卷一. 事會(日本國의 關白의 由來와 天皇親政 등) 差遣, 隨率, 行具, 商略(倭人の 奸邪, 日女의 誘惑 등), 別離, 隱晴(行程의 天候), 欲宿, 華船, 停泊, 留館(馬車, 人力車, 寫真機 등) 行禮(洋服, 洋靴, 帽子, 削髮 등).

卷二. 玩賞(汽車, 鐵道, 複線鐵道, 騎兵, 戰車, 大砲, 電報, 議事堂 등), 結識(58名의 重鎮人士와의 面接), 燕飲(洋食作法, 日本飲食), 問答(外務省訪問, 各省卿巡訪, 日人心理 井上馨의 露國動兵說).

卷三. 宮室, 城郭, 人物, 俗尚(學校, 新聞紙 등), 政法(政治制度, 關白攝政, 官制·立法, 人民의 利益, 國家의 利益, 萬國公法, 電信, 造幣局, 上下官階級, 階級嚴重), 規條(條例, 交通規則과 罰則), 代舌, 學術(印刷), 技藝, 物產(紙, 白銅, 燭·油 등).

卷四. 之事, 歸朝, 邊朝(聞見別單 등), (修信使記錄 全 韓國史料叢書九 前揭書 pp. 1-111參照)

(171) 修信使記錄全 前揭書 pp. 129-135.

國王曰 其他는如何.

金綺秀曰 그 所謂文學은 經傳을 主로 하지 않고 오로지 富強의 術을 崇尚합니다.

—中略—

國王曰 倭國에 洋學者가 있는가.

金綺秀曰 洋學與否는 不詳知나 養兵耕田은 모두 洋術을 使用하고 있습니다.

國王曰 電線과 火輪(船)과 農器에 關하여 들은 바 없는가 日本은 이 三件을 第一急務로 하고 있다는데 事實如何 그리고 學習方法은.

金綺秀曰 訓導와 別名을 草梁館近處에 居住케 하여 草梁館에서 學習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國王曰 좋은 생각이다. 오래오래 두고 學習하면 益熟하리라.

—中略—

國王曰 器機는 어느 나라에서 由來하며 日本은 모두 이를 學習하였는가.

金綺秀曰 各國의 器機는 모두 이미 學習하였습니다.

以上은 金綺秀가 不過 三週間 日本에 滯在하면서 日本의 國風民俗의 大要를 視察하여 國王과 問答한 内容의 一部이다. 다음 見聞錄으로서 國王의 臺覽에 供한 報告書 一部를 拔萃하면<sup>(172)</sup>

一. 宮室의 制는 公私貴賤 大同小異……

一. 天皇은……親政以後 國治에 精勤不怠하여 關白時代의 廢止할 것을 廢止하고 制度의 變革할 것은 이를 變革한다. 半身의 衣服으로서 用軍에 便利한 것은 洋人の 衣服이라 해도 一朝에 舊習을 버리고 이에 따르드라도 조금도 非難하거나 강히 異言이 없다. 舊關白도 從四位로 格下되어 江戸(東京)에 居住하나 조금도 怨망하는 氣色이나 敢히 政權을 넘겨다 보는(覬覦) 野心이 없다 하며……

一. 政令은 오로지 信을 主로 한다. 其 所謂 學校의 教育方法은 士大夫子弟로부터 人民의 俊秀한 者에 이르기까지 7,8 歲로부터 書를 學習케 하고 字를 習得하며 처음에는 日本字를 가르치고 다음에 漢字를 가르치며 16 歲가 되면 또 經傳을 거듭 읽히지 않고 天文地理를 비롯하여 農器 軍器, 圖形의 說을 읽하고 手工케 한다. 또 女子도 亦是 學校에 通學하며 크게는 天地兵農 적계는 詩文書畫, 一藝一能에 專念한다. 各國人은 모두 그들의 領事館이 있어 來留하며 術을 배우고 또 사람을 각國에 派遣하여 배우게 하고 그리고 각處에서 火輪船과 火輪車를 製造하고 멀리 販賣하여 힘써 國利를 圖謀하며 君臣上下할 것 없이 오로지 國利를 為하고 富國強兵을 先務로 하고 있다.

一. 所謂, 富強의 術은 通商에 있다. 그러나 商이 반드시 利潤은 것은 아니다. 方今 日本은 많은 國家를 相手로 하며 通商하고 있으나 日本의 所產은 前의 10倍에 達하는 것은 아니며 生產하는 者는 한나라(日本)인데다가 消耗하는 者(外國)는 많은 關係로 日本의 物價는 騰貴하고 따라서 貸幣는 賤하고 物資는 貴하여 必然로 失敗의 地境에 있다. 거기다 技巧을 缺하고 藝精도 없다면 餘地畱게 이론다. 外觀上은 富強한 것 같지만 內實을 살핀다면 長久의 術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修信使 金綺秀의 所見이다. 當時 日本은 開國한지 겨우 9年에 不過하지만 그 開化의 보습을 보고 所感의 報告手記를 臺覽에 供한 것으로 朝鮮開國의 한 警鍾이 되었다고 본다.

(2) 修信使日記——第一次 修信使 金綺秀는 丙子年 5月 18일 日本外務省을 訪問하여 外務

(172) 修信使記錄全 前揭書 pp. 105--110.

卿과 談話하고 禮單을 傳達하였으며 日本政府는 修信使一行의 日本安着을 電報로 우리 政府에게 알리우는 同時에 또 本國에 보낼 急報가 있으면 電報를 發하여 急報해 주겠다고 厚意를 배풀었다. ——이러한 近代의 通信手段은 이들 修信使一行에게는 警異의 것이었을 것이다. —— 그리고 森山茂는 우리나라의 地政的 條件에 비추어 富強의 術로서 急先務는 充分한 軍備와 利器를 마련하고, 軍糧을 確保하며 器械를 一新하는 것이라고 強調하는 同時に 修信使가 日本을 遊覽하는데 있어서는 첫째로 日本의 軍制를 널리 視察하여 좋은 點을 習得하고 둘째로 器機를 자세히 視察하여 그 利點을 把握하고 셋째로 日本風俗을 널리 探索하여 取捨選擇할 것이며 歸國하여 朝鮮에 紹介 確立하므로서 富國強兵을 圖謀할 것을 勸告한 바 있고 修信使는 이 勸告를 感謝하게 생각하고 받아 들이고 있다. 그리고 森山茂는 또 韓國政府의 政策決定過程의 遲延을 指摘하여 다음과 같이 勸告하고 있다. 「即貴國政府와 交渉할 때마다 交涉이 支離遷延되고 命令一下에 即決되는 일이 없다. 我國은 그렇지 않으며 적어도 國家에게 利益이 되는 경우에는 上下가一心이 되어 斷決코 이를 行하여 조금도 遲滯하는 일이 없으며 六個月後에는 그 決定된 政策에 대한 富國強兵을 圖謀할 것을 勸告한 바 있고 修信使는 이 勸告를 感謝하게 생각하고 받아 들이고 있다. 그리고 森山茂는 또 韓國政府의 政策決定過程의 遲延을 指摘하여 다음과 같이 勸告하고 있다. 即「貴國政府와 交渉할 때마다 交涉이 支離遷延되고 命令一下에 即決되는 일이 없다. 我國은 그렇지 않으며 적어도 國家에게 利益이 되는 경우에는 上下가一心이 되어 斷然코 이를 行하여 조금도 遲滯하는 일이 없으며 六個月後에는 그 決定된 政策에 대한 細部的 節次를 定하되 또한 여기에도 큰 支障이 없다. 萬一 간혹 事務가 遲延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곧 擔當者에게 催促을 하여 기다리는 者에 弊가 없도록 한다」고 하여 日本政府의 政策決定와 行政이 合理的이고 能率의 으로 이루워지고 있는데 比較하여 韓國政府의 경우 繁文缛禮의 結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金綺秀 修信使는 웃으며 말하기를 「我國은 本來 貴國과 같이 全權大臣이 있어 政策을 斷行하는 것이 아니며 하물며 小官는 勿論 斷行할 수가 없다. 그것은 모든 일을 下에서 上에 이르기까지 小心謹慎 不縱不恣하게 處理하자니 많이 遲延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答하고 있다. 以上 兩人の 對話를 通하여 當時의 兩國政府의 統治權力構造와 行政狀況의 一片을 어느程度 엿볼수 있다 하겠다.

그리고 또 一行은 5月 19일에 海軍省에 이르러 大砲, 小雷砲 등을 視察하고 그 性能에 關한 說明을 들었으며 同日 井上馨宅을 訪問했을 때는 露西亞에 時急히 對備할 것을 縷縷히 忠告받으며 아울러 井上은 地球全圖一軸을 贈與하면서 曰「이를 奉贈하니 歸去하여 時時로 觀察하고 一度一度에 各有程里하여 以推之하면 露西亞의 距離가 貴國으로부터 幾里가 되는 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sup>(173)</sup>.

(173) 前揭書 pp. 113—128.

(3) 「萬國公法」——高宗 14 年(1877 年) 10 月에 日本代理公使 花房義質은 公文을 禮曹判書 趙寧夏에게 傳하고 아울러 國際法의 見地에서 公使 駐京의 必要性 및 그 職務待遇를 說明하고 北京 同文館發行 光緒二年(1876 年)版 星韜指掌「萬國公法」二部를 贈與하여 參考케 한 바 있었다<sup>(174)</sup>.

(4) 「朝鮮策略」——高宗 17 年에 第 2 次 修信使 金弘集이 持參한 例의 黃氏「朝鮮策略」이 朝野間에 大量의 關心을 끌었고 至大한 影響을 주었음은 앞에서도 論及한 바와 같거니와 「朝鮮策略」은 外國과의 使節의 交換과 通商技術의 學習 朝鮮의 開發 및 施設의 改良 등을 勸告하고 있어 近代化作業에 至大한 影響을 미친 바 있다.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sup>(175)</sup>.

「前略……朝鮮은 오늘의 世界의 實情에서 美國과 聯盟하도록 急히 서둘러야 할 것이며 誠意를 가지고 美國의 使者를 오게해서 公平한 修好條約을 議定하고 西洋의 友邦과 더불어 萬國의 公法을 지킬 것이며 어느 一人의 壟斷을 容納하지 말고 여러 나라로 하여금 先導케 한다면 그것은 朝鮮의 福利인 同時に 亞細亞의 福利가 됨은 疑心할 餘地가 있으려 이로서 大量의 疑心은 풀리고 國是는 確定될 것인 바 親中國하여 舊制를 少少 改革하고 結日本하여 早速히 條規를 締結하고 聯美國하여 急速히 善約을 締結하도록 國王에게 奏請할 것이다……華商船으로 하여금 釜山, 元山津 및 仁川港 등에 와서 通商토록 한다면 이로서 日本商人의 朝鮮市場의 壟斷을 防止할 수 있고 또 朝鮮國民으로 하여금 日本 長崎나 橫濱 등에 往來하여 貿易에 힘쓰게 할 것이다. 그리고 國王에게 奏請하여 海陸諸軍으로 하여금 中國의 龍旗를 襲用하여 全國의 旗章으로 삼을 것이며 또 學生을 京師(中國의 京都)의 同文館에 留學시켜 西洋語를 學習케 하고 直隸에 보내어 軍事教育을 시키고 上海 製造局에 보내어 造器를 배우게 하고 福州船改局에 보내어 造船을 배우게 하고 또 무吏 日本의 船廠, 砲局, 軍營 등에도 모두 留學시킬 뿐더러 西洋人の 天文學, 化學, 鐳學 地學 등을 위해서도 모두 學生을 留學시키고或是 釜山 등에 學校를 開設하여 西洋人으로 하여금 連々 武藝를 教習케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誠意를 다해서 外國의 技術을 學習한다면 이것이 곧 朝鮮의 自強의 基礎가 될 것이다.……朝鮮의 土地는 豐饒하고 物資도 또한 豐富하며 人物도 聰明하고 工作을 좋아한다. 朝鮮의 極南地方은 속이 크고 利가 커으며 極北地方도 아직 監察하고 있는 바로서 모두 옛부터 人跡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未開發의 偏土이며 앞으로 開發하여 기운진 方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물며 朝鮮의 中央地方에 居住하는 者가 開發에 힘써야 함은 再言의 餘地가 없으며 도록지기 西洋의 學問에 從事케 하여 理財와 勸農과 工業에 爭力하도록 하고 土地所有者는 널리 耕作을 하고 土地가 없는 者는 移徙하여 農事에 從事함으로서 將來 富國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金, 銀의 產地를 開拓함에 있어 西洋人の 開鑄法을 習得하여 곳과 때를 가려 採掘하도록 하여 이렇듯 土地를 널리 開發하면 遊食하는 人民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無限한 利益을 獲得함으로서 이 또한 自強의 基礎가 될 것이다.……우리 또한 守舊하여 不變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強大隣國들의 交通도 頻繁해져서 漸漸 우리에게 接近하여 우리를 양보고 저들만 爬蟲체하고 있다. 乘船만해도 옛적의 風帆이 오늘날 火輪으로 發展하고 行車는 옛적의 駒馬가 오늘날 鐵道로 鄭遞는 옛날의 輜傳이 오늘의 電線으로 兵器는 옛날의 弓矢이 오늘날의 火鎗으로 各已 發展했다. 萬一 兩軍이 交戰을 하게 되었을 때 저쪽에 이러한 文明利器를 具備하고 있는데 我側이 그것을 具備하고 있지 못하다면 저쪽의 精銳에 대하여 우리 쪽의 粗惡으로 相對가 되지 않을 것이며 兩軍의 勝敗와 利鈍은 不可 認可知이다. 朝鮮은 이미 門戶를 開放하여 外交를 넓힐

(174)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研究上 前揭書 pp. 623—625.

(175) 修信使日記 卷二, 朝鮮策略, 韓國史料叢書第九 修信使記錄全 pp. 167—196.

으로서 見聞을 날로 넓히고 있어 이미 舊來의 甲冑武器와 帆船이 믿을 수 없고 無用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여기에 武藝를 習得하고 新法을 探究하고 國防을 墓固히 한다면 이것 또한 自強의 基礎가 될 것이다. 國家의 利와 強을 圖謀한다면 나라의 적고 약함이 있을 것이며 다만 有能한 人材가 있고 財產과 軍兵이 있으면 自立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의 要旨에서 朝鮮國家發展을 위하여 外國과의 修交通商, 技術의 習得, 國土의 開發과 各種의 文明利器의 導入 等에 關하여 勸獎하고 있음이 注目된다. 다만 「朝鮮策略」의 著者 黃氏는 清國의 外交官인 만큼 그의 勸告속에는當時 清國政府의 對韓關係 또는 政策을 暗示하는 言辭가 內包되어 있다. 가령 「襲用中國龍旗, 為全國徵幟」라고 勸告한 것은當時 朝鮮에 國旗가 啓음을 奇貨로 所謂「宗屬關係」云云하는 意味에서 제나라 清國國旗圖案을 採用하고 나온 것인 바 國際禮儀에 어긋나는 창피스런 일이지만當時의 韓清關係를 밀해 주고 있는 것이다.

(5) 「中西關係論」一卷 其他 內外著書의 影響——高宗 18 年에 花房義質이 領議政 李最應에게 寄贈한 中西關係論 一卷과 東西伯利亞地圖 및 黑龍江邊隙地圖 등은當時의 為政者나 開化들에게 國際政治 및 對俄策에 關한 自覺을 促求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밖에 「普法戰記」「博物新編」「格物入門」格致彙編 등의 外書와 校理 金玉均 所輯「箕和近事」承旨 朴泳敎 所撰의 「地球圖經」進士 安宗洙譯「農政新編」前縣令 金景遂의 「公報抄略」등의 國內人士의 著述도 迷盲을 開發하고 時務를 理解케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sup>(176)</sup>.

(6) 教育制度의 開化——高宗 19 年(1882 年) 12 月에는 八道四郡에 論音을 내려 兩班이라도 商業에 從事할 수 있게 하고 農工商 出身의 子弟도 鄉校와 成均館 등의 學校에 入學을 許諾하였다. 이리하여 兩班만이 學問을 獨占하던 因習을 벗어나 一步前進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開港과 더불어 外國과 接觸함에 따라 各種의 새로운 教育機關이 設立되었다. 高宗 22 年에 培材學堂이 設立되어 私立學校의 嘴矢가 되었고 또 美國宣教師兼醫者 알렌 Allen의 要請으로 廣惠院을 齊洞에 設立하여 新式醫療機關의 講習이 처음 始作되고 高宗 23 年에는 美國으로부터 吉模, 房臣, 轄甫 등 三人을 招聘하여 育英公院을 세워 英語와 洋學을 教授하였고 翌年에는 다시 經學院을 두게 되었다.

(7) 國民生活의 開化——丙子年 以後로 種痘法이 日本에서 傳來되어 小兒保健에 劃期的인豫防醫療가 되었고<sup>(177)</sup> 釜山과 元山의 開港場을 通해 外國商品이 밀려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金鷄蠟(기니네)이 傳來되어 누구나 무서워하던 「마라리아」熱病治療에 크게 寄與했고, 高宗 17 年頃에는 石油가 輸入되어 照明과 燃料界에 革命을 招來하였고 自起礮에 洋綿, 洋

(176) 朝鮮史 第六編 第四卷, 壬午 高宗 19 年 8 月 儒生池錫永 開化論 p. 653 參照.

(177) 韓國史 最近世篇 震檀學會 p. 444. 參考. 註二. 金斗鍾著「韓國醫學發展에 對한 歐美 및 西南 方醫學의 影響」韓國研究叢書 第九輯 p. 89.에 依하면 第一次 修信使行의 隨員이던 朴永善이 東京에서 牛痘法을 배우고 歸國時「久我克明著 種痘龜鑑」一卷을 求해왔고 第二次 修信使行의 隨員이던 池錫永等이 그 技術習得과 傳來 및 普及에 功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染料, 洋鐵 等이 輸入되어 流行普及되고 또한 壬午軍亂後에는 農桑織造, 牧畜, 紙茶, 칠그릇(瓷), 벽돌(磚) 등의 專局이 設置되는 等 家庭生活이나 產業面에 큰 變動을 일으키었다. 그러나 한편 開港以後 先進資本主義 工業國家의 朝鮮市場의 獨占과 商品經濟의 侵略攻勢는 實로 封建的인 生產樣式 그대로의 이나라 自給自足 經濟에 대해서는 武力侵攻 以上 두려운 威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特히 日本商人을 通하여 各種 資本主義商品이 無制限하게 輸入되고 日本貨幣로 朝鮮으로 부터 米穀, 大豆 等의 穀物類와 皮革에 金, 銀 等 天產物이 買收輸出됨으로서 朝鮮經濟의 混亂을 招來하였으니 여기서 高宗 19年 辛巳年(1882年) 儒生을 中心으로 하는 摘夷運動과 大規模 反日運動이 誘發하게 되는 것이다.

(8) 歐美文化의 導入——高宗 20年(1883年) 韓美條約이 締結된 후 報聘大使로 美國에 特派된 閔泳翊一行은 美國을 들여 美大統領을 謁見하고 美國文物을 視察한 뒤 歐洲를 돌아 甲申年(1884年) 5月에 歸國復命하였다.

當時 美國이 朝鮮에 대하여 가졌던 態度와 意見을 閔大使가 傳한 國書와 信任狀에 對한 「아너」美大統領의 答辭를 通하여 살펴 보건데 大統領은 歡迎의 例辭와 平和裡에 通商貿易의 利益增進을 努力하자는 것을 力說하고 앞으로 韓美는 通商뿐만이 아니라 朝鮮이 將來 合衆國의 農具와 農事方法, 그리고 工業技術 등을 採擇하고 나아가서 合衆國의 教育制度와 法律도 採擇할 것을 懇懃이 종용하였고 또한 朝鮮이 韓·美條約을 第一着으로 締結한 데 대하여 滿足한다는 것과 兩國의 親善을 一層 더 敦篤케 하자는 것이었다<sup>(178)</sup>.

그리고 美國文物視察에 있어서는 「보스頓」의 外國博覽會와 工業製造會館의 觀覽, 「월카트」J. W. Wolcot 의 模範農場의 見學, 「로威尔」Lowell 의 主要工場視察, 그리고 「보스톤」市의 公設機關 視察, 紐育病院, 西部聯合 電信局, 消防隊, 郵便局, 船廠, 製糖會社 「이브닝·포스트」의 美國陸軍學校 等의 視察과 나아가서는 美國政治의 實際運用에 關한 知識도 배울 수 있었고 또 國務長官과 談話하는 中에서는 文武諸般事에 있어서 有能한 人物을 顧問官으로 삼아 그들의 意見을 听아서 朝鮮政府를 改革할 것에 對하여 援助하겠다는 約束을 받았다.

訪美日程을 마치고 閔大使는 美國政府가 提供한 船票를 가지고 徐光範과 邊燧를 隋員으로 하여 「유롭」으로 世界一週에 올랐으며 다른 사람들은 桑港으로 해서 바로 歸國하였다. 當時 閔泳翊 報聘使節의 歐美視察이 우리나라 文化에 및 인 影響을 살펴 보면 우선 이들 使節이 歸國後에 비로소 近代의 郵便制度가 創始되고 新式農場이 設置되어 家畜의 改良과 穀物, 蔬菜 등의 栽培法이 輸入된 것이다. 그 外로 顧問 教師, 鎮帥, 陸軍將校 및 技術者로서의 美國人의 招聘하였고 또 美國式 兵制의 輸入도 計劃되고 外交顧問 등도 招聘되었다. 그러나 文化史的으로 보아 가장 깊은 意義를 가진 것은 이 使節이 新教傳來에 대하여 一大機

(178) 文一平著 韓米五十年史 4278年 朝光社 pp. 103—105. H. J. Noble, The Korean 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n 1883. p. 250.

緣을 맺게 된事實이었다. 即 美國으로 부터 傳來된 新教는 短時日內에 國내에 普及되어 長足의 發展을 보게 된 것이며 그들의 附帶事業으로 展開한 教育, 醫療, 學術面의 모든 活動 및 施設과 連繩하여 真實로 우리나라 文化的近代化에 功獻한 바 至大한 것이었다.

우리 거래가 民主主義와 自由平等 및 博愛를 알게 된 것도 곧 이때부터였으며 이로서 韓國文化에 美國的인 要素를 뿌리박는 契機가 된 것이다. 뒤에 副使 洪英植은 徐光範과 함께 甲申開化黨의 領袖가 되었으며 洪英植는 郵政局總辦으로 任命되어 郵便制度를 세우고 郵便局을 지었으며 隣近諸國과 郵便事務에 關한 條約을 맺으라는 吩咐를 받은 바 있었다. 그리고 隨行員 蔡景瑞는 美農務省에서 各種의 種子를 얻어 와서 普及했고 國王이 京城近傍에 마련해 준 農場의 監督官으로 任命되어 農事改良에 힘썼다<sup>(179)</sup>.

## 第五章 壬午軍亂과 復古的改革

### 第一節 壬午軍亂의 原因

前述한 바와 같은 開國과 一連의 改革 및 開化政策은 守舊派의 反撥을 招來하였다. 開國에 反對해 온 保守派는 一齊히蜂起하여 反對의 上疏運動을 일으켰다. 1881年의 衛正斥邪論이 그것이다. 이運動은 1881年에 大院君側近인 安驥永 등으로 하여금 大院君의 庶長子李載先을 등에 罷免하고 閔氏政府를 打倒하는 「쿠·태타」를 陰謀하기에 까지 이르며 그 陰謀는 未然에 發覺되어 失敗하고 말았다<sup>(180)</sup>.

그러나 이와 같은 反撥과 爭奪은 單純히 新·舊派間의 葛藤이나 또는 大院君과 閔妃間의 國內政治的對抗復讐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또 그것은 一部亂民들의 一時的暴動도勿論 아니었다. 그것은 根本적으로 丙子年の 開港以來로 朝鮮에 대한 日本의 進出에 起因한 것으로서 여기에 겼들여 閔氏政權의 苛歛誅求에 對한 軍民의 不滿이 露呈한 것이라고 본다. 即 叛亂을 일으킨 軍·民들의 目的意識과 行動計劃 등이 自然發生의인 것으로 비록 大院君 같은 頑冥한 獨裁者에게 政權爭奪의 道具로 利用當하기는 했으나 確實히 革命의인 事件이었다고 하겠다.

日本은 朝鮮을 威脅하여 開國케 하고 不平等條約의 締結을 強要하여 朝鮮에 進出하였다. 日本은 不平等條約에 依據하여 朝鮮의 對外貿易을 거히 獨占하였으며 이들의 經濟的侵略은

(176) 文一平著 上揭書 pp. 106—116.

(180) 政府의 彈壓에도 不拘하고 政府의 屈辱의 外交政策에 反撃하여 各地의 儒生들을 中心으로 排外運動이 展開되어 政治的危機를 招來하였다. 특히 全國各地에서는 討倭運動이 일어나 排日派는 軍資金을 菲集하여 募兵計劃에着手하고 武器를 收集하여 1881年 9月 13日 京畿道監視日을 目標로 하여 日本公使館이나 平倉教練場 등을 襲擊하는 計劃을 했다. 그러나 이 計劃은 朝鮮政府에 의하여 事前에 發覺되어 李載先以下 30餘名이 捕盜廳에 의하여 逮捕되어 coup d'état 陰謀는 鎮壓되었다(李朝實錄一高宗實錄卷十八 高宗 18年 10月 27日條 朝鮮史 第六編 第四卷 pp. 538—618).

朝鮮經濟를 破壞하고 政治的 不安을 招來했고 나아가서는 宗主權을 固執하는 清國을 刺戟하여 朝鮮을 經濟 및 政治面에서 壓力を 加하게 하였다<sup>(181)</sup>. 다시 日本은 高宗 19年(1882年)에는 朝鮮政府에 助言하여 日本의 將校를 派遣하여 新式의 別技軍(倭別軍)을 創立케 했다. 그러나 朝鮮政府는 이 軍制改編에 의하여 淘汰될 運命에 있었던 舊軍營의 軍隊에게는 一年以上이나 奉祿米를 支給하지 않았다. 이것은 日本의 進出에 의하여 朝鮮米가 買占되어 軍糧米조차 不足했기 때문이었다. 高宗 19年 7月 上旬 朝鮮政府는 地方으로 부터 供出米가 到着되었기 때문에 간신히 一個月分의 奉祿米만을 支給했다. 그러나 이 奉祿米도 모래(砂)가 섞인 米이었다<sup>(182)</sup>. 이에 激怒한 舊式軍隊는 그 受領을 拒否하고 「閔氏政府打倒」 또는 「日本侵略者追放」을 부르짖고 蜂起하여 武器庫를 占領하고 政府高官邸를 襲擊하고 日本將校를 殺害하고 日本公館을 襲擊하여 日本公使一行을 放逐하였다. 전부터 日帝의 侵略과 閔氏政府의 不正腐敗에 反對해 온 民衆속에 또 保守派속에 不平不滿이 充滿하고 있던 차에 兵士의 暴動이 爆發한 것이다. 이것이 壬午軍亂이다<sup>(183)</sup>. 드디어 이들 軍民의 叛亂은 王宮에 亂入하여 國王에 壓力を 加하여 大院君에게 一時 政權을 掌握케 했다.當時 이 騷亂을 鎮壓할 수 있는 者는 大院君밖에 없었기에 大院君은 國王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閔氏一派에 대신하는 大院君一派가 權座에 登場한 것이다. 이로서 閔氏政府가 實施한 新制度는 廢止되고 舊制度가 復活한 것이며 朝鮮의 政情은 清·日兩國의 干涉과 勢力에 制壓되어 政治的 思想의 그리고 民族的으로 内部分裂을 惹起했다. 所謂 守舊派(親清派)와 開化派(親日派)의 分裂과 黨爭을 가져온 것인 바當時의 朝鮮政界의 内部分裂의 背景 및 黨爭發端의 原因은 다음과 같다.

日本은 開港以後 朝鮮의 對日感을 懷柔하고 朝鮮進出의 地盤을 構築하기 위하여 우선 朝鮮政界에 親日의 黨派를 育成하는데 着手하였다. 이미 論한바와 같이 二次에 걸친 修信使를 日本汽船으로 出迎하고 外交儀禮上 特例의 徽待를 베풀어 成果를 거두었다. 金綺秀 修信使一行은 歸國後 日本을 본따 諸改革을 遂行할 것을 國王에게 上奏했고 金弘集 修信使가 歸國時 寄贈받아 온 清國外交官 黃遵憲著「朝鮮策略」은 朝鮮政府 上下에 깊은 感銘을 주어 對外政策에 큰 影響을 미쳤다. 이렇듯 開國以來 5年間 朝鮮政府의 開化政策은 日本의 勸誘에 의해 뿐더러 清國이 背後에서 日本을 牽制하기 위하여 誘導한 것이었다. 그리고 閔氏政

(181) 旗田彌著 朝鮮史 p. 171.

(182) 現役軍人으로서 서울防衛에 任하고 있는 5,000名의 軍人們에게 13個月間이나 奉祿米를 支給하지 않았다.當時 宣惠廳에서 官吏 및 軍人에게 米穀類의 奉給及 衣類를 供給하기 위한 倉庫를 管理하고 있었는데 이 宣惠廳의 每日官帖에는 軍需品이 支給된 것으로 記錄되었으면서 事實上은 支給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은 大院君 執政時代에는 보지 못하던 일로서 開港以後 米價가 2.3倍씩이나 滕貴했기 때문에 現物을 管理하는 高官이 米穀을 橫流하거나 또는 配給事務를 管掌하는 下級官吏가 欺瞞橫領했기 때문에 있다(山邊健太郎稿「壬午軍亂について」歴史學研究 257號 p. 17. 李章根 韓國史 最近世篇 p. 470).

(183) 朝鮮史 第六編 第四卷 高宗 19年 前揭書 pp. 622—624, 田保橋潔著 近代日鮮關係研究上 第16章 第 42 pp. 770—785, 李章根著 朝鮮最近政治史 pp. 63. 53.

權은 以前부터 그들의 開化政策에 反對하고 威信이 되어 온 守舊派에 對抗하여 政權의 安定을 期하기 위하여 閔氏一族 및 開化派人物을 政府要職에 登用할 必要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中央政府機構를 改革하고 新設統理機務衙門의 要職을 自派人士로 充員하였다. 한편 朝鮮政府는 花房公使의 勸告로 軍制를 改編하고 兩班의 子弟를 모아서 「別技軍」을 創設하고 日本式 軍事訓練을 實施하는 등 親日開化派를 扶植하는데 急速한 成果를 거두었다.

한편 이와 같은 政府의 開化政策에 反撥하는 「討倭運動」이 各地의 儒生들을 中心으로 일어 났고 李載先 推戴의 大逆陰謀事件이 未然에 發覺되어 鎮壓되었음은前述한 바와 같거니와 이事件을 契機로正面의 政敵인 大院君의 再起를 阻止하면서 排日 守舊派政敵을 一掃한 閔氏政權은 一層 日本에 接近하는 同時 그들의 力勢을 誇示하면서 開化政策에 迫車를 加했다.

壬午年(1882年)에 들어서 閔氏政府는 그戚族의 長期執權을 企圖하여 9歲의 어린 世子의 冠禮式을 舉行하는 同時に 世子嬪까지 指名하여 册嬪禮를 서들어 올림으로서<sup>(184)</sup> 歡喜와 猜疑의 相反되는 暗流를 政界에 扶植하더니 對外의으로는 清國의 幷旋으로 美·英·獨 등과 修好通商條約을 맺고 뒤이여 露佛 등과도 修好條約을 締結하는 등 內外情勢는 더욱 緊迫해져만 갔다. 그러나 腐敗한 閔氏政權은 이에 對應하는 適切한 內外政策을 세워 밀고 나갈 能力은 姑捨하고 世子冊封에 莫大한 浪費, 巫堂·卜術·盲人等 雜輩의 致誠迷信 놀이의 巨額의 浪費 그리고 開化政策遂行을 위한 行政改革費, 外國使臣의接待費 對外(清·日)使節團 및 留學生經費, 軍制改革에 의한 軍隊維持費 其他 政府經費의 增大로 말미암아 國家財政은 塗炭에 빠지고 政府는 各種 名目的 租稅를 收奪한 것이다.

이와 같은 政府의 苛歛誅求와 더불어 日本商人의 進出은 食糧不足과 穀價騰貴를 招來하고 外國商品의 輸入은 手工業의 破產을 結果했고 거기다 高官大爵의 奢侈와 浪費, 奸吏輩의 欺瞞과 中間橫領, 行政上의 不正, 不法, 腐敗, 賣官賣職의 恣行 등으로 國政이 날로 混濁해 갔으니 民生은 悲慘의 極에 達했으며 民怨은 最高潮에 達한 것이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壬午軍亂이 爆發했음은 決코 偶然할 일이 아니었다.

## 第二節 壬午軍亂의 善後策

軍民의 暴動은 漸次 政治的 叛亂으로 化하여 大院君과 內通하여 그의 密計를 받고<sup>(185)</sup> 武

(184) 承政院日記 高宗 19年 壬午 正月 20, 26日 國史編纂委員會 1968發行 p. 847. 860. 朝鮮史前揭書 pp. 602—603.

(185) 大院君은 그에게 哀懇하기 위해 雲峴宮에 모인 暴動群衆에게 陽으로는 武衛營軍卒張順吉 등에 命하여 軍民을 鎮撫케 하고 陰으로는 未支給의 債祿米를 必히放下할 것을 約束하여 解散을 命하는 同時に 그들의 代表人物 金長孫, 柳春萬等을 邱內에 招引하여 그들의 要望을 听아들여 密計를 주었다(朝鮮史 第六編 第四卷 pp. 622—623). 그 密計 내용은 ①閔氏一族의 重臣을 捕殺할 것 ②日本公使館 및 下部監教場을 襲擊하여 日本人을 逐放할 것 ③犯闕, 但國王廢立代身 王妃閔氏를 處分할 것 등으로 알리워져 있다(山邊健太郎稿 「壬午軍亂について」—歷史學研究 257號 p. 17. 田保橋潔著 上揭書 p. 773) 또 大院君은 그 心腹인 許煜 등을 시켜 軍服으로 變裝시켜 軍民暴動속에서 爆動領率하도록 命했다고 하나 그 真相은 不明하다(朝鮮史 第六編 第四卷 p. 623).

器庫를 破壞하여 武器를 掠奪 武裝한 後 惡質軍官民을 處刑하고 衛正斥邪를 主張하다. 投獄島配當한 政治犯을 釋放하고 閔氏政權의 高官의邸宅을 襲擊하여 破壞하고 特히 親日의 인金弘集, 尹雄烈 등 約 40 餘棟의 家屋을 「貪虐蓄財」「國庫濫費」「交通倭洋」의 罪名下에 或은 破壞하고 或은 燒却시켰으며<sup>(186)</sup> 한편에서는 別技軍이 있는 下都監을 襲擊하여 堀本敎官 등을 殺害하고 나아가서는 西大門밖에 있는 日本公館을 襲擊하여 日本公使一行을 放逐하는 등<sup>(187)</sup> 激化하는 軍民의 暴動은 政府로서도 到底히 손을 댈 수 없는 形便이었다. 그리고 이 러한 暴動을 鎮定할 수 있는 것은 大院君以外에는 없었기에 國王은 急히 大院君을 召命한 것이다. 國王은 大院君에게 對하여 이번 事態를 收拾하는 大權을 委任하고 特히 國民에 對하여 教旨를 내려 「自今以後大小의 公務는 大院君에게 稟決하라」고 命하였다. 이 몇마디의 傳敎에 의하여 서울城內의 秩序는 겨우 回復하여 市民은 安堵感을 갖게 되었고 暴動軍民들도 大院君에게 期待하고 歡聲을 울렸으며 同時에 國王은 宮中깊이 虛器를 擁하는데 그치고一切의 政務는 大院君에 의하여 專斷되기에 이르렀다<sup>(188)</sup>.

이로서 大院君은 政權을 掌握하였다. 그리고 그가 處理할 政務는 山積하였다. 그 첫째는 叛亂의 鎮撫와 其善後策 둘째는新政權의樹立에 따르는 政府의改革 셋째는 戀族을 除去하고 自黨을 收用하는 것 넷째로 腐敗의一掃 등이었다. 우선 大院君은 暴動軍民을 鎮撫하기 위하여正面에 나서서 軍民의 納得에 힘썼으며 叛亂의 鎮撫를 위하여 國王의 名義로自身을 責하는 傳敎를 내리고 이번의 末曾有의 變亂은 그들 軍民이 故意로 즐겨 犯行한 것이 아니고 편안히 따르게 하지 못하게 한 國王의 責任에歸着함을明白히 하고<sup>(189)</sup> 또한 叛亂軍의 要請에 應하여 軍制를 다시 改革하고 武衛營, 壯禦營, 別技軍을 廢하여 從米와 같이 訓練都監, 龍虎營, 御營廳, 禁衛營, 總戎廳의 復設을 命했다. 倉祿米에 關해서는 이미 大院君이 公約한 바와 같이 支給을 實行하였다. 이로서 所願을 達成한 亂兵은 각其營으로 돌아가 마침 政局은 安定을 回復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重要한 善後策은 王妃 閔氏 廢立의 問題로서 閔妃가生存하고 있을지도 모르

(186) 李蘆根著 朝鮮最近政治史 p. 63.

(187) 7月 23日 저녁에 軍民一隊가 日本公館에 來襲하기 數時間前 日本公館의 密偵이었던 別技軍의 責任者 尹雄烈(親日派 尹致昊의 父로서 뒤에 内政改革을 指導하여 陸軍大臣이 되고 合併時에는 日本男爵位를 받음)은 通報하였으며 「子爵花房義質君事略」 花房子爵經驗談 p. 121) 이 密報에 接한 花房公使은 機密文書 등을 燒却시키고 數萬의 群衆 앞에 防戰이 不可能함을 깨닫고 公館을 自進하여 石油를 뿐만 아니라 放火 燒却시키고 館員一行 28명이 23日 午後 12時頃 어둠을 利用하여 公館을 脫出하였다(前記 花房子爵經驗談 p. 126. 武田勝藏著 明治 15年 朝鮮事變と花房公使 p. 17). 그러나 日本政府는 其後 日本公館이 暴民에 依하여 放火되었다고 朝鮮政府에 대하여 放火者處分을 要求하고 濟物浦條約에 의하여 賠償을 받은 것이다.

(188) 日省錄 高宗 壬午年 6月 9日, 10日.

(189) 李朝實錄, 高宗實錄卷一九. 壬午 19年 6月 初10日條 教曰, 今日之事, 尚忍言哉, 顧豫不德, 叼承丕基, 既未能儻緩, 致此無前之變, 此豈渠輩, 故犯樂禍而然, 一則豫之咎也, 二則豫之咎也, 言之及此 不覺寒心, 在院承旨一一曉諭, 使之退送.

는限 軍率들은 今後의 患을 두려워 한 것이며 따라서 亂中 行方不明의 閔妃를 探索하여 이를 處斷하기 까지는 날래 解散하려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大院君은 이들 軍民을 納得시키기 위하여 「閔妃는 今日正午頃 亂中에 이미 昇遐하신바 다만 體魄을 見失하였으니 그리 알고 退散하라」고 傳하고 閔妃의 國喪을 正式으로 頒布하고 國葬委員會를 設置하고 死體 代身 御衣裳을 入棺하여 國葬을 強行케 하는 同時に 清과 日本에게도 通告하는 등 諸般節次를 밟은 것이다<sup>(190)</sup>. 閔妃가 行方不明인데도 不拘하고 이와 같이 國喪頒布를 強行한 大院君의 眞意는 비록 閔妃가 陰身하여 生存한다 하더라도 至嚴한 體面上 다시는 君臨할 수 없으리라 判斷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와 前後하여 둘째의 收拾策으로서 政府를 改革하고 大幅의 人事改編을 斷行하였다. 即 前閔氏 政府의 最大의 改革이었던 統理機務衙門을 廢止하고 從前대로 三軍府를 復舊하여 軍國의 機務는 一切를 三軍府의 所管으로 했다<sup>(191)</sup>. 이 改編에서 從前의 統理機務衙門의 要職으로서 閔氏一族의 戮臣이나 或은 日本勢力에 阿附하여 왔던 少壯閣僚 및 權臣들을 거이 모조리 免職追放하고 大體로 近親이나 心腹人士, 그리고 保守的 色彩가 濃厚한 老政治家로 更迭하였다. 即 任商準을 總戎使로 任命하여 軍隊의 統制를 命하고 大院君의 長子 李載冕을 訓練大將兼 戸曹判書, 宣惠廳堂上에 申正熙를 御營大將에 趙義純을 禁衛大將에 李會正을 禮曹判書에 鄭範朝을 吏曹判書에 金壽鉉을 刑曹判書에 人望 있는 從姨兄 申應祖를 右議政에 각각 任命하는 同時に 領議政 洪淳穆을 留任시켰다. 그리고 三軍府의 人事에 關해서도 金炳國을 總責任者로 하여 領三軍府事로 任命하고 申櫟, 李景夏, 閔臺鎬 등을 補佐로서 判三軍府事에 任命하는 同時に 吳夏泳을 左捕盜大將에 그밖에 서울 外廓의 廣州, 水原 등의 留守를 更迭하는 등 自派人士로서 整備強化하였다<sup>(192)</sup>. 그러나 大院君의 人事整備에는 여려 가지 隘路가 많았다. 過去 그의 腹心人物들이 그동안 沒落해 버린데다가 戚族權勢에 屈服阿附해 버린터이라 人材登用이 만만치 않았다. 더구나 右議政으로 任命한 申應朝 같은 人物은 애당초 辭退하고 出仕하지 않았으며 外戚趙氏의 巨物인 兵曹判書 趙寧夏 같은 人物도 隱然中 大院君의 再執權에 不平을 품어 實質의 으로 協力하지 않았다.

大院君은 다음 收拾策으로서 近邑의 未納守令에 命하여 納稅米 輸送을 嚴命하고 이를 곳 軍率의 奉祿米 및 民衆의 糧米에 充當케 하였으며 또 從來 閔氏一族이 惡貨를 鑄造하여 閔氏一門의 不正蓄財을 罰한 惡錢의 鑄造處를 撤廢하였다. 뒤이어 從來 納稅代行의 方法으로 地方官吏가 地方物產과 交換하여 서울에 輸送함으로서 一種의 高利를 圖謀해 온 各種 都賣의 弊風을 禁止하였다. 이와 같은 惡錢鑄造禁止와 納稅代行의 狹猾한 處業禁止는 大院君이 그

(190) 政治日記卷一四. 壬午前 6月 9. 10. 11. 12日, 李朝實錄, 高宗實錄 卷一九. 第四冊 pp. 127, 377.  
教旨曰「中宮殿(閔王妃筆者注) 今日午時昇遐, 哀慕之節, 依例磨鍊, 望哭處所明政殿庭爲之」

(191) 高宗實錄 上揭書 卷19 壬午年 6月 初10日 第四冊 p. 375.

(192) 同上 卷19 壬午年 6月 10. 14日 第四冊 pp.375—380. 日省錄 高宗 壬午年 6月 9. 10日.

의 施政 不過 1個月間에 斷行한 改革으로서 腐敗를 彻底的으로 一掃하는데 큰 實効를 거둔 措置로서 民衆도 이 善政을 歡迎하고 期待한 것이다. 그러나 이 政權은 清國의 干涉으로 1個月만에 崩壞되고 만 것이다.

### 第三節 清·日의 干涉과 戚族政權의 復舊

壬午軍亂이 勃發하자 難을 避하여 隱身中이던 閔妃와 그의 側近인 戚臣들은 暗中 活躍하면서 政敵 大院君의 動態를 살펴가면서 回天의 機會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閔妃는 暴動軍民의 興奮과 自身에 대한 비방이 어느程度 가라앉은 機微를 타서 密使 尹泰駿을 王宮에 潛入시켜 宮廷內外의 情勢를 살피게 하는 同時에 自身의 生存을 國王에게 密告하고 나아가서 國王이 取할 今後의 秘策과 政敵 大院君을 除去하기 위해서 清國政府에 出兵을 請援할 것을 建議했다. 여기서 國王도 王妃의生存에 勇氣를 얻고 그의 建議를 實踐에 옮기었다. 그리하여 秘密裡에 閔台鎬 등의 戚臣과 趙寧夏 등으로 連絡하면서 天津 駐在 金允植, 魚允中 등에게 通知하여 善後交涉에 當하도록 하였다<sup>(193)</sup>. 그러나 北京의 清國政府는 時間의으로 이러한 善後 交涉이 그들에게 미치기 보다 앞서서 이미 駐日清國公使 黎庶昌을 通하여 本國의 署理北洋大臣 直隸總督 張樹聲에게 打電한 報告에 의하여 壬午軍亂의 情報를 接受하고 있었던 차이여(舊曆 6月 17日, 陽曆 7月 31日)天津에 가 있던 우리側 官憲 金允植이나 魚允중도 이 電報를 天津海關 道周馥을 通하여 들음으로써 本國의 軍亂消息를 처음 알게 된 것이다(舊曆 6月 18日)<sup>(194)</sup>. 이렇듯 國王의 清國政府에 대한 出兵請援의 交涉이 追後 뒤늦게 清國政府에 對하여 이루워 진 것이라고 推測되지만 이것이 清國政府로 하여금 其後의 積極적으로 對韓干涉을 敢行케 하는데 뒷받침이 된 것은 事實이라고 본다.

한편 軍亂의 消息이 日本政府에 알려져 그들의 對韓干涉의 經緯를 살펴 보건대前述한 바壬午軍亂을 避하여 公館을 脫出한 日本公使一行은 간신히 仁川 經由 長崎港에 寄着한 것이 陰 6月 15日(陽曆 7月 29日) 밤이었으며 끝 翌 16日 午前 1時에는 壬午軍亂의 頽末을 日本外務省에 打電하고 釜山, 元山도 安心하기 어려우니 軍艦을 兩地에 派遣하도록 上申하였다. 이리하여 다음날부터當時의 東京駐在 各國 公使들도 비로소 이 軍亂을 알게 되었다. 이 事件은 그 누구보다도 日本과 清國에게 衝擊을 주었음은 再論의 餘地가 없었다.

우선 6月 16日 밤에 召集된 日本의 緊急閣議에서는 武力으로서 對韓處分을 促求할 것에 合意를 보았고 다만 그 時期와 方法에 있어서는 主導權問題가 介在하여 出兵開戰論과 慎重論이 分裂하는 등 多少의 意見對立이 있었다.當時 日本國內 政情을 보면 帝國主義의 國際情勢가 強力히 意識되고 自由民權運動의 全盛期로서 그 彈壓에 没頭해온지라 日本政府로서는 이 事

(193) 前掲 韓國史 李瑞根著 最近世編 p. 489.

(194) 山邊健太郎稿「壬午軍亂について」—「歷史學研究」257號 p. 22. 王信忠著「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

件을 利用하여 國民의 關心을 外部로 쏠리게 하는 輿論을 増動操縱할 必要에서도 強硬侵略路線을 助長한 것이며 日本은 朝鮮政府에 對하여 單純히 軍亂에 依한 賠償을 要求할 뿐더러 이 機會에 懸案인 通商關係의 特權과 治外法權 등 諸事項을 武力으로 一擧에 解決하려고企圖하였고 萬一 朝鮮이 이에 不應하면 問罪의 軍隊를 보낼 것을 決議하여 動員態勢를 整備한 것이다<sup>(195)</sup>. 또한 井上外務卿은 陸海軍當局者와 協議하여 護衛兵의 名目으로 朝鮮에 陸海軍을 出兵할 것을 決定한 것이다. 이와 같은 日本의 陸海軍派遣에 對하여 銳敏한 反應을 보인 것은 勿論 清國이었다. 清國으로 볼때에는 朝鮮內에 親日開花黨이 擡頭하여 清國을排斥하려는 氣運이 爽ter 오던 次에 壬午軍亂이 터진 것이나 日本은 이를 利用하여 軍事的으로 朝鮮侵略을 企圖함으로서 清國의 國際的 地位를 不利하게 하리라고 推測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駐日黎庶昌 清國公使는 6月 18日(陽 8月 1日) 第二次 電報로 日本政府가 出兵을 決定한旨를 傳하고 情勢가 重大化되었음을 清國도 速히 軍艦을 派遣하여 日本의 行動을 監視할必要가 있음을 注意케 한 것이다<sup>(196)</sup> 다시 6月 20일에는 第三報로서 日本이 陸海軍을 動員하여 朝鮮出兵이 時間問題임을 報告한 것이다.

이와 같이 日本出兵의 情報를 얻은 清國政府는 이에 重大關心을 表示하고 駐日 黎公使에게 打電하여 清國이 朝鮮에 派兵하여 또한 日本과 朝鮮兩國間に 調停에 臨하겠다는 뜻을 日本政府에게 通告할 것을 命하였다. 그러나 이 提議는 日本政府에 依하여 拒絕되었다. 當時 日本에 朝野는 이미 朝鮮戰爭을 志向하는 國論이 形成되고 軍事動員을 企圖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97)</sup>.

마침 日本에 機先을 制壓하고자 清國政府는 行動을 이르켜 6月 27일에는 何等에豫告도 없이 北洋艦隊를 出動시켜 道員 馬建忠과 水師提督 丁汝昌이 軍艦 三隻을 引率하고 仁川 月尾島에 來到하였다. 이는 朝鮮國에 內亂을 契期로 日本側보다도 積極的인 干涉을 試圖함으로서 所謂「宗主國」의 權威를 세우고자 하는 속셈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6月 27日 밤에 月尾島에 到着했을 때는 이미 하루 앞질러서 日本軍艦 金剛號가 先着하고 있던 차

(195) 日本閣議의 對韓方針要旨는, ① 國際法範圍에서 謝罪와 賠償要求, ② 全權委員花房公使派遣 ③ 全權委員에게 有力한 陸海軍의 護衛를 詮한다. ④ 井上外務卿은 下關에 出張하여 全權委員을 指揮한다. ⑤ 事變의 原因性質은 아직 不明이므로 미리 全般에 걸친 細目을 決定하기 困難하므로 이 問題는 現地出張의 外務卿에게 委任한다. ⑥ 當場 釜山, 元山居留民保護를 위하여 至急 軍艦을派遣한 것 등이 있다(田保橋潔著 近代日鮮關係研究上 前揭書 pp. 788—789).

(196) 王信忠著 「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 p. 39. 「日本兵船 即赴高麗 中國似擬派兵船 前往觀變」.

(197) 清國은 6月 22日 日本政府에게 居中調整의 意思를 表示한데 뒤이어 26일에는 朝鮮國이 서회 屬邦이라는 것까지 내세워 今次의 出兵으로 日本公館의 護衛까지 清國이 擔當해 줄터이니 日本은 좀더 靜觀하라는 態度까지 表明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諸提議가 日本側에 依하여 거듭 拒否되거나 反駁되자 清國政府는 日本과의 妥協折衝을 그대로 繼續하면서 臨時應變코자 問議官魚允中까지 帶同시켜 北洋艦隊를 出動시킨 것이다(韓國史最近世篇 前揭書 p. 498).

이었다. 뒤이어 日本軍艦 三隻 運送船 三隻에 水陸兵 千數百名이 仁川에 大舉來着하자(6月29日) 清國側의 馬·丁 등도 本國政府에 兵力 및 軍艦의 增派를 要請하였고 이에 따라 吳長慶提督 丁汝昌 統領 등이 引率하는 艦船과 陸軍六營이 來着하였다(7月 7일).

日本側의 朝鮮出兵의 性格을 아리채운 清國側은 急據 서울에 到着하여 大院君을 비롯한 朝鮮政府首腦와 會談하였다. 吳와 丁이 引率하는 清軍 4000名도 서울에 入京하자 이들은(馬, 吳, 丁) 雲峴宮으로 大院君을 訪問會談하고 花房日公使와 會談한 結果로서 日本과의 紛爭을 回避하기 위하여 使臣을 派遣하여 商議하고 日本의 要求를 받아 드릴 것을 勸告했다. 大院君이 이에 斷乎히 反對하자 馬, 吳, 丁三人은 協議끝에 非常手段으로 大院君을 拉致할 것을 決定했다<sup>(198)</sup>.

마치 大院君을 7月 13日 清國兵舎에 招請하여 武力으로 拉致拘留했으며 強制로 天津에 謹送하여 清國 保定府에 拘禁한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清軍의 陰謀와 暴舉로 國王을 위시하여 朝野는 憤慨했으며 各處에서 清兵과 交戰하는 大騷動이 爆發하여 國내는 流血에 大混亂을 이루웠다. 이에 對處하여 清軍은 亂軍, 亂民의 處罰을 布告하고 그 彈壓을 強化하였다. 駐韓清國代表 袁世凱는 清軍을 이끌고 王宮을 占據했고 그 警備를 自進하여 指揮했으며 吳長慶 提督은 4000名에 清兵을 서울 각所에 配置하였다. 그들은 이미 國王으로부터 亂黨을 剿討해 달라는 委囑을 받은 터이라 吳長慶, 馬建忠 등이 趙寧夏, 魚允中과 더불어 頻繁히 往來하면서 樹立한 作戰計劃에 따라 武斷을 慢行한 것이다. 清軍은 우선 訓練大將으로 兵權을 左右하던 大院君에 長子 李載冕을 清陣으로 誘致하여 軟禁하고 7月 16일에는 武衛大將 李景夏, 壯禦大將 申正熙 등의 三軍府의 首腦를 逮捕하여 遠島에 流配시키고 이 날밤부터 17일 未明에 걸쳐 清軍 領隊는 大舉 往十里의 梨泰院 一帶에 軍人部落을 轟擊하고 한편 朝鮮政府內의 大院君 一派를 逮捕投獄하는 등 無道한 武斷을 敢行했다<sup>(199)</sup>. 그러나 朝鮮軍과 民衆은 清軍에 抗戰했으나 優勢한 清軍과 大砲隊에 對하여 慘敗했으며 많은 우리 軍人과 民衆이 逮捕, 投獄, 虐殺當했다.

이러한 一連의 事態의 進展은 日本側이 停頓狀態에 交渉을 打開하는데 絶好의 機會로 생각한 바로써 花房公使는 이 騷動 속에서도 再次 國王에게 그들의 要求를 받아 드릴 것을 強硬히 促求해 왔다. 清軍의 包圍속에 있었던 國王은 壬午 7月 15日 金炳國에게 命하여 日本要求 各個條를 馬建忠에게 提示하여 그 意見을 들은 後 直ち로 李裕元을 全權大臣 金弘集을

(198) 大院君의 拉致計劃은 清國政府의 指示가 아니고 上記 三名의 劇策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暴舉는 이에 앞서 있었던 馬建忠과 花房公使와의 會談에서 花房公使에 의하여 大院君의 廟堂으로부터의 除去를 示唆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日本은 交涉이 進展하지 않을 경우 最後의 手段으로 全軍을 서울에 進駐시켜 大院君을 廟堂에서 逐出하고자 한다는 暗示도 있었기에 馬建忠은 清國이 日本軍에 機先을 制하고자 暴舉를 敢行한 것이다(日本外交文書第十五卷, [132] 京城暴動事變始末復命書, 山邊望太郎稿 上揭書 p. 23, 田保橋潔 前揭書 p. 846).

(199) 「朝鮮史」第六編 第四卷 pp. 640—641. 韓國史 最近世篇 李培根 前揭書 p. 524.

副官에任命하고 濟物浦에 派遣하여 花房公使와 再次 會同하도록 命한 것이다<sup>(200)</sup>. 이리하여 會談은 1882年 7月 15일부터 우리 代表가 日本 軍艦을 訪問하여 再開된 以來 二日間에 難航을 거듭 하다가 始終 朝鮮全權은 日本에 武力的 威嚇과 花房公使의 脅迫에 屈하여 몇 가지 字句를 改訂하는 程度로 花房公使가 提出한 原案대로 承認을 強要當하게 된 것이다. 이로서 六個條의 濟物浦條約과 다시 二個條의 修好條規續約에 署名調印까지 끝내고 말았다<sup>(201)</sup>. 그 要點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兌徒의 處罰을 20日 期限으로 實踐하되 萬若 朝鮮國側이 그 期限內에 逮捕不能하다면 日本側이 저희 마음대로 處理한다(第1條). 둘째로 日本의 損害賠償으로 軍事費 50萬圓과 遭害者의 遺族 및 負傷者에 對하여 5萬圓을 補償한다(第4,3條). 셋째로 日本公使館은 護衛兵員「若干」名을 駐屯시키되 그들의 兵營施設과 維持費는 朝鮮國이 負擔한다(第5條)——日本側은 公館警備를 口實삼아 「若干」이라는 字句만을 塗糊해 놓고 其實 이나라 首都에 一個大隊兵力을 駐屯시키는 侵略的 行爲를 散行했다. 넷째로 謝罪使의 派遣 等이며 同時에 다섯째로 楊花鎮의 開港과 公使館員의 朝鮮內地 各處의 旅行의 自由에 關한 付帶條約(續約) 등이 그것이다.

清軍에 의하여 軍亂의 大部分의 被疑者들은 이미 斷罪된 바이지만 濟物浦條約에 대하여 日人襲擊의 나머지 被疑者들을 逮捕하여 日人立會下에 處罰했고 軍亂首謀들도 處刑했다. 竹添 花房公使는 國王을 謁見하고 또 清國 軍艦으로 馬建忠, 丁提督도 禮訪한 뒤 修信使 朴泳孝副使 金晚植 등과 同伴하여 日本으로 歸國했고<sup>(202)</sup> 花房를 代身하여 竹添進一郎이 新公使로서 서울에 駐劄하게 되었다. 그는 條約대로 公館護衛를 위하여 陸軍 一個中隊를 서울에 駐在시켰으나 清國도 袁世凱公使의 護衛로서 2000餘名의 軍隊를 서울에 駐屯시켜 將次 日·清軍衝突을 蒼起케 했다.一方 國王은 7月 18일에 大小臣僚와 全國民에게 上國의 軍援으로<sup>(203)</sup> 亂軍이 鎮定되고 大義가 宣明되었으니 安心하라는 要旨의 教書를 내린 다음 同 20일에는 國王의 否德을 自責하여 全國民에게 呼訴 嘉諭하는 縱音을 널리 頒布하였다.

무릇 壬午軍亂은 日本의 侵略的 進出에 대한 朝鮮民衆의 抗議이었다.勿論 거기에는 雜多한 他要素도 뒤섞여 있지만 日本에 대한 民衆의 抗議가 主流를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는 將次 到來할 反日運動의 先驅라고도 하겠다. 그리고 壬午軍亂後 日本은 政府의으로는 一時 後退하였지만 經濟的으로는 強力하게 進出했으며 따라서 朝鮮民衆의 生活은 더욱 貧困해져서 反日氣運은 드높아진 것이다. 한편 清國은 이 軍亂을 利用하여 日本

(200) 「朝鮮史」上揭書 p. 641.

(201) 高宗實錄卷之十九 壬午年 7月 17日條, 上揭書 pp. 640—642.

(202) 이번 修信使一行의 隨員에는 金玉均, 徐光範, 閔泳翊 등이 隨行했다(朝鮮史大系 最近世篇 p. 97).

(203) 韓國史 前揭書 p. 526 高宗實錄卷之十九 壬午年 7月 18日「上國調兵東援, 拿獲亂軍, 天討已加 大義乃明 大小軍民, 安心靜居, 無胥動浮言, 無妄怪驚恐」

에 反擊했고 特히 日本의 進出을 防止하기 위하여 「韓清商民水陸貿易章程」을 締結하여 (204) 舊來의 宗屬關係를 再確認하는 同時に 日本을 一旦 政治的으로 後退시키고 清國의 主導下에서 朝鮮의 內政, 外交 및 軍事에 이르기까지 깊이 干涉한 것이다.

他方 閔妃는 8月 1일에 清兵의 護衛下에 忠州의 避難處로부터 王宮에 歸還하자 清國의 支援으로 再次 政權에 干涉함은勿論하고 軍亂以前이나 다름없는 戚族世道를 再現하였다. 다만 앞서 大院君의 保守政策에 反對해온 閔氏一派는 이제 朝鮮民衆 속에 싹트는 反日氣運을 利用하고 아울러 清이 朝鮮政界에 進出함에 따라 清에 依存하는 反日·保守勢力으로 둔갑(遁甲)하여 復古的改革을 斷行한 것이다. 이제 大院君 執政時의 舊衙門을 滅止하고 壬午年 6月 以前의 政府制度로 復右할 必要가 있었다. 그準備로서 統理機務衙門의 再版인 機務處를 設置하고(7月 25日) 趙寧夏(兵曹判書), 金炳始(戶曹判書), 金弘集(護軍), 金允植, 洪英植, 魏允中 등이 王命으로 每日 같이 會合하여 改革을 票議케 한 것이다. 마침 清國이 朝鮮政府에 推薦한 顧問 馬建常과 「몰렌도르프」(穆麟德; Paul Georg von Möllendorff)<sup>(205)</sup> 등이 來着하여 急速히 具體化되어 同年 11月에는 統理衙門 및 統理內務衙門을 設置하고 同年 12月 4일에는 統理衙門을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略하여 統署 또는 外衙門) 統理內務衙門을 統理軍國事務衙門(一般的으로 內衙門)으로 改稱했다. 前者は 清總理 各國交涉通商事務衙門을 본반 것으로 外交通商關係事務를 一切 管掌하고 征榷·掌交·富敎·郵程의 四司를 分置하고 督辦(趙寧夏), 協辦(閔泳翊, 金弘集, 穆麟德, 馬建常 兼職), 參議(金晚植, 金玉均), 主事 등 官을 두었으며 後자는 三軍府·備邊司의 後身이라 하였고 軍國의 機務는勿論, 內政一切를 管掌했으며 理用·軍務·監工·典選·農桑·掌內·農商의 7司를 分置하고 總理(洪淳穆, 金炳國), 督辦(閔台鎬, 尹滋惠, 金炳始, 金有淵), 協辦(金允植), 參議(洪英植, 魏允中, 申箕善) 主事 등의 官을 두었다.

(204) 「中日交涉史料」卷五(184)附件一 信大淳平著「韓半島」pp. 482~483. 朝鮮史 第六編 第四卷 高宗 19年 壬午 8月 22日 pp. 651~652. 뒤이어 「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등을 締結하여 朝鮮에 대한 宗屬關係를 明白히 하고 朝鮮에 대한 貿易上의 廣範한 特權을 獲得했다. 그리고 이들章程은 韓清間의 通商條約이라기 보다는 清國의 朝鮮에 대한 通商上의 命令書라고 하는 것이 適切한 것이었다.

(205) 朝鮮政府는 壬午軍亂 善後處理에서 花房日公使와 交涉하는데 있어 오로지 宗主關係에 있는 清國의 道員馬建忠의 指導를 받은 것이며 다시 나아가 壬午年 陽 10月에는 兵曹判書 趙寧夏 및 江華府留守 金允植 등을 天津에 派遣하여 直督에게 外交 및 軍制改革에 關한 善後策을 上申하여 그 指導를 請한 바 있었다. 天津에 到着한 趙 등은 外交顧問을 李鴻章에게 請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李는 馬建常(馬建忠의 實兄으로 歐洲留學한 駐日外交官)과 「몰렌도르프」(法律·東洋言語學을 專攻한 駐清天津獨逸領事館通譯官 및 外交官으로서 李鴻章의 幕客임)을 推薦한 것이다. 특히 「몰렌도르프」는 清國의 制度를 본따 海關制度를 新設할任務를 띠고 왔던 것이다. 이들은 壬午年 陽 12月 15일에 趙寧夏, 金允植과 함께 朝鮮에 來着하여 陽 12月 27일에 國王은 이들 外國顧問을 引見했다. 이는 朝鮮國王이 西洋人을 引見한 最初의 일로써 宗主國의 推薦이 있다고는 하지만 當時 國王, 王妃 閔氏 및 戚族들의 革新思想의 一端을 엿 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日省錄 高宗 19年 壬午年 11月 16.17일 田保橋潔著 前揭書 p. 869).

그리고 別途로 議政府에 贊議를 두어 馬建常을 이에 充員했다. 뿐만 아니라 内·外 衙門과 前後하여(1882—1883) 새로 鑄錢所(後의 典圜局·堂上에 閔台鎬), 機器局(總辨에는 朴定陽, 金允植, 尹泰駿, 李祖淵) 및 褱負商을 統轄하기 위한 惠商公局(堂上에 閔台鎬, 總辨에 韓圭稷, 閔泳翊, 尹泰駿, 閔應植, 李祖淵 등을 充員) 등이 新設되었다<sup>(206)</sup>.

그러나 이와 같이 内·外 및 軍事衙門以下 新機構를 잔뜩 늘어 놓기만 하였지 從前의 낡은 모든 機構를 整備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벌려 놓았기 때문에 新舊의 有名無實한 감투가 많아 여러가지 廢端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壬午年 10月 20日 王命으로 觀象臺에 減省廳을 設置하고 政府機構를大幅 廢合整備하는 일을 議政府 公事堂上과 機務諸臣, 吏·兵曹各判書 그리고 戶曹 및 宣惠堂上과 貢市堂上 등으로 하여금 合同하여 研究토록 했다<sup>(207)</sup>. 그리하여 이 課業을 魚允中이가 責任지고 擔當한 것인바 그는 國際知識에 밝고 剛直한 性品의 所有者로서 關聯者들의 非難도 받고 怨恨까지 사 가며 무단히 싸우면서 大膽한 改編案을 作成하여 提出했으나 本來 政府機構의 廢合과 緊縮減員問題인지라 막상 實踐에 옮기자니 利害關係者의 反撥과 妨害에 부딪친 것이며 開化革新을 支持한다던 王室, 戚族과 그 營類들 까지도 躊躇하고 減縮을 忌避할 뿐더러 魚允中 같은 有爲의 人材를 西北經略使의 外職으로 轉補케 한 것이다<sup>(208)</sup>. 이 當時 魚允中の 主宰下에 減省廳에서 成案하여 入啓한 改編案을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 一. 宗親府의 正卿의 員數가 過多하므로 國王의 十寸親 以外는 모두 減下할 것.
- 二. 議政府堂上으로 年 七十歲 以上은 減下할 것.
- 三. 忠勤府의 圳土를 戶曹로 移管하고 該府의 支用은 忠翊衛의 番錢中에서 計定할 것, 그리고 다른 貢契나 物品進上條도 禁止하고 不足條는 戶曹로부터 支給케 한다. 그리고人事行政에 있어서는 堂上은 單一員만을 充員하되 下級職에게 事務를 마기도록 하고長官이 忠義를 마음대로 천거하여 下位職에 任用하는 弊害를打破하고 銓曹로부터 천거한 勳裔中에서 闕位가 생김에 따라 單望으로 選任할 것.
- 四. 五衛都摠府를 革罷하고 總營을 減下할 것. 이에 따라 前職判書 및 參判은 兵曹, 漢城府, 訓練院 등에 轉補任하고 郎官은 兵曹에 轉補하고 4所衛將 衛軍은 龍虎營에 轉屬케 할 것.
- 五. 扈衛廳大將別將을 減下하고 軍役은 龍虎營에 屬하게 할 것.
- 六. 訓練都監別將은 減下하고 龍虎營에 移屬할 것.

(206) 朝鮮史 第6編 第4卷 pp. 549—550. 554—557. 597. 625. 644. 665. 667. 669—670. 673. 679. 691. 686. 695. 704 등 參考. 이들 內外衙門의 改編은 大體로 庚辰(高宗 17年) 12月부터 壬午(高宗 18年) 年에 걸쳐 이루워졌고 其外의 鑄錢所 등 重要機關의 設置와 人事配置는 壬午年 12月에서 癸未年(高宗 20年) 12月 사이에 이루어졌다.

(207) 朝鮮史 第6編 第四卷 前揭書 p. 662. 備邊司臘錄 高宗 19年壬午年 12月 30日. 國史編纂委員會 p. 676. 承政院日記 高宗 19年壬午年 12月 pp. 304—305 國史編纂委員會版 1968 刊行

(208) 朝鮮史 前揭書 癸未 正月 28일 p. 675.

- 七. 司導寺, 內贍寺, 內資寺, 司宰監, 義盈庫, 掌苑署, 司圃署(王室의 需用, 供給, 宴會, 接待, 園藝 등을 위한 重疊된 機關) 등을 革罷하고 提調는 減下하고 郎官은 戶曹에 移管하고 進上物品은 司鑿院에 直納하고 從來, 掌苑, 司圃兩署의 祭享物種에 關한 物品은 奉常寺에 移納도록 할 것.
- 八. 瓦署, 造紙署를 革罷하여 工曹로 移屬하되 提調는 減下하고 郎官은 員外郎이라 稱함.
- 九. 惠民署, 活人署(施療, 救恤機關)를 革罷하여 典醫監에 移管하고 惠民署官生은 典醫監에 活人署郎官은 禮曹에 移屬할 것.
- 十. 武藝廳을 革罷하여 武藝宣傳官은 訓練院에 參下武兼은 部將廳에 移屬할 것.
- 十一. 舟橋司를 革罷할 것 幸行時의 舟橋는 禁衛營으로 하여금 專管舉行케 할 것.
- 十二. 潛川司는 漢城府에 移屬할 것.
- 十三. 能慶廳(武官의 兵學敎習機關)을 革罷할 것.
- 十四. 內弓房을 革罷할 것.
- 十五. 六曹郎官의 文蔭武區別을 撤廢할 것.
- 十六. 祭官은 吏曹에서 分差하되 年齡을 制限할 것.
- 十七. 外道方物의 進上 등을 省減 또는 廢止할 것<sup>(209)</sup>.

以上과 같은 改編案은 當時代의 中央行政組織에 있어 機構와 業務의 重複을 避하고 人員을 減縮하고 國家財政을 節減하고 各機關의 分掌業務의 合理的 再編成을 部分的으로 試圖한 것 으로서 勿論 中央行政體制의 根本的인 改革은 못된다 하더라도 이 時節에서는 이 程度나마 매우 革新的 內容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대로만 斷行할 수 있었다면 行政發展에相當한 成果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三軍府와 機務處를 內務衙門으로 統合하는 程度에 그치고 其他의 廢合 및 減員을 위한 改編案은 遲遲不振한 채 魚允中만 非難 받고 西北經略使로 左遷되고 말았다. 그러나 魚允中은 西北經略使로써 다음과 같은 훌륭한 業績을 이루하였다. 即 첫째, 平安道沿江十八鎮을 革罷하고(高宗 20年 4月 4日), 둘째, 高宗 20年 4月 以來로 清國側 邊境當局에 照會하여 各境界를 審查하고 本國 貧民의 歸還을 促求하는 同時, 白頭山 分水嶺을 審查하여 清國側과 折衝함으로서 白頭山 定界碑를 基準으로 土門, 豆滿兩江流域의 韓·清國境界를 明切劃別했으며(高宗 20年 7月 29日), 셋째, 義州와 그 對岸인 清國側의 各地方과의 交易을 위한 中江通商章程 24條를 議定하는(高宗 20年 12月 29日)등 功을 세웠던 것이다<sup>(210)</sup>.

如何間에 大院君의 執政以來로 政治的 變動과 清·日兩國의 外壓 또는 自立的인 行政革新의 努力 등으로 말미암아 官制의 改廢가 頻繁했음을 앞에서 論한 바와 같다. 그러나 大體로

(209) 朝鮮史 上揭書 壬午年 12月 29日 pp. 607—671. 從政年表 壬午年 12月 29日. 30日.

(210) 朝鮮史 上揭書 pp. 979. 692. 693. 703. 704.

로 朝鮮王朝의 行政改革은 壬午年(高宗 19 年) 12 月의 改革으로서 一旦 確立된 셈이며 그후 高宗 21 年에 統理軍國事務衙門을 議政府에 統合했다가 곧 內務府를 復設하는 部分的 改革이 있었을 뿐 甲午改革까지 이 制度가 持續되었다. 따라서 第四章 第二節에서도 論及한 바와 같이 朝鮮政府는 高宗 17 年 庚辰 12 月 17 日 統理機務衙門이 新設된 以來로 大體로 內外二衙門制를 採擇해 온 셈이다. 도리어 생각해 보면當時와 같이 政府의 機能이 複雜하지 않았던 狀況下에서는 더퍼놓고 強大宗主國의 大規模의 內閣制를 模倣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簡素한 中央政府體制가 豐臣 우리나라 實情에 맞았던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와 같은 統理衙門系의 新官署는 舊來의 議政府와 六曹體制를 存續한 채로 그 外廓에다 設置한 關係로 政府構造上 屋上架屋의 弊를 免치 못했던 것이다.

한편 軍制의 改革은 官制로 다도一步 앞서서 이루어졌다. 軍亂中에 이미 叛亂軍의 要請으로 軍制를 改革하여 從前과 같은 五營軍門을 復設했음은 本章 第二節에서 論及한 바와 같거니와 變亂中 서울의 治安은 廣東水師 提督 吳長慶이 指揮하는 清兵 約 4000 名으로서 維持되었지만 叛亂을 이르킨 朝鮮國軍의 改編은 容易한 일이 아니었다. 廟堂은 舊式軍이 單弱하고 統制하기 困難하기 때문에 이를 改革하고자 趙寧夏가 天津하는 便에 北洋大臣 李鴻章에게 鍊軍教師의 招聘과 新式兵器의 供給을 依賴하였다. 마치 提督 吳長慶이 서울에 駐留하고 있었기 때문에 鍊軍教師의 人選이 同提督에게 委任되었으며 吳提督은 그 營務處인 袁世凱에게 委託했기 때문에 袁世凱는 朝鮮壯丁 1,000 名을 挑戰하여 訓練하고 이를 新建親軍營이라 稱하고 左右 二營으로 나누워 國王의 親臣 李祖淵을 左營監督 尹泰駿을 右營監督으로 하여 純全한 清國式 訓練을 實施했다<sup>(211)</sup>. 뒤에 다시 別技軍을 改編하고 前營과 後營을 增設하여 結局 左·右·前後 4營이 完成되자(1883 年 10 月) 그 監督을 訓練使라 改稱하고 韓圭璣을 親軍前營使 李祖淵을 左營使, 閔泳翊을 右營使, 尹泰駿을 後營使에 任命했다. 그리고 海防事務總管에는 閔泳穆을 任命했다. 이들은 모두 戚臣이 아니면 國王의 親臣이었다. 그리고 兵器은 앞서 北洋大臣 李鴻章에게 請願한 바에 의하여 天津機器局의 舊式 青銅銃砲 10 門과 英製新式 銃砲 1,000 挺과 彈藥을 供給 받았으며 其敎官은 모두 清國武官으로 實事上 駐韓清國軍 司令官의 統制下에 놓였던 것이다. 또한 朝鮮留學生을 清國北洋機器局에 入學시켜 武器製造를 學習케 했으며 나아가서는 武器製造를 위한 機器局을 新設하고 이에 必要한 諸般機材를 李鴻章의 幹旋으로 購買하는 同時に 航海術 蒸氣機關, 氣象觀測, 火器, 火藥製造 등에 必要한 書籍과 圖本·模型 등을 寄贈받았다<sup>(212)</sup>.

(211) 王藝生著(長野·波多野譯)「日支外交六十年史」第1卷 pp. 257—296. 朝鮮史 上揭書 p. 658. 661. 袁世凱는 朝鮮外交事務으로서 派遣되었다.

(212) 朝鮮史 上揭書 p. 658. 661. 664. 683. 700. 726. 日省錄 高宗 20 年 癸未年 10 月 20 日, 甲申年 8 月 26. 28 日. 韓國史 最近世篇 前揭書 p. 543. 먼저 領選使從事官 金明均 天津으로부터 中國工匠四名을 帶來하였으며 機器廠을 三清洞 北倉에 設置하여 軍器製造法을 教習시켰다(日省錄 癸未年 4 月 12 日 朝鮮史 上揭書 p. 683).

그러나 提督 吳長慶에게 주어진 任務는 單純히 軍事上의 것만이 아니었다. 李鴻章은 吳提督에게 內命하여 馬建常, 「물렌도르프」 등과 密接히 連絡하여 朝鮮國政府의 施政 特히 外交 財政을 監督케 한 것이다. 따라서 吳提督은 軍事上의 事項은 袁世凱에게 그리고 外交財政은 馬建常「물렌도르프」에게 委任한 것이다.

如何間에 吳提督이 六營 3,000 名의 清兵을 이끌고 서울에 駐屯하여 軍事, 外交, 財政에 關한 權限을 掌握하고 있는 동안은 壬午 軍亂後 朝鮮國內의 治安을 維持하고 外國勢力의 侵入을 防壓하기에 充分하였다. 거기다 最近 10 年間 世道政治를 해온 大院君은 멀리 天津 直隸保定에 拘置되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 吳提督의 撤退를 前後하여 1883 年부터 1884 年에 걸쳐 安南問題를 둘러 쌓고 清佛戰爭이 勃發하여 朝鮮의 內外政情은 重大影響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이 戰爭을 契機로 하여 清國朝廷內部에 重大한 政治的 危機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清國의 朝鮮에 대한 強壓이 漸減하였으며 特히 南支那에 있어서 清國의 敗報가 連이어 到達되자 宗主國의 威信도 크게 떨어지자 壬午以來로 重加된 壓迫에 눌려 오던 反動으로서 日本의 再起와 親日 開化勢力의 勃興을 促進했기 때문이다. 即 日本은 이 機會에 朝鮮으로부터 清國勢力を 一掃하여 朝鮮進出의 積極的 對韓政策을 企圖했으며 他方 朝鮮政界에도 清國의 지나친 干涉과 壓制에 不滿을 품고 反清熱이 勃興하여 이 機會에 日本勢力を 背景으로 清國勢力を 排除하여 親日政權을樹立하고자 하는 親日開化派가 擡頭한 것이다.

## 第六章 近代化運動과 甲申政變

### 第一節 外壓과開化獨立黨의 組織化

壬午軍亂以後 清國의 지나친 干涉과 強壓은 朝野의 不滿을 사게 했다. 이러한 內外狀況下에서 親日派가 擧頭했다. 即 江華條約 以後 日本에 修信使의 隨員으로 日本을 차례로 視察하고 돌아온 洪英植, 朴泳孝, 金玉均, 尹雄烈, 徐光範, 徐載弼 등을 中心으로 하는 名門의 貴族出身者<sup>(213)</sup>들은 清國의 勢力を 朝鮮으로부터 追放하기 위하여 日本과 提携하여 爲先 開

(213) 洪英植(1855年生)은 南陽洪氏, 原任領議政洪淳穆의 第二子로서 明憲大妃의 一族이며 辛巳年に 日本行 遊覽團員으로 丙戌未年에 遣美使節로 往來한 바 있었다. 朴泳孝(1861年生)는 播南朴氏, 哲宗의 駙馬錦陵尉로 判書 朴元陽의 子, 朴泳教의 弟이며 金玉均(1851年生)은 安東金氏江陵府使 金炳台의 子로 刑曹參議 金炳基의 養子이며 以上 朴泳孝와 洪英植은 金玉均과 더불어 國內改革의 大事를 謀議한 代表의 人物들이었다. 다음 徐光範과 그의 조카 徐載弼은 達城(大邱)徐氏 特히 徐光範(1759年生)은 純祖時領議政 徐龍輔의 曾孫參判 徐相翊의 子이며 尹雄烈은 加平尹氏 尹致昊의 父로서 壬午軍亂時에는 日公館의 密偵으로 別技軍의 責任者이었다. 이들은 모두 朝鮮의 代表의 兩班이나 戚族閔氏, 趙氏에 놀려서 何等의 勢力도 地位도 갖지 못했다. 이들이 政界에 進出하게 된 것은 오로지 高宗의 慢려에 의한 것이었다. 高宗은 海外新奇事物에 대한 好奇心이 많이 國外에 遊覽하여 見聞을 넓힌 少壯有爲의 士를 別入待를 命하여隨時引見하고 其所說을 듣는 것을 趣味로 하셨다.

「逆黨 金玉均, 朴泳孝, 洪英植, 徐光範, 徐載弼 等, 曾經 遊歷日本, 蘇視本國, 輕慢人倫, 輕財喜事, 侈濫踰分, 我大君主, 爲薄有才辯略通外國之情, 瓶之以顯官, 待之以親信」

氏政權을 打倒하고 革新政府를 樹立함으로서 政治的 改革을 斷行하고자 한 것이다. 마치 日本은 軍亂以後 政治的으로는 一時 朝鮮으로부터 後退하였으나 어떤 機會에 朝鮮으로부터 清國勢力を 一掃하고 親日政權을 樹立하려고 엿보고 있었던 차였음으로 이 兩者는 內外呼應하여 甲申政變이란 政治的 工作이 始作된 것이다. 이 甲申政變의 性格에 關해서는 그 立場에 따라 몇 가지 相異한 評價가 加해지고 있으나<sup>(214)</sup> 이 政變이 日本의 政治的 陰謀가 그 動機가 되고 原因이 되었음을 認定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金玉均一派가 政權慾에서 日本勢力과 結托한 陰謀라고만 볼 수도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 적어도 그 當時의 歷史的 條件下에서는 進步的 意圖가 內包된 것이며 朝鮮近代化運動으로서의 進步的 役割을 認定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려한 見地에서 清日兩國의 外壓과 開化獨立黨의 組織화에 關하여 여기서 論하고자 한다.

日本은 壬午軍亂의 始末로서 濟物浦條約을 그의 強壓的 條件下에서 締結케 한 後 花房公使는 이 條約의 事後 處理로 朝鮮으로부터 修信使(謝罪使)로서 金玉均, 朴泳孝 등을 同伴하여 歸國하였다. 金玉均, 朴泳孝 등은 渡日 後 가는 곳마다 극진한迎接과 厚待를 받았으며 滯日中의 旅費補助는 勿論하고 濟物浦條約에 의한 賠償金의 年賦延期와 實額面 拾貳萬圓의

#### (承政院記註 甲申變亂事實)

그리고 이들 金玉均, 朴泳孝, 徐載弼 등 貴族出身 青年政治人們에게 開化知識을 紹介하고 啓發한 開化運動의 先驅者이며 丙子修好條約 前後부터 門戶開放과 近代化를 提唱한 先覺者로써 中人出身의 吳慶錫, 劉大致 그리고 兩班出身의 朴珪壽 및 所謂 開化僧으로 알리워진 李東仁 등의 役割에 關해서는 앞에서 論及한 바와 같다. 이들의 役割이 後日의 開化獨立黨의 組織화와 關聯이 있었던 것이다.

- (214) 甲申政變의 性格에 關해서는 相異한 評價가 이루어져 왔다. 從來 日本의 學說에서는 이 政變의 政治的 陰謀를 美化誇張하여 朝鮮開化獨立運動이었다고 定式化해 왔다. 이러한 學說의 由來는 이 事變後 日本에 亡命한 主謀者 金玉均의 手記「甲申日錄」(明治 17年—1884年—)이 秘密히 日本에서 配布되었고 其後 그의 言行을 記錄한 鈴木省吾編「朝鮮金氏名士言行錄」(明治 19年)이 發刊되고 뒤이어 事變에直接加擔한 井上角五郎手記「漢城迺殘夢」(明治 24年)이 發刊되었기 때문에 이들 史料에 立脚하여 叙述된 渡邊修二郎著「東邦關係」(明治 27年) 菊池謙讓著「朝鮮王國」(明治 29年) 信夫淳平著「韓半島」(明治 34年) 等의 時論이 政變前後の 朝鮮政界를 兩分하여 在來의 政府重臣을 支那黨 또는 「事大黨」이라 하고 金玉均一派를 「日本黨」 또는 「獨立黨」이라 稱하여 讀美했을 뿐더러 日帝時代에는 政策上 이 政變을 誇張하여 「朝鮮政府를 根本的으로 改造하고 自主獨立의 邦國으로 하려는 大理想을 懷抱한 青年愛國者의 團體로서 日本의 援助를 期待하여 朝鮮改革運動을 이르렀다」(田保橋潔著「近代日鮮關係研究」)고 論하여 朝鮮近代化運動의 先驅를 이룬다고 規定해 왔다. 한편 當時 朝鮮政府는 이 事件의 主謀者 金玉均 등을 「萬古의 逆賊」으로 보고 刺客을 日本에 潛入시켜 1894년 金玉均을 上海에 誘出시켜 殺害하고 그 死體를 朝鮮에 까지 運搬하여 逆賊賣國徒로서 金玉均의 尸體를 八道民衆에게 公開할 程度였다. 또 今日의 朝鮮史家中에서도 甲申政變을 朝鮮의 進步와 發展에 何等 도움이 되지 않고 近代化를 促進한 改革運動이라 할 수 없으며 金玉均一派가 自己의 政權慾에서 日本勢力を 利用하고 또 利用當하여 政治的 暗殺陰謀를 企圖한 政變으로 朝鮮의 半殖民地化를 深化한 것이라고 보는 者가 있는가 하면(申國柱著「近代朝鮮外交史研究」1966 p. 216) 甲申政變은 「朝鮮의 社會生活에 있어서 進步의 役割을 遂行하고 進步의 思想의 扶植을 促進했다」(李清源著「朝鮮近代史」pp. 86—87) 또는 「이 時期의 歷史的 條件下에서는 確實히 進步의 意圖가 그 속에反映되었다」(李羅英著「朝鮮民族解放闘爭史」pp. 108—109)든가 或은 朝鮮近代化運動의 自主的의 先驅이었다」(李瑋根著「韓國史最近世篇」p. 639) 등으로 規定하고 있다.

借款交渉 및 政治資金援助와 一個大隊 新式軍隊養成을 위한 軍事援助의 約束 等에도 日本政府의 厚意로 成功을 거두었다. 또 이들 修信使一行은 日本政府의 井上外務卿 등 要人과 福澤諭吉, 後藤象二郎 등 日本 民間有力者<sup>(215)</sup>들의 招待優遇를 받고 朝鮮의 開化革新의 自強策에 關한 劍說과 激勵를 받았으며 美·英·獨·佛·和蘭·西班牙 등의 歐美外交使節들과도 接觸하여 世界大勢와 國際關係에 對한 新로운 知識도 많이 摄取했으며 明治維新 以後의 日本의 發展相에도 마음이 끌린 이들은 스스로 깨닫는 바 있어 新興日本의 飛躍的인 文物制度를 본받아 祖國을 開化革新하고자 決心을 굳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들의 改革企圖는 當時의 歷史的 條件下에서는 國民運動으로서 實現하기가 困難하고 또 日本의 明治維新의 方式을 본따서 國王을 中心으로 宗室의 同志를 紛合하여 推進하여야 할 形便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日本의 援助에 의하여 守舊派의 戚族政權을 打倒하고 새로운 親日派政權을樹立하는 것을 첫째 目標로 삼았던 것이라고 본다. 한편 日本의 朝野도 이 機會에 朝鮮의 親日派를 積極的으로 支援하여 하루 速히 朝鮮政府로부터 親清派를 追出하고 金玉均政府를樹立하므로서 年來의 宿望인 對韓進出을 策動한 것이었다.

如何間에 이들 修信使一行의 大部分의 構成要員은 朴泳孝, 金玉均을 中心으로 한 開化獨立의 同志들로서<sup>(216)</sup> 近代國家意識에 눈뜨기 始作한 愛國者들이었다. 이들이 이번 修信使行에 있어서 自主獨立國家의 最初의 象徵으로서 太極四卦의 國旗를 作成하여 使用한 것은 歷史上 永遠히 意義있고 記念할 일이었다. 修信使 朴泳孝一行은 日本으로 出發하기에 앞서 國旗圖案에 對한 腹案도 마련하고 適切하게 作成使用하라는 國王의 內諾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그들이 便乘하고 가게 된 日本汽船 明治丸 船上에서 太極四卦圖案을 國旗로決定作成하여 日本 神戶에 上陸한 以來 隨時 揭揚使用하여 獨立國家의 體面을 維持할 수 있었고 國際的 모임에서는 國旗로서 우리 代表의 座席을 表示할 수 있었고 特히 英·美·清·日의 各國이 모두 우리 國旗를 그리어 갔기 때문에 世界的으로 알리어지게 되었다. 또 本國 機務處

(215) 壬午軍亂을 契機로 日本의 政界軍部는 勿論하고 財界學界 및 言論界에서도 朝鮮問題에 關하여 깊은 關心을 갖였다. 其中에서도 慶應義塾社頭及 時事新報主幹 福澤諭吉, 後藤象二郎, 第一國立銀行頭取 鮎澤榮一 등이 韓國에 큰 影響을 준 者이며 特히 福澤諭吉은 修信使一行이 渡日中 깊이 接近하여 政治文化的으로 큰 影響을 미친 民間의 有力한 指導者로서 그는 朴泳孝, 金玉均 등에게 獨立自主의 政治的 劍說뿐만 아니라 그自身的 20餘年の 經驗에 비추어 人智開發과 國民精神의 昂揚을 強調하고 이를 위하여 洋學을 振興할 것을 劍하고 其手段으로서 첫째로, 洋學을 主로하는 學校를 設立할 것과 둘째로, 新聞紙를 發行할 것을 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朴泳孝, 金玉均 등은 洋學振興과 新聞發行을 計劃하고 福澤門下中에서 牛場卓造, 井上角五郎, 高橋正信 등을 招聘하고 아울러 新聞發行을 위하여 印刷職工, 大工 等을 雇入하였으며 別途로 軍事教練의 教官으로서 元陸軍大尉松尾三代治, 原田一 等도 雇入했다(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研究上 前揭書 pp. 908—910).

(216) 修信使一行은 壬午 7月 25일에 發令을 받어 同 8月 9일에 發程하였으며 正使 朴泳孝, 副使 金晚植(承旨), 從事官 徐光範(注書) 從行人及 隨員 柳赫魯, 朴齊綱 邊達 등 10名을 爲始하여 別途 密諭로 同行하는 金玉均(校理)까지 合하여 15名程度이었다(「使和記略」修信使記錄全 韓國史料叢書 第九. p. 195).

에도 그 經過를 報告하여 癸未年(1883年) 正月 27일에는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所啓로 政府가 全國에 그 制定使用을 正式頒布하게 된 것이다<sup>(217)</sup>. 이와 같이 이들이 時代의 開化風潮를 받아 들이고 近代獨立精神에 自覺한 少壯愛國者들 이었기에 日本의 對韓進出에 利用되기도 했지만 그들 나름으로 日本政府나 朝野의 要路人士들과 맞나 胸襟을 吐露하여 祖國의 自強獨立을 위한 여려가지 새 方案을 講究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修信使 朴泳孝, 一行은 1882年 11月 下旬에 新任日本公使 竹添進一郎과 同途歸國하게 되자 이들 親日政治家를 中心한 少壯革新勢力を 開化黨 或은 開化獨立黨이라 일컫게 되었으며 戚族中心의 事大守舊勢力에 눌려서 큰 勢力도 地位도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青年國王의 信賴를 받아 政界에도 拔擢되었을 뿐더러 隨時로 別入侍도 許容되어 그들의 所信을 國王에게 上奏할 수 있었기 때문에 戚臣들과 比肩할 수도 있었고<sup>(218)</sup> 한동안 相互의 連絡도 無難했던 것이다. 그러나 清國을 背景으로 하는 戚族center의 事大保守勢力은 朴泳孝一行이 歸國하기에 앞서 이미 壬午年 12月에 實施한 內·外衙門과 軍事衙門 및 其他 機關의 政府機構의 改編에서 暫時히 要職을 占領하고 新舊의 政府部署에서相當히 堅固하게 結束했기 때문에 開化自強政策은 實質上 實現할 可望이 없었다.

거기다 閔妃政權은 開化勢力を 謀陷하여 地方에 實權없는 자리에 내 둘리거나 또는 閑職으로 左遷시키는人事政策을 썼기 때문에 이들이 開化政策을 具現할 可望은 더욱 없었다<sup>(219)</sup>. 그럼에도 不拘하고 朴泳孝 등이 歸國하여 強力히 建議한 結果 高宗 20年 8月에 우리나라 最初의 印刷·出版機關인 博文局이 設置되어 同年 10月 1日字로 官報兼新聞性質의 「漢城旬報」가 刊行되게 이룬 것은 劇期的 일이었다. 그리고 朴泳孝가 廣州留守로 赴任된 後에도 이들 開化黨同志들은 朴으로 하여금 壯丁을 募集訓練하여 直系軍隊의 養成에着手케 했으며 또한 國王의 信任狀을 얻어 對日借款交涉을 再開하고자 努力하는 등 逆境에 處해서도 그들의 意志는 挫折되지 않았다. 特히 前記한 博文局 運營을 위해서 日本人 井上角五郎를 招聘하여 主管케 했지만 그 堂上官에도 閔泳穆, 金晚植 등 守舊派戚族系人士가 占하고 開化派에게 實權을 주지 않았으며 每月 3回 官報 및 各國 新聞紙 또는 古今圖書에 依據하여 天下의

(217) 韓國史最近世篇 李瑊根著 pp. 574—575. 「使和記略」修信使記錄全 前揭書 p. 197. 朝鮮史第6編 第4卷 高宗 20年 癸未年 正月 27日 p. 674.

(218) 註 213 參考 承政院 記註 甲申變亂事實.

(219) 修信使가 渡日하고 不在中에 國內政治 情勢는 이미 親清一邊倒로 變하여 開化派들이 그래도 戚臣中에서 同志라고 期待했던 閔泳翊까지 앞서 歸國하자 親清事大保守勢力의 품속에 기울고 말았는가 하면 金允植, 金弘集의 先輩도 어중간한 處地에서 外衙門協辦이란 實權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니 그리고 壬午年 12月 29일에 減省廳의 行政改編 案을 別單冊子로 入啓한 有爲의 開化人材 魚允中이 癸未年 正月 28일에 西北經略使로 내 둘리고 말은 것을 위시하여 修信使 朴泳孝는 服制의 簡素화와 色衣獎勵 등에 나섰다가 戚臣들의 反對謀略에 걸려 廣州留守라는 閑職으로 左遷되었고(癸未年 3月 17일) 同時に 金玉均도 情報蒐集과 政治資金運動 때문에 朴修信使一行보다 조금 뒤늦게 歸國하자 參議交涉通商事務에서 東南諸島 開拓使兼捕鯨使라는 職責을 주어 내 둘리고 말았다(朝鮮史 第6編 第4卷 前揭書 pp. 675 · 678).

情勢와 學術 등의 論說을 刊行케 한 것이었다<sup>(220)</sup>. 그러나 마치 高宗 21年 甲申年初에 清兵의 行悖를 記事로 揭載하고 그 處罰을 論한 것이 問題되어 結局 博文局主事 井上角五郎을 解免 歸國시켜 버린 것이다<sup>(221)</sup>. 이와 같이 閔妃戚族政權이 開化派人士의 政界進出을 封鎖하고 나아가서 大院君系의 主要人物을 들추어 報復과 處刑을 되풀이하는 동안 日本은 清國側의 威勢를 靜視하면서 機會를 엿보고 將次 朝鮮進出을 위한 實利追求에 注力하였다. 即新任 日本公使 竹添進一郎은 高宗 20年(癸未 1883年)에 들어서자 實利外交를 活潑히 展開하였다. 우선 正月에는 花房公使 以來의 懸案이던 韓·日海底電線 敷設條約을 締結하여 釜山, 長崎間의 韓·日間 海底電線을 敷設하는 交涉에 成功했으며 6月에는 韓·日通商章程 등을 8月에는 日本祖界條約을 締結했으며 또 9月에는 仁川, 元山, 釜山 등 港口의 海關稅收稅業務를 日本國立 第一銀行 各支店에 委託하도록 約定하는 利權도 確保했다<sup>(222)</sup>. 이와 같이 經濟의in 利權을 차곡차곡 獲得하는 同時に 文化工作으로서 高宗 20年初에 40餘名의 日本留學生을 派遣하였다. 이 留學生構成은 鄉班, 中人, 常民出身이 大半을 차지하고, 政府要人의子弟는 거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當時의 開化獨立派의 政治的 力量이 얼마나 微微했던 것인가를 推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留學生의 約半數는 戸山陸軍學校에 入學하여 新式軍隊의 幹部教育을 받은 것이며 나머지는 各種의 實業學校에 入校하여 將次 產業開發에從事할 豫定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留學費는 借款中에서 充當되었다. 그러나 大部分이 甲申年に 歸國하여 甲申事變에 加擔함으로서 一部는 牺牲되고 一部는 亡命했지만 이들 留學生은 日本文化의 宣傳者로서 功이 커던 것이다<sup>(223)</sup>.

한편 逆境에서 허덕이던 開化黨同志들의 꾸준한 運動에 對하여 隘路와 妨害는 이만저만한 바가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事大保守黨과 結託하여 外交와 國稅 財政問題 등에 權威라고 自處하는 清國政府가 推薦한 獨逸人 清官顧問 穆麟德의 存在와 그리고 朝鮮政府 및 在韓清國官憲과는 協調하면서 이들 開化黨人士에 對해서 中傷妨害하는 傾向이 있었던 新任 日本公使 竹添公使의 消極的 行動은 가장 致命적인 障碍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특히 穆麟德이가 保守黨人士 以上으로 金玉均, 朴泳孝 등 開化獨立黨人士를 미워하고 그

(220) 日省錄 高宗 癸未年 2月 5日, 朝鮮史 上揭書 癸未 10月 1日 p. 698. 韓國史最近世篇 p. 580.

(221) 朝鮮史上揭書 甲申年 3月 26日 p. 712.

(222) 海底電線敷設條約은 全文 五個條로 되어 癸未年 正月二十四日(朝鮮史에는 正月二十七日付調印 p. 674)에 調印되었고 韓·日通商章程과 海關稅目及 漁採條規 등은 6月 22일에 調印되고 祖界條約은 8月 30일, 第一銀行各支店委託契約은 9月 8일에 각각 締結되었다(韓國史, 最近世編 pp. 559—563).

(223) 田保橋潔著 近代日鮮關係研究 上 前揭書 p. 918.

追記 「徐載弼博士自敘傳」p. 74에 依하면 金玉均이 捕鯨使에 任命되자 「金玉均은同志 61名을 選拔하여 日本留學을 보내게 되었는데 나도 그 61名中的 한 사람이었다」고 했고 福澤諭吉傳卷三 pp. 288, 289, 297을 引用한 前揭 田保橋潔著書(p918)에는 40數名의 日本留學生을 派遣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 人員數는 未詳이나 徐載弼이 거기에 끼어 있고 또 留學費는 金玉均이 日本에서 借款한 日本 正金銀行 借款 捨貳萬圓中에서 支出되었으리라고 推測된다.

들의 計劃이나 運動을 極力 妨害하게 된 것은 「當五錢」<sup>(224)</sup>이란 新貨幣發行問題를 契機로 對立하면서 부터였다. 即 高宗 20 年에 이르러 政府는 財政難을 打開하고자 「當五錢」을 새롭히 鑄造流通케 한 것이니 이것이 流通에 있어 新舊錢이 混用되고 또 物價騰貴도 招來할 危險性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專門家를 自處하던 穆麟德까지 戚臣과 結託하여 이 措置를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에 金玉均은 参을 수 없어 公私席을 不問하고 國王의 面前에서까지 이들을 論駁하고 反對한 것이다.

그리고 日本公使 竹添進一郎은 朴修信使一行과 함께 서울에 새로赴任한以來 朝鮮政府 要路와 接觸하는 동안 開化黨이 政界에서 無力하고 내돌림 당하고 있다는 事實을 알게 되고 同時に 本國政府의 指示에 따라 清國과의 協調를 폐하고자 清官 吳長慶, 穆麟德 등과 接觸할 機會가 많았으나 이들을 通하여 金玉均, 朴泳孝 등 開化黨人士들이 輕薄하고 空論을 일삼는 無爲의 徒輩라고 中傷離間하는데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個人的感情도 것들여 開化黨에게 適當한 援助는 姑捨하고 妨害를 한 것이다<sup>(225)</sup>.

앞서 金玉均은 日本에 殘留하여 日本側과 더불어 第 2 次의 借款交涉을 展開하다가 信任狀이 없다는 理由로 交涉에 失敗하고 歸國한 後에도 機會있는 대로 國王의 信任狀을 얻어 再次 借款交涉을 進行하고자 한 끝에 金玉均은 參百萬圓 限度로 對日借款交涉에 대한 國王의 委任狀을 얻는데 成功하여 이것을 가지고 再次 渡日하게 되었다<sup>(226)</sup>. 이때 開化黨이 希望과 勇氣를 되찾게 되었음을 짐작이 가며 廣州留守 朴泳孝도 앞서부터 推進한 直屬軍隊 訓練計劃에 自信을 가지고 6百名의 壯丁을 募集하게 되었다 한다. 그러나 金玉均이 東京에 到着하여 委任狀을 提示하고 막상 借款交涉에 着手하자 事態는 一變하고 當面交涉에 있어 障碍와 隘路에 부딪친 것이다. 그것은 그동안 日本의 對韓政策이 變更되었을 뿐더러 保守派戚臣과 清官 및 竹添日公使 등의 中傷妨害가 것들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即 日本政府 井上外交는 早晚間 清國과의 衝突을 覺悟하여 軍備擴張에 注力하면서도 서둘리 對韓積極政策으로 清國을 刺激하여 武力衝突을 誘發할가 慎重을 期한 것이며<sup>(227)</sup> 또한 戚臣閔泳穆과 穆麟德 등은 金玉均의 持參渡日한 委任狀까지도 偽造라고 中傷하고 竹添日公使는 이를 그대로 本國政

(224) 當五錢이란 貨幣裏面에 「當五」라는 文字를 刻印하여 舊錢(高宗 19 年 鑄造流通한 正圓無孔의 大中小三種으로서 大東三錢, 大東二錢, 大東一錢等) 五枚에 該當하게 한 것이나, 新·舊錢은 錢文 表示以外로는 別差異 없어 混用될 憂慮가 많고 當時의 政令이 全國에 잘 漫透될 理가 없어서 混亂과 「인구례」를 招來할 危險이 많았다.

(225) 田保橋潔著 近代日鮮關係研究 上 前揭書 pp. 916—917. 이와 같은 竹添公使의 開化黨에 대한 消極的인 態度는 그의 個人的感情뿐만 아니라 當時 白本政府의 井上 對韓外交政策이 消極的인 方向으로 흐르게 된데에 起因한다고 본다.

(226) 金玉均은 처음 拾貳萬圓의 借款을 成立시킨 實績도 있고 國家財政이 極히 窮乏한 版局인지라 國王도 金玉均을 信任하여 三百萬圓 限度의 借款委任狀을 發給해 주었을 것이라고 보는 說이 有力하다(李瓊根著 韓國史 最近世篇 p. 581. 金玉均手記 甲申日錄).

(227) 田保橋潔著 近代日鮮關係研究 上 前揭書 pp. 901—907.

府에 密報하게 이룬 것이다. 이리하여 金玉均은 日本政府를 相對로 하는 借款交涉을 斷念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東京에서 美國乃至 英國 또는 日本銀行 등을 相對로 한 起債交涉도 試圖해 보았지만 如意치 못하자 苦杯를 마신채 甲申年 3月에 歸國하고 말았으니 開化獨立黨의 失望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朴泳孝도 結局 壯丁募集計劃을 拋棄하고 廣州留守까지 辭任하게 되며 그가 指揮하던 軍隊는 反對黨의 親軍 前後營으로 統合되고 말았다. 그 뿐만 아니라 開化黨側에서 開化獨立의 同志로서 期待를 걸었던 戚族의 代表格인 閔泳翊은 甲申年 5月에 全權大臣으로서 歐美를 視察하고 歸國하자 그의 一族屬의 품에 안기여 革新의 意慾을喪失하고 오히려 獨立黨을 中傷하고 謀叛하는 背信行爲도 서슴치 않았다. 그리하여 이들 開化獨立黨人士들의 初期의 運動은 近二個年만에 結實을 보지 못한채 거의 失敗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러나 마치 國際情勢의 變動을 契機로 清國勢力이 弱化되고 日本의 對韓政策이 豺變하게 되자 開化獨立黨도 再起를 劃策하게 이룬 것이다. 即 安南問題를 둘러싸고 清佛戰爭이 勃發하고 또 清廷內部의 派閥紛糾가 惹起되자 이러한 清國側의 政治動向이 서울과 日本政界에直接 影響을 招來한 것이며 이에 따라 서울에 進駐했던 清軍兵力이 半減撤收하고 大院君의 放釋還國<sup>(228)</sup> 運動도 展開되자 親清事大黨이 힘을 잃은 反面에 開化獨立黨이 再起의 機會를 얻게 되었으며 日本政府도 老大帝國 清國을 賴보아 韓國에서 清國勢力を排斥하고 對韓進出을 劃策하게 된 것이다<sup>(229)</sup>. 여기서 開化獨立黨人士들은 다시금 勇氣를 얻어 同志들을 紛合하고 激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親清事大黨도 弱化되는 劢力を挽回하고자 閔臺鎬를 내세워 海防事務를 強化시키고 從來의 龍虎, 禁衛, 御營廳, 總戎廳 등의 四營을 親軍諸營으로 移管統合하고 軍器寺는 機器局에 移管했으며 親軍營編成도 二個營에서 四個營으로 擴充하는가 하면 四營使를 위시한 軍事治安의 全權을 거의 戚臣事大黨人士로서 充員케 하는데 成功했다<sup>(230)</sup>. 한편 開化獨立黨側도 甲申年 3月 27일에 新設 郵政總局 總辨에 洪英植이 任命되고 同年 6

(228) 壬午軍亂을 契機로 李鴻章은 大院君을 拉致하여 直隸保定에 拘囚하고 本國과의 交通도 禁하여 本國에 있어서의 政治的 陰謀와의 關係를 遮斷해 왔다. 그러나 마치 高宗 21年(1884年) 3月에 清國朝廷에 政變이 勃發하여 李鴻章系, 政派가 彙劾을 당하고 밀려나자 그 波動은 韓國政界에도 波及되어 駐韓清軍에 대한 民怨이 높아지고 吳長慶對 袁世凱의 軋轢도 露呈되어 吳以下 諸部隊를 撤收시키는가 하면 高宗王을 為始한 群小政客들의 大院君放釋運動이 活氣를 띠었다(田保橋 前揭書 pp. 878—891).

(229) 日本政府는 朝鮮國王이 從前에 期待하지 않았던 日本의 好意的 支持를 希望하고 있다는 情報를 듣고 井上外交에 多少 修正을 加하여 竹添公使로 하여금 歸任시켜 朝鮮을 積極支援하되 우선 壬午賠償金의 殘額 40萬圓을 無條件寄贈하도록 하고 또 獨立黨에 대한 後援處置도 竹添公使에게 一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田保橋 前揭書 pp. 922—924).

(230) 親軍營制를 改定하여 監督을 营使라 고쳐 軍務堂上을 兼하게 하고 韓圭稷(前營使), 李祖淵(左營使), 閔泳翊(右營使), 尹泰駿(後營使) 등 事大黨人士를 充員하였다(朝鮮史 第6編 第4卷 p. 728).

月 30일에 操鍊局 士官長으로 徐載弼이 任命되는 등<sup>(231)</sup> 一部 政治的充員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政敵과 對決할 수 있기에 너무나 弱勢의 位置에 있었기 때문에 民間青壯年을 糾合하고 나아가서 日本에 留學보낸 士官生徒들을 召還하는 등 組織化를 內密히 劃策했다.

마침내 甲申年 9月에 日本公使 竹添進一郎가 本國政府의 訓令을 받고 再赴任하자 서울政界는 活氣를 띠고 緊張하게 되었다. 그는 前日의 優柔不斷한 態度와는 달리 國王以下 執權黨에 대해서나 獨立黨人士에 대해서 好意를 表示하고 特히 清國官憲에 대해서 非難 敵對視하는 등 政策의 變更를 示唆하는 積極的 言動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爲先 金玉均, 朴泳孝 등에게 改革運動을 積極支援할 것을 約束하고 그들의 改革案을 早速히 推進할 것을 促求하는가 하면 또한 國王에게 謁見한 자리에서 壬午軍亂의 損害賠償金 殘額 40萬圓을 朝鮮政府에 還納하고 內政改革의 資金으로 써 달라는 本國政府의 意思를 奏達하였고 나아가서는 獨立黨要人們과 親清執權黨을 打倒하는 謀議를 하였다.

서울에 駐在하는 清·日兩軍의 敵對氣勢가 날로 險惡해져 가는 가운데 獨立黨要人을 為始하여 直行動을 擔當한 日本留學生出身者와 獨立黨要人の 家奴 從僕 및 그들의 腹心의 負懈商과 常民 또는 親日傾向이 있는 前營軍卒 등을 金玉均을 中心으로 組織化되어 密議한 끝에 不遠間에 舉行될 郵政局開設披露宴을 利用하여 事大黨要人을 暗殺하고 「쿠테타」Coup d'état를 敢行하여 革新政策을 實現하고자 劃策을 推進하였다. 金玉均 등은 日本公使館에 往來하여 竹添, 島村 등과 連絡하면서 直行動의 方法에 關하여 協議하는 한편<sup>(232)</sup> 國際的 輿論의 反擊을 念慮하여 美公使「푸트」Lucius Foote, 英領事「아스톤」William George Aston 등도 歷訪하여 日本의 協力으로 內政改革을 斷行할 決意를 알리고 凉解를 求했으며<sup>(233)</sup> 나아가서는 金玉均은 그들의 「쿠테타」計劃에 對하여 國王으로부터 臨機措處를 委任받는 親手密勅을 얻었다는 說도 있으며 國王이 이 計劃에 關하여相當한 信任을 表示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反對로 金玉均의 奏上을 國王이 反對했다는 說도 有力하여 아직 確實치가 않다<sup>(234)</sup>. 如何間에 이들의 計劃은 着着 進展되어 高宗 21年 甲申(1884年) 10月 17일 서울

(231) 朝鮮史 第6編 第4卷 高宗 21年 甲申年 3月 27일 p. 713, 724.

(232) 金王均, 朴泳孝, 徐光範, 徐載弼 등 四首領이 立案하여 竹添公使와 島村書記官 등에게 喗殺할 「諸閥及數三奸臣」인 實力者大臣의 姓名을 內示하여 日本側의 同意를 얻고 日本警備隊가 國王保護를 擔當하고 그리고 金玉均의 政府改造에 所要되는 資金은 竹添公使가 保證하되 300萬圓程度면 日本에서 起債가 可能할 것이며 時急한 用途면 仁川·釜山·元山의 居留民으로부터 10萬圓을 借入할 것을 約束하고 또한 日本兵의 出動保護를 請求하는 경우에는 國王親書를 發하여 朴泳孝가 王使로서 公使館에 行하도록 合意를 본 것이다(甲申日報 新曆 11月 25日 午後 2時頃 金玉均 傳上 pp. 315—317. 田保橋前揭書上 pp. 935—936).

(233) 當時 英國公使의 贊意는 얻지 못 했으나 特히 Foote公使은 金玉均과 頻繁히 接觸하여 通情도 하고 勸告와 協議를 한 것이다(第二章 第三節 參照, 金一平著 韓米五十年史 前揭書 p. 94).

(234) 甲申日報 前揭書에서는 親手密勅이 내렸다고 하고 또 F.H. Harrington, God Mammon and the Japanes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44. p. 21. 및 李瑄根著 韓國史 前揭書 p. 610 등에서는相當한 信任이 國王으로부터 表示되었다고 하나 反對로 朝鮮政府는 總理衙門을 通하여 「逆臣矯旨」라 指摘하고 있어 이를 믿는 有力한 說도 있다(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研究上

郵政局의 落成式의 祝宴會를 利用한 事大黨處斷의 政治的 隊謀事件이勃發한 것이었다.

## 第二節 甲申政變과 革新政策

甲申政變은 反對派의 大臣 및 有力者를 一舉에 暗殺한 流血慘事로서 朝鮮歷史上 未曾有의 事件이었다. 이 事件의 首謀者の一人인 洪英植은 이미 新設 郵政局長에 任命되었기 때문에 自己名義로 外國使臣을 비롯하여 殺害할 政府要人 및 各閣僚 등에 招待狀을 發布했다. 그러나 當日의 事件을豫覺했는지 招待者 24名中 當宴會에 參集者は 主客 全部 18名에 不過했다<sup>(235)</sup>. 各要所에는 刺客을 潜伏시켜 놓았으며 時限爆發物을 裝置해 놓기도 했다. 그리고 各 暗殺對象者(守舊派의 閔泳翊, 尹泰駿, 李祖淵 및 韓圭稷)에게는 각 2名式의 朝鮮人暗殺擔當者와 그리고 각 1人式의 日本人 暗殺下手者(民間浪士 1人, 日本守備隊員 1人, 및 日本公使館員 2人の壯士들)를 配置하여 놓았다. 이와 같이 日本人暗殺下手人을 配置한 것은 朝鮮人 暗殺擔當者가 이만한 殘忍한 斬殺行爲를 實際로敢行할지 매우 疑心이 갔기 때문에 이러한 直接行動을 조금도 서슴치 않고 할 수 있는 日本人 壯士各 1名을 불여서 朝鮮人 暗殺擔當者가 踊躇하고 있는 경우에 代身 暗殺實行의 任務를 맡고자 한 것이며 이 日本人에는 朝鮮服을 着用시켜 兵器로서는 各員에게 爪統 一挺과 日本刀 一挺식을 交付한 것이다<sup>(236)</sup>.

마침내 計劃된 爆發로 窓門밖에 火焰과 함께 宴會席이 修羅場이 되자 難을 避하여 大門밖으로 먼저 나간 閔泳翊이 日本人의 칼에 맞아 피범벽으로 쓸어져 重傷을 입었다. 그러나 郵政局에서의 豫定된 計劃은 放火의 失敗로 結局 뜻을 이루지 못하자 金玉均, 朴泳孝 등은 日本公館으로 急行하여 竹添公使 등의 決心을 確認한 뒤에 宮中으로 直行하여 國王을 속여 景祐宮으로 移御케 하고 日本守備隊로 하여금 警備케 하는 同時 政府閣僚의 往來는 金玉均이 許可하는 者만이 入門하게 하였다. 이때 入門이 許可된 閣僚는 暗殺이豫定된 者만이었다<sup>(237)</sup>.

이리하여 이 事變消息을 듣고 달려 온 政府閣僚는 한사람식 金玉均에게 報告되고 入門이 許可된 者는 宮中에 끌려가 殺害된 것이다. 우선 尹泰駿, 李祖淵, 韓圭稷 등이 차례로 殺害

p. 938. 申國柱著 近代朝鮮外交史研究 p. 235).

(235) 朝鮮史 第6編 第4卷 pp. 731—732. 甲申日報 田保橋潔 前掲書 pp. 951ff. 參席者は 右營使 閔泳翊, 外務督辦 金弘集 左營使 李祖淵 前營使 韓圭稷(以上 守舊派) 外衙門協辦 金玉均, 外衙門參議 尹致昊, 承旨 閔內奭, 司事 申樂均, 郵政局總辦 洪英植, 江華留守 朴泳孝(以上 開化派) 그리고 外國使臣으로 Foote 美公使와 그 書記官 Scudder Aston 英總領事, 陳樹棠 清國領事와 그 書記官 譚致堯, 日本公使館 書記官 島村久和 同川上 通譯官 및 稅關顧問 穆麟德 參判 등 18名이었다. 특히 日本公使 竹添는 稱病不參했다.

(236) 「福澤諭吉傳」第三卷 pp. 225—256. 田保橋潔 前掲書上 p. 950. 井上角五郎述「金玉均について」昭和 12 年 中央朝鮮協會發刊「呂善哉」.

(237) 金玉均은 國王을 謁見하여 郵政局事變이 터졌음을 아뢰고 모든 罪科를 事大黨側에 넘겨 죄우는 同時に 避難出御를 奏請했으며 마치 宮中外에서 爆發한 爆音이 「清軍이 亂을 일으켜 지금 宮中으로 亂入中임」으로 出御避亂할 것을 請하여 允許를 얻었다. 이때 朴泳孝는 日本公館으로 竹添을 訪問 「日本公使來護朕」이란 形式으로 出兵을 依頼했다. 이에 따라 日本陸軍步兵 大尉村上正積 隊長이 指揮하는 日本守備隊가 入衛했다. 日省錄 甲申年 10月 17日(高權三著 朝鮮政治史 p. 91. 朝鮮史 前掲書 p. 731. 李瑄根 韓國史最近史 pp. 623—624).

되었고 뒤이어 金玉均 등이 御名을 빌어 閔泳穆, 趙寧夏, 閔臺鏞 등 事大黨巨頭들에게 急遽 入侍하라는 召命을 發하고 달려 온 三大臣이 入闈하자 차례로 斬殺했다. 이와 같이 甲申年 10月 17일 午後 10時半부터 同月 18일未明에 걸쳐 反對派의 大臣과 有力者를 一舉에 暗殺한 流血慘事が 이땅에서 벌어졌으나 이러한 殘酷한 事件은 朝鮮歷史上 처음보는 일이었다. 이때에 前述한 朝鮮人 暗殺 擔當者들은 殺害를 踏躇하고 實行하지 못했기 때문에 日本人의 實行補助者들이 率先하여 結局 暗殺을 決行한 것이다. 元來 朝鮮에 政治的 叛亂이 頻繁했지만 이와 같은 悲慘한 流血의 慘事는 없었다. 大概는 政變으로 成立된 新政權이 司法機關을 通하여 舊政權의 要人을 合法的으로 逮捕審問한 後 流配를 시키거나 또는 最後의 手段으로 賜死를 내리는 節次에 따라 除去한 것이다. 但 direct的手段은 忌避하는 것을 道理로 여기었던 것이다. 그러나 甲申政變의 首謀者들은 모두 日本文化에 感化된 所謂 開化人們로서 이들이 日本人과 密議하여 敢行한 政變이었기에 日本의 近代政治史에서 혼히 볼 수 있었던 斬殺의 卑劣한 手法을 計劃的으로 朝鮮人 青年에게 교사하여 慢行한 것으로 본다. 即 明治維新의 日本青年志士들이 道德上의 何等의 罪意識도 없이 오히려 讚美하는 傾向조차 있었던 暗殺(또는 斬殺)의 惡習을 이들 朝鮮人 首謀者들이 朝鮮人青年에게 傳授하여 演出한 것이었다고 본다.

如何間에 「쿠데타」는 成功하여 事大黨의 巨頭 六大臣을 除去해 버린後 獨立黨要人們은 곧 國王에 啓言하여 政府의 改造,新政權의樹立에着手했다. 우선 承政院 承旨 統理衙門堂上四營營使를 全員更迭하고 다음 大臣卿宰의 人選에 들어 갔다. 主要人事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領議政 李載元(大院君의 媚)

左議政 洪英植

親軍前後營使兼左捕盜大將 朴泳孝

左右營使兼代理外務督辦右捕盜 徐光範

左贊成兼左右參贊 李載冕(大院君嗣子)

吏曹判書右承旨兼弘文提學 申箕善

戶曹參判 判書署理兼惠商局堂上 金玉均

禮曹判書 金允植

刑曹判書 尹雄烈

工曹判書 洪淳馨(洪大妃姪)

兵曹判書 李載完(宗親)

漢城府尹 金弘集

判義禁 趙敬夏(趙大妃姪)

藝文提學 李建昌

兵曹參判兼後營正領官 徐載弼

都承旨 朴泳敎(泳孝之兄)

同副承旨 趙東冕(戚臣)

同義禁 閔肯植(戚臣)

外衙門參議 尹致昊

兵曹參議 金文鉉

水原留守 李熙善

平安監司 李載純(宗親)

說書 趙漢國(大院君外孫)

洗馬 李浚鎔(載冕之子)

以上의人事에서 보다시피 前後 左右의 4營使와 左右捕盜大將 및 軍事財政 그리고 都承旨 등의 要職에는 開化黨要人들이 占하고 있으며 宗親 其中에서도 大院君系의 人物을 많이 重用한 것은 新政府의 正統化와 閔妃外戚의 專橫을 막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본다<sup>(238)</sup>.

이와 같이 革新政府가 樹立되자 甲申年 10月 18일에 李載元, 洪英植, 李載完, 朴泳孝, 金玉均, 徐光範, 朴泳敎, 申箕善 등이 모여 밤을 세워 諸政革新을 議論했다. 議論結果에 關해서는 諸臣이 國王에게 次對를 講하여 啓言하고 國王의 뜻을 받들어 再三修正한 후 裁可를 얻었다. 이 會議에서는 거의 金玉均 혼자 活動했으며 革新條項 같은 것은 金玉均의 意圖를 쓰아 起案하고 이를 傳敎라 稱하여 獨斷專行하고 國民에게 頒布하기로 했다 한다. 이리하여 同年 10月 19日 朝에 新政府의 政綱이 다음과 같이 發表됐다 한다<sup>(239)</sup>.

(238) 朝鮮史 第6編 第4卷 前揭書 pp. 732—733, 李道根著 韓國史 前揭書 p. 632.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研究上 pp. 962—963.

(239) 金玉均手記「甲申日錄」, 李道根著 韓國史最近世篇 p. 637.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研究上, 前揭書 pp. 964ff. 申國柱著 近代朝鮮外交史研究 p. 216. 新政府의 이 政綱이 如何히 作成되고 또 果然 10月 19일에 發表되었는지 與否에 關해서는 金玉均의 手記인 「甲申日錄」外에는 確認 할 수 없다(當時의 事件顛末書인 竹添公使「朝鮮京城事變始末書」나 井上角五郎著「漢城酒殘夢」등에도 이 政綱의 記錄은 없다) 따라서 甲申政變의 進步의 性格을 否定하는 立場에서 이 政綱은 金玉均이 日本亡命後 日本의 朝野에 宣傳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보는 說도 있다(申國柱著 前揭書). 卽 當時 金玉均一派의 親日政權은 守舊派의 反擊과 清軍의 干涉을 두려워 하여 王室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政令은 王室外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當時의 狀況을 살펴 보면 대 18일 朝 · 新政府의 閣僚名單이 發表된 후로 國王은 閑安次 入內한 美國公使 Foote 와 英國總領事 Aston 을 謁見하여 改革에 대한 問答을 하였다(이 때 美公使는 改革에 賛意를 表했다). 이렇듯 新政府는 外國使臣도 接見해 가며 國王을 움직여 장차 國民에게 頒布할 新政綱要 講究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王妃등이 거듭 還宮을 主張하였기 때문에 臨時로 桂洞宮으로 옮기었으며 다시 國王와 竹添 등의 主張으로 同 18일 下午 5時 頃 昌德宮으로 還御한 것이다. 이때 廣闊한 大闕內에서 獨立黨要人們은 優勢한 清軍의 敵對의 干涉과 守舊派의 反擊威脅은 받았지만 그래도 普世에 無事히 諸政革新을 議論한 끝에 翌日 朝에 成案된 政綱을 發表한 것으로 생각한다.

- 一. 大院君은 不日 歸國하도록 하는 同時に 清國에 대한 事大朝貢의 虛禮를 廢止할 事.
- 二. 門閥을 廢止하고 人民平等의 權利를 세워 人材로 登用할 事(以人擇官, 勿以官擇人事)
- 三. 全國의 地租法을 改革하여 奸吏를 杜絕하고 窮民을 保護하여 國用을 裕足하게 할 事.
- 四. 內侍府를 廢止하고 其中에 優秀한 人材를 登用할 事.
- 五. 前後 貪官惡吏로서 國家를 害침이 極甚한 者를 處罰할 事.
- 六. 各道의 人民에게 貸與하였던 高利의 官有穀을 永久히 徵收하지 않음 것(各道還上, 永永臥還事).
- 七. 奎章閣을 廢止할 事.
- 八. 急히 巡警을 두어 窃盜를 막을 것.
- 九. 惠商公局을 廢止할 事.
- 十. 前後 流配禁錮에 處한 者를 酌量 減刑할 事.
- 十一. 四營을 一營으로 統合하고 一營中에서 壯丁을 選拔하여 近衛隊를 急設할 事.
- 十二. 모든 國內財政은 戶曹에서 總括하도록 하고 其餘의 一切 財簿衙門은 廢止할 事.
- 十三. 大臣과 參贊은 每日 閣門內 議政所에 會合하여 政事を 議定하고 政令을 布行할 事.
- 十四. 政府六曹以外의 모든 屬衙門空官은 淘汰하되 大臣·參贊으로 하여금 裁量껏 이를 議定·啓言하도록 할 것.

무릇 革新傳教의 全文을 發見할 수는 없으나 前記 14個條로서 其大要를 알 수가 있다. 그 중 重要한 것을 들으면 첫째 大院君의 歸國을 들은 것은 新生獨立黨政府로서 一時의이나 大院君과 提携함으로서 國王戚族을 壓迫하고자 하는 戰略的動機에서 이며 이를 위해 組閣人選에서도 大院君系宗室을 많이 重用했음은 前記한 바와 같다. 그리고 清國에 대한 朝貢廢止를 내세운 것은 對清關係의 一大轉換을 피한 것으로 獨立黨의 政策으로서 當然한 것이다.

둘째, 門閥廢止는 事實은 이미 大院君 執政當時부터 實施되어 온 것이지만 元來 門閥觀念이 오랫동안 強烈하게支配해 왔기 때문에 一朝一夕에 實現되기는 至難한 일이었다. 그리고 人民平等의 權利를 내세워 사람을 가지고 官을 擇할 것이로되 官을 가지고 사람을 擇해서는 안된다고 主張한것은 말로는 쉬우나 實行하기 어려운 일로서 獨立政權이 成立했다 하더라도 아마 實現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人事政策을 내세웠다는 것은 어느程度 近代的인 人事行政을 實施하려는 近代意識의 發露로서 意味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地租法의 稅制改革과 一般窮民의 保護(三)를 強調하는 同時に 高利로 貸與한 官穀의 永久無効를 聲明한 것은(六) 新政府의 革新的 經濟·社會政策을 내세운 것으로서 그 政府의 支持基盤을 擴充하고자 하는 戰略도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넷째, 全國의 財政을 모두 戶曹所管으로 移管統合하고 그밖에 一切財簿衙門의 廢止를 主

張한 것은 從來의 朝鮮王朝 財政의 根本的 痘弊를 一掃하고 財務行政의 近代化를 피하는 첫段階改革이라 하겠으며, 이 改革은 結局 王室과 宗室의 財源을 國庫에 歸屬시키는 것이 됨으로 그 斷行에 있어서는 國王과 大院君을 包含한 宗室戚族들의 最後까지의 抗爭에 부딛쳤을 것으로 본다. 金玉均은 權限이 매우 擴大된 新戶曹의 責任者로서 自身이 이를 主宰할 計劃이었던 것이다.

다섯째, 宦官廢止와 貪官惡吏의 治罪를 強調한 것은 東洋諸國(日本等 除外) 特有의 宦官의 弊害를 一掃하고 아울러 不正腐敗한 戚族의 大臣, 僉宰, 監司 및 守令 등을 肅清함으로서 徹底한 行政紀綱의 確立를 피한 것이다.

여섯째, 奎章閣과 惠商公局을 廢止하고 모든 兀官의 淘汰를 主張한 것은 行政改革과 國費節約을 主張한 것이며

일곱째, 巡警制度의 新設과 4營의 統合 및 近衛隊의 設置 등을 主張한 것은 軍事와 警察制度의 一大革新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여덟째, 日本의 官制를 模倣한 官制改革을 主張하고 있는 바 改革案에 依하면 議政府와 六曹를 두고 議政府에 領議政, 左議政, 右議政 및 六參贊을 두되 參贊은 六曹判書를 兼任케 되어 있다. 即 3人의 議政과 6人의 判書로서 構成된 一種의 內閣制를 提案하고 있는 바로서 政策決定者와 政策執行者の 意見을 內閣에서 統合할 수 있게 한 點에서 合理的인 編成이라 하겠다<sup>(240)</sup>.

以上 列舉한 政綱은 모두 當時의 政治行政上의 不合理한 點을 改革하려는 進步的인 政策임에 틀림없었다. 政治 및 行政發展을 위한 改革綱領으로서 앞에서 指摘한 바 있는 壬午年 12月의 魚允中の 主宰下에 減省廳에서 成案한 政府改編案보다는 그 範圍와 內容에서 本質의으로 前進하고 있음을 勿論하고 10年 後日 甲午更張때에 金弘集內閣이 頒布, 實行한 革新政策과 大體로 同一한 理念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듯 10年間의 先後間隔을 두고 이 뿐이진 이 두개의 改革을 比較할때 甲午更張이 보다 外勢에 依해 他律的으로 이루워진데 比하면 10年 先行한 開化獨立黨의 革新政策은 보다 自立的인 立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見地에서 開化獨立黨의 革新政策을 設使 그것이 當時의 內外의 環境的 狀況下에서 結實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政治, 行政體制를 近代化시키기 위한 先驅의 運動이 있다고 할수 있겠다.

### 第三節 事大黨 守舊政府의 再建

開化獨立黨의 「쿠태타」事件에 日本軍이 介入했음을 알게 된 清國은 은밀히 反擊을企劃하고 있었다. 그리고 10月 19日 朝에 重臣 金允植, 南廷哲 등은 清營에 가서 國王을 亂黨 속으로

(240) 當時의 日本의 內閣官制를 보면 太政官에 太政大臣, 左大臣, 右大臣及 參議를 두고 參議는 各省卿을 兼任케 하고 있었다.

부터 救出할 것을 哀請했지만 國王一身의 安全과 清·日兩軍의 交戰誘發을 避하기 위하여 清軍은 自重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한편 獨立黨의 計劃이 進行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面從을 假裝한 京畿監司 沈相薰은 極秘裡에 國王에게 接近하여 事件의 真相과 獨立黨의 陰謀를 詳細히 奏上하고 閔妃에게는 戚臣과 重臣 七人이 殺傷當한 것을 報告하고 또한 清兵을 引入하여 日兵을 擊迎할 計劃을 獻策하였다<sup>(241)</sup>.

外部와의 國王과 宮中의 消息이 完全히 끊기고 日本公使 支持下에 國王을 廢했다는 등 가진 不穩한 流言이 나도는 가운데 清官 統領 吳兆有, 營務處 袁世凱 그리고 領事 陳樹棠 등은 清兵入闕을 決意하고 右議政 沈舜澤으로 하여금 朝鮮國政府 代表者로서 清軍公式出兵을 請求케 하였으며 이에 따라 吳統領 등은 國王에게 一封書를 傳達하였고<sup>(242)</sup> 얼마 못가서 清陣의 通譯官이 또다시 來告하되 「袁世凱가 清兵 六百名을 引率한 後 入闕하여 謁見하기를 請한다」고 하는 同時에 六百名을 二隊로 分하여 東西兩門으로 들어 오겠다고 通告하는 것이었다. 뒤따라 袁世凱 등의 清陣으로 부터 竹添公使에게도 國王保護를 위해 兵을 引率하여 王宮內로 進入하더라도 日本國 公使에게 他意가 없다는趣旨의 一封書가 傳達되자마자 突然한 銃聲이 闕內를 震動하며 清兵의 폐가 東南으로 부터 쳐들어 왔다<sup>(243)</sup>.

마침내 여기서 清·日兩軍은 衝突을 免치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當時 서울에는 清軍兵力이 三營 1500名인데 比하여 日本軍은 겨우 一個中隊 約 200名에 不過했다. 이와 같은 劣勢한 日本軍을 믿고 舉事한 開化獨立黨의 計劃이 얼마나 無謀한 것이었는지 짐작이 가는 것이다. 闕內의 朝鮮軍으로 말하면 애당초 兵力은 800名程度라고 일컬었으나 銃身이 녹슬어 發射가 不可能했으며 막상 清·日兩軍이 正面衝突한 때는 銃器를 分解하여 整備中에 있었음으로 맨주먹으로 右往左往 分散 逃走하고 만 것이다. 마침 10月 19日 午後 6時頃 清軍은 東大門쪽으로 부터 昌德宮에 接近하면서 日本主力部隊를 攻擊하였다. 더욱이 清軍이 王宮에 切迫하자 朝鮮守備兵도 清軍에 加擔하여 日軍을 向해서 射擊했다. 이러한 形勢는 獨立黨政府에게는 勿論致命의이었다. 이때 金玉均 등은 國王을 仁川으로 移奉하여 日本의 援軍을 기다리자고 主張했지만 國王은 이에 應하지 않았다. 여기서 金玉均, 朴泳孝, 徐光範, 徐載弼 등은 竹添公使와 日本兵을 따라 昌德宮을 撤收하여 日本公使館으로 向해避難했으며 洪英植, 朴泳敘 등은 國王에 陪從했으나 清軍에게 殺害되어 清軍은 國王을 받들어 清營으로 모셨다<sup>(244)</sup>, 이

(241) 風雲韓末秘史 p. 114.

(242) 吳提督의 封書內容은 「大王殿下 昨夜는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大王의 洪福으로 京城의 內外가 常時와 같이 平靜하오니 大王께서는 安心하옵소서. 우리 清三軍도 德澤으로 無事하오므로 아울러 奏上하옵니다.」 上下略 甲申日錄 12月 6日字(陽曆), 田保橋 前揭書 p. 976.

(243) 文定昌著 近世日本の 朝鮮侵奪史 1964. pp. 222—223.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研究上 pp. 974—977. 李瑄根著 韓國史 最近世篇 前揭書 pp. 643—644.

(244) 國王이 清兵의 手中に 들어가면 獨立政權의 卽時壞滅을 意味하는 것이기에 먼저 金玉均 등은 國王을 仁川에 移奉하여 日政府의 援助를 기다릴 것을 極力主張한 것이다. 國王이 이를 拒絕했고 竹添公使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

로서 獨立黨政權은 文字 그대로 三日天下로서 終焉을 告한 것이며 日公使로 避身한 獨立黨要人를은 日公使를 따라 간신히 仁川으로 脫出하여 日本으로 亡命하였던 것이다.

한편 守舊派事大黨은 10月 19日 밤부터 活動을 開始하였다. 翌 20日에 國王은 清營에서 下都監의 袁世凱 謶房으로 移御하여 비로소 諸大臣을 召見하고 18日에 除去된 諸官을 復職시키는 등 善後策을 講究하는 同時에 外務督辦으로 하여금 서울駐在 各國使臣에 對하여 竹添公使와 日本軍의 行動에 抗議·問責하는 照會를 發送케 했다. 그리고 翌 21日부터 23日에 걸쳐 國王의 教旨에 의하여 다시 事大黨中心의 政府人事가 組織發表되었다<sup>(245)</sup>.

領議政	沈舜澤	戶曹參判	南廷哲(復)
左議政	金弘集(兼外務督辦)	海防總管	李奎遠
右議政	金炳始	外務督辦	趙秉鎬
吏曹判書	李載元	同 協辦	金允植·穆麟德
戶曹判書	金永壽(復)	同 參議	徐相雨
禮曹判書	金晚植(李載完)	弘文館修撰	李範晉
兵曹判書兼江華留守	金允植	仁川監理	洪淳學
刑曹判書	洪澈周(復)		
工曹判書	(李寅應), 金有淵		
前營使兼惠商公局堂上	李教獻		
後營使兼右捕盜大將	李鳳九		
左營使	李奎奭		
右營使	閔泳翊(復)		
左捕盜大將	申奭熙		
宣惠廳提調	魚允中		
漢城判尹	閔種默(沈相薰)		
開城留守	趙準永		

그리고 甲申變亂中の 傳教는 모두 還收하고 統理軍國事務衙門을 議政府에 廢合하는 同時に 事變을 惹起한 郵政局을 廢止했다. 또한 10月 22日에는 金玉均, 朴泳孝, 徐光範, 徐載弼 등의 逮捕令이 내렸고 同 23日에는 國王이 昌德宮에 還宮함으로서 變亂前의 原狀으로 復舊되었다.

이제 甲申年 10月 17일에 舉事한 開化獨立黨의 政治 및 行政改革計劃은 三日만에 慘敗로서 끝난 것이다. 이 甲申政變이 우리에게 가리켜 주는 歷史的 教訓은 上層階級의 一部改革

(245) 朝鮮史 第6編 第4卷 前揭書 pp. 739—740. 日省錄 高宗 甲申年 10月 21, 23日 韓國史 最近世篇 p. 659.

派人士에 依한 開化運動이 主體的으로 너무 弱하고 또 一般民衆의 呼應과 自覺的 支持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成熟할 수 없다는 것이다. 即 一般民衆은 封建的 因襲과 觀念에 緊密히 있고 少數의 改革派「엘리트」들은 國民大衆과 遊離된 채 改革을 위한 深謀遠慮가 없이 煙急한 政權爭奪에만 没頭한 것이며, 거기다 日本의 侵略勢力에 依存하여 疏漏한 革新計劃만을 서둘러 實踐해 보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結局 結實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甲申政變이 國內・國外에 미친 바 影響은 매우 큰 것이었다. 即, 적어도 甲申政變의 우리나라 近代化運動의 先驅的 意義를 否認할 수 없는 바이지만 이에 參與한 獨立黨要人과 그 家族들에 對해서는 逆賊의 烙印과 더부러 무서운 殺戮과迫害가 加해진 것이며 甚至於는 그들의 家族에게는 家族制度上 重要한 作名의 行列字까지 變改하게 한 것이다. 또한 一部 少數人士가 아들의 理想과 行動을 理解・同情하고 그 失敗를 愛惜하게 생각했을지 모르나 大多數의 國民은 開化와 獨立을 思想的으로나 行動面에서 逆賊謀議가 아니면 親日賣國이라고 斷定하고 있는 反面에 戚族事大黨의 跋扈와 專橫은 不問에 부치는 傾向이 있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政變後에 行政의 不正과 腐敗는 날로 激甚해져 結局 王朝의 衰亡을 催促한 것이다. 한편 甲申政變은 對外的으로 韓國의 國際的 位置의 重要性을 認識케하고 韓國을 清・日을 위시한 列強들의 國際政治 權力闘爭의 焦點으로 만드는 契機가 되게 했던 것이다.